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연대 (煙臺) 탐구를 통한 발현적 교육 경험 강진영 2017년



석사학위논문

연대(煙臺) 탐구를 통한
발현적 교육 경험

An Emergent Educational Experience
through Jeju Smoke-Signal Station Stud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강진영

2017년 2월





석사학위논문

연대(煙臺) 탐구를 통한
발현적 교육 경험

An Emergent Educational Experience
through Jeju Smoke-Signal Station Stud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강진영

2017년 2월



연대(煙臺) 탐구를 통한
발현적 교육 경험

An Emergent Educational Experience
through Jeju Smoke-Signal Station Study

지도교수 류 현 중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강 진 영

2016년 11월



강진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은석 인

심사위원 정광중 인

심사위원 류현중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12월



목 차

국문 초록	v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방법	2
4. 선행 연구의 검토	8
II. 이론적 배경	11
1. 연대(煙臺)	11
2. 발현적 교육과정	17
III. 연대 탐구 경험	21
1. 배령연대: 얼떨결에 따라해 본 봉군이 멋지다	21
2. 애월·남두연대: ‘연대’에서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	39
3. 제주목관아: 연대가 이어져서 어디로 가는 걸까?	60
4.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옛날 제주 방어유적들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	80
5. 교실에서 지역으로: 연대 알기에서 실천으로	89
IV. 발현적 교육경험의 의미	110
1. 학생과 교사에게서 발현된 주제의 가치	110
2. 정체성의 재구성	116

3. 지속적 표현 활동이 주는 의의	121
4. 다원적·총체적 관점의 중요성	124
V. 결론	136
참고 문헌	139
ABSTRACT	143

표 목 차

<표 I-1> 연대 탐구 과정	5
<표 I-2> 제주목관아를 예시로 한 체험학습의 절차	6
<표 III-1> <힘들고 위험하다>류의 봉군 이미지	33
<표 III-2> <용감하고 멋지고 강하다>류의 봉군 이미지	34
<표 III-3> 연대 계단에 대한 모듈별 학생들의 생각 정리	50
<표 III-4> 해설사의 제주목관아 장소별 설명 장면과 내용	63
<표 III-5> 학생들의 <한라장축> 읽기 활동 결과	93
<표 IV-1> A그룹과 B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인구학적·학업적 배경	125
<표 IV-2> 두 그룹의 ‘비교하기’ 정리 결과	125
<표 IV-3> 두 그룹의 ‘공통점 찾기’ 정리 결과	126
<표 IV-4> 두 그룹의 ‘느낌 작성하기’ 정리 결과	127

[그림 III-21] 조부연대 사진 자료	53
[그림 III-22]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윗부분의 계단 모양	54
[그림 III-23] 배령연대 변형 복원에 대한 사진 및 설명 자료	56
[그림 III-24] 학생들의 일기 써 보기 활동 결과물	58
[그림 III-25] 지금의 관덕정과 『탐라순력도』 <공마봉진> 속의 관덕정 모습	64
[그림 III-26] 제주목관아에 전시된 고지도들과 이를 탐구하는 학생들	66
[그림 III-27] 고지도 속 연대와 봉수의 모습	67
[그림 III-28] 망경루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라봉 정상의 정자 모습	68
[그림 III-29] 제주목이 아래에 그려진 고지도를 처음 제시한 활동지	70
[그림 III-30] 활동지의 자료로 다시 사용된 <제주삼읍전도>	71
[그림 III-31] ‘탐라순력도 체험관’에 전시된 <한라장축>	71
[그림 III-32] 서울에서 내려다 본 제주	73
[그림 III-33] 제주목관아에서 제공하는 현장학습 교재	74
[그림 III-34] 제주목관아에서 지혜가 알게 된 점	75
[그림 III-35] 제주목관아에서 하준이가 알게 된 점	76
[그림 III-36] 3모듬 학생들의 <한라장축> 읽기 활동	91
[그림 III-37] 모듬별로 시청 누리집에 올릴 글 작성하기	97
[그림 III-38] 제주시청 누리집에 연대에 대한 의견 올리기	98
[그림 III-39] ‘애월연대 돌’이라는 준혁이의 시와 준혁이가 본 돌의 모습	100

[그림 III-40] 연대-올레 디자인 활동의 과정	102
[그림 III-41] 학생들이 만든 연대-올레 디자인	103
[그림 III-42] 수근연대의 문화재청 누리집 상의 주소와 실제 안내판 속의 주소	106
[그림 III-43] 수근연대의 문화재청 누리집 상의 수정된 주소	107
[그림 III-44] 지역화 자료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 ‘연대’ 관련 내용	108
[그림 IV-1] 주제를 중심에 둔 진리의 커뮤니티	112
[그림 IV-2] 3학년 생활을 생각그물로 나타내기 활동 결과	120

국 문 초 록

연대(煙臺) 탐구를 통한 발현적 교육 경험

강진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지도교수 류현중

사회과 학습에서 탐구 능력은 중요시되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주제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험학습이 실시되지만 일회적이고 교과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질문을 생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는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실질적 탐구를 통해 답을 찾아가며 자신의 탐구 과정을 성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의 ‘연대(煙臺)’와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로부터 발생된 질문을 바탕으로 실행된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현된 교육 경험을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체험학습은 ‘질문-탐구-반성-지식·정서의 형성’ 과정이 순환되면서 연속적으

로 실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 새로운 주제와 장소가 정해졌다. 체험학습은 배령연대, 애월연대, 남두연대, 제주목관아,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교실 활동으로 제주의 고지도 <한라장축> 읽기, 제주시청 누리집에 감사와 건의의 글 올리기, 연대-올레 디자인하기가 이루어졌다.

각 체험학습의 실행과 반성 과정에서 주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령연대 체험학습을 통해 기관 주도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관찰하고 질문하는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교사는 실질적인 탐구에 비추어 체험학습과 프로그램을 성찰해야 한다. 둘째,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학습을 통해 ‘관찰’은 발생적 질문을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탐구 요소이며, 관찰을 통한 객관적 사실의 이해는 옛날의 인물과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생적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질문이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제주목관아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과 교사로부터 생성된 주제와 질문은 장소에 대한 기존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연대’를 지속적으로 공부한 결과 연대에 대한 지식, 지역에 대한 애착심, 역사적 상상력, 자긍심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대’를 탐구하며 얻은 발현적 교육 경험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교사에게서 발현된 ‘주제’의 가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경험이 곧 탐구 주제로 발현되어 문제 해결의 동기가 된다. 또한 발현된 주제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탐구의 속성을 띤 활동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제는 탐구자가 특정 장소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장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발현적 교육 경험은 학생들의 장소정체성과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학생들은 제주도에 장소감이 없거나 생태의 장소로만 바라보았는데, 역사가 있는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결과, 학생들은 연대(煙臺)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애착을 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연대(煙臺) 탐구 경험으로 형성된 연대(煙臺), 친구, 선생님과의 연대(連帶) 경험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셋째, 지속적인 표현 활동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탐구 문제를 직접 정리하면서 다양하고 심화된 성찰을 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표현 결과물을 탐구하여 학생들에게 형성된 지식과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의 교육 활동 과정과 결과를 바라볼 때에는 다원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의 연대(煙臺) 학습에서 학생의 지역 출신 요소보다 가정 소득 수준과 학업성취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때, 학생들의 탐구 경험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읽어 확일적 목표로 재단을 하는 관행을 벗어나 학생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자의 실행 연구가 연대(煙臺) 학습과 발현적 교육과정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연대(煙臺), 발현적 교육 경험, 발생적 질문, 탐구, 체험학습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사회과의 수업에서 중요시 되어 온 능력이다. 이에 학생들이 자연 및 인문 현상, 역사적 사실 및 주장,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등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 해석하고 반성해보는 주체적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탐구 주제를 정해보라 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하곤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는 탐구는 상투적인 주제가 되풀이되고 자료가 제한되어 그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제, 자료, 경험을 활용하여 탐구를 촉진하고자 체험학습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안과 밖이라는 장소의 바뀔만 있을 뿐 탐구 학습이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체험학습은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안내자의 설명 듣기, 만드는 방법 익히기 등으로 교과서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체험 후 교사의 평가도 정해진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을 띤다. 활동지는 알게 된 내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이 있더라도 일회성의 체험학습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해결해보지 못한다.

학생과 교사는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실질적 탐구를 통해 답을 찾으며 자신의 탐구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 바로 발현적 교육 경험(emergent educational experience)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주제에 대한 발생적 질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탐구 과정으로 발현되는 경험을 통해 자발적 의지, 사회과학적 방법, 심오한 즐거움으로 드러나게 된다.¹⁾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학생들과 함께 실시한 제주의 연대(煙臺) 체험학습에 나타난 발현적 교육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있다. 여러 번에 걸쳐 이

1) 본 연구자는 emergent를 ‘발현적’으로, emerging을 ‘발생적’으로 번역하였다. ‘발현’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발현적 교육 경험’에, ‘발생’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난다는 의미에서 ‘발생적 질문’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루어진 본 체험학습은 주제와 장소가 탐구 과정 속에서 정해졌으며, 교사와 학생의 ‘질문 - 탐구 - 반성-지식·정서의 형성’이라는 순환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생들과 함께 실시하였던 체험학습에서 어떻게 발생적 질문을 해결해 갔으며 어떤 탐구 경험을 했는지를 기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발현적 교육 경험이 앞으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운영하는 연대(煙臺) 학습과 발현적 교육과정을 궁리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을 바탕으로 연대(煙臺)와 발현적 교육과정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둘째, 연대(煙臺) 탐구 과정 속에서 드러난 발현적 교육 경험을 기술하고 성찰하였다.

셋째, 연대(煙臺) 탐구에서 나타난 발현적 교육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3. 연구의 방법

가. 연구 참여 학생의 이해

1) 학군의 특성

최근 제주의 인구 증가 및 부동산 가격 급상승 현상에는 제주로의 이주 열풍이 작용하고 있다.²⁾ 이러한 제주로의 이주 열풍은 본 연구가 실행되었던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가 근무한 학교의 행정구역은 제주시 애월읍으로 제주도 읍지역에서는 인구수가 가장 많으며 제주시내의 공항, 대형 마트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로 인해 제주의 자연, 경쟁 없는 교육에 대한 로망, 건설 붐 등으로 유입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곳이다. 학생 수는 2013년 83명, 2014년 103명, 체험학습을 실시했던 2015년에는 137명이었다. 2016년 3월에는 153명으

2) 지역신문인 <제주일보>의 ‘빠르게 변하는 제주사회조사 지표(2015.12.16)’, ‘제주경제 내년도 5.1% 고성장 전망(2015.12.29)’, ‘가파른 인구 증가 대책도 서둘러야(2016. 2. 2)’, ‘서귀포시 지역 인구 증가세 지속(2016. 7.11)’ 등의 보도만 보더라도 제주의 인구 증가, 부동산 가격 급상 등 제주로의 이주 열풍 현상을 알 수 있다.

로 매년 한 학급 규모로 늘고 있다. 이주 가정은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되나, 정주민 가정과 이주 중도 출생 가정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들이 있다.³⁾ 또한 학교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새로 이주해 온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2) 학급 학생 현황

연대 탐구에 관한 실험연구는 2015년 제주시 애월읍 J초등학교 3학년 학생 28명(1학기 24명, 2학기 28명)과 진행하였다. 유독 학생 수가 다른 학년보다 많은 학년이었으며 2016년 3월에는 33명이 되어 2개 반으로 분반되었다. 28명 중 정주민 가정 학생이 10명(36%), 이주 중도 출생 가정 학생이 5명(18%), 이주 가정 학생은 13명(46%)이었다. 이주 가정은 경기, 서울, 강원, 울산, 인천 등 그 출신지가 다양하였으며 학부모가 제주와 아무런 연고 없이 학생이 어릴 적부터 3학년 사이에 제주로 이주하였다. 정주민 가정과 이주 중도 출생 가정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6명이 있었으며, 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최하위권 5명도 포함되었다.

나. 연구 과정 및 절차

본 연구는 성찰적 실험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실시되었는데, 총 4회의 현장체험학습과 이와 관련한 교실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의 연대(煙臺)를 다루게 된 것은 사회 교과서, 지역화 자료, 체험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사회 교과서 『사회 3-1』의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단원에는 ‘봉수’가, 지역화 자료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에는 ‘연대’가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외부 기관 주도의 <제주섬 방어유적 생생 체험 봉수씨 연대기>(이하 <봉수씨 연대기>) 프로그램에서 연대를 체험할 수 있었다. 배령연대를 배경으로 ‘봉군’의 역할을 체험하는 시나리오성 체험학습에 참여한 직후, 본

3) 제주로의 이주 열풍은 학급 내 학생들의 출신 지역요소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신 지역도 영향을 미쳐 다음의 세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정주민 가정’은 부모가 모두 제주에서 태어나고 학생도 제주에서 태어나 자란 경우이다. ‘이주 중도 출생 가정’은 부모가 모두 제주 출생은 아니지만 학생이 제주에서 출생하여 자란 경우이다. ‘이주 가정’은 부모와 학생 모두 제주 외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제주로 이주한 경우이다.

연구자는 교육과정 지역화를 실천했다는 생각과 학생들이 연대와 봉군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하지만 이 연대 체험학습에서 놓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연대의 모습과 봉군들에 대해 탐구하지 않은 채 흉내만 내었던 것이다. 연극 처럼 잘 짜여진 대본대로 활동하다 보니 학생들은 ‘봉군들은 멋지다’라는 단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봉군의 다른 이미지 생각해보기’를 목적으로 연대와 봉군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군인 애월읍에 위치한 ‘애월 연대’와 ‘남두연대’를 소재로 이전 체험학습에서 놓쳤던 ‘관찰’ 활동에 초점을 두어 ‘연대’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체험 활동에서 볼 수 없었던 질문과 관찰 결과들이 쏟아졌다. 여기서 발생한 의문점들은 학생과 교사가 기꺼이 해결하고자 하는 탐구 주제로 바뀌었다.

다음 체험 장소는 제주목관아였다. 연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연대와 봉수를 통한 통신 신호가 이어져 어디로 갈까?’가 궁금했던 것이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망경루에 올라 사라봉 정상을 확인하고 느낌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은 이미 연대를 알고 있었기에 고지도 읽기, 제주목사의 역할 이해하기, 탐라순력도 읽기까지 해냈다. 교사와 학생 모두 탐구의 즐거움에 빠져들었고 ‘제주도를 빙 둘러 이어졌던 옛날의 연대와 봉수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을 다음 체험학습 장소로 선택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모습의 연대, 관리되고 있지 않는 연대, 연대 이외에 제주에 존재하는 방어유적 등의 사진들을 읽어냈다.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제주의 방어유적을 잘 보존하기 위해 이를 잘 알고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제주의 올레’라는 브랜드를 이용하여 방어유적을 홍보하는 전략을 짰는데, 올레 기념품 손수건 안에 올레길에서 만나게 되는 제주의 연대를 넣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1> 연대 탐구 과정

일자	장소	체험학습과 교실활동의 주요 내용	발생적 질문
2015. 5. 27	배령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방어유적 ‘연대’ 체험하기⁴⁾ - <봉수씨 연대기> 프로그램 참가 - 봉군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연대에 불 올리기 	⇒ 봉군은 정말 멋질까?
2015. 11. 5	애월연대 남두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를 관찰하고 봉군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만들기 - 애월읍에 위치한 애월연대, 남두연대 관찰하고 안내판 읽기 	⇒ 연대가 이어져서 어디로 가는 걸까?
2015. 11. 20	제주목 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 봉수 신호가 이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기 - 제주목 알기, 제주 고지도의 공통점 알아내기, 망경루에 올라 사라봉(수) 정상 확인하기, 관덕정 관찰하기 등 	⇒ 옛날의 연대와 봉수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될까?
2015. 12. 1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과 오늘날의 제주지도 읽기 -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제주의 고지도 읽기 	
2015. 11. 6 ~12. 1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하여 방어유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 알리기 - 제주시청 누리집 활용하기 - 연대에 대한 감사, 건의의 글 작성하기 	
2015. 12. 4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와 봉수의 지금 모습 살펴보기 -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에 전시된 사진 읽기 	
2015. 12. 4 ~12. 22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지역 방어유적 알리기 - 연대를 이용하여 ‘제주의 올레’ 기념품 디자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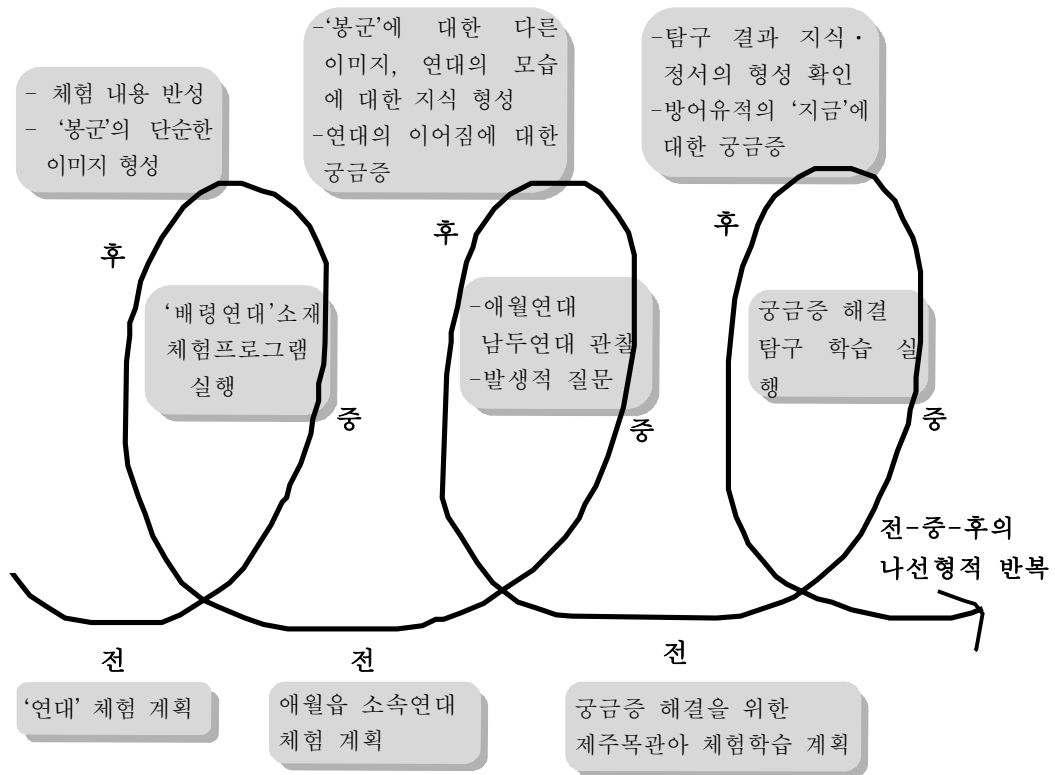
4) 사회 교과서와 지역화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은 봉수와 연대를 ‘통신 수단’으로 배웠지만 체험 프로그램은 이를 ‘방어 수단’의 틀로 바라보았다. 학생들의 체험은 이러한 틀로 인하여 연대를 오늘날에 남아있는 통신유적이기보다 방어유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각 체험학습은 계획, 실행, 반성의 절차를 거쳤다. 제주목관아 체험학습을 예시로 한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표 I-2>와 같다.

<표 I-2> 제주목관아를 예시로 한 체험학습의 절차

절차	주요 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궁금증에 대한 지속적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봉수 신호가 이어지면 어디로 가는 걸까? - 학생들이 ‘제주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목관아 1차 사전답사(2015.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궁금증을 해결할 사항 파악(해설사와 면담), 제주목관아에서 탐구할 거리 살펴보기 ▪ 제주목관아 2차 사전답사(2015.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별 활동 구안, 전시물 더 살펴보기, 체험 장소의 활동지 입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구 모임 참가(2015.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와 관련한 정보 및 관심거리 공유, 다음 체험 장소의 활동에 대한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을 위한 결재,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버스 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목관아 체험 날짜 예약, 기관과 활동 내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 실시(2015. 1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사와 함께 제주목에 대한 전반적 이해, 옛날의 관덕정과 오늘날의 관덕정 관찰·비교, 탐라순력도 관찰, 제주의 고지도 특징 정리, 망경루에 올라 사라봉 정상 확인한 느낌 작성 등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서 체험학습 내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피드백,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리 및 지속적인 연대에 대한 관심 자극, 활동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구 모임 참가(2015.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내용 공유, 낯선 지역사·학생들의 정체성·지속적인 주제 탐구 학습의 의미·교사로서의 주체성 등 다양한 의견 나누기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체험과 관련한 심화 교육 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고지도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읽기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연대에 대한 궁금증,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지속적 관심 ▪ ‘오늘날 연대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라는 궁금증 확인

위의 절차를 따른 체험학습들은 [그림 I-1]처럼 ‘질문 - 탐구 - 반성-지식·정서의 형성’이라는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이 연구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림 I-1] 실행연구의 절차

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체험학습을 계획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해설사와 면담하였으며 관련 논문 및 간행물 자료를 수집하였다. 체험학습 과정에서의 교사의 노트, 체험 중 학생들의 활동지, 체험 후 학생 활동 소감문, 체험 장면 촬영 사진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교사에게 통찰을 주는

물음을 바탕으로 각 체험학습에서 유사하거나 특이하게 나타나는 반응을 묶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때, 연구자가 대학원을 통하여 참여한 교육 연구 모임은 본 연구의 실행 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체험학습마다의 의미 분석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 분석의 과정에서 ‘발현적 교육과정’, ‘주제’, ‘정체성’ 등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논문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해석하였다.

4. 선행 연구의 검토

가. 제주 방어유적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

본 연구를 위해 제주의 통신유적인 봉수와 연대 학습에 대한 연구 결과물과 육지부의 봉수 학습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봉수, 연대 자체에 대한 학술 조사와 같은 연구물들은 있었지만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으로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제주의 방어유적에 대한 학습 활동 선행 연구가 있어 이를 살펴보았다.

장재훈(2004)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제주 읍성 지도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현장학습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현장체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여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적용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구안된 활동지는 제주 3읍성과 9진성에 대한 문헌적 내용의 제시에 머물고 있으며 각 활동지의 탐구 문제 또한 ‘1. 현재 ○○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성의 자취를 따라가 봅시다.’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은미(2012)는 『탐라순력도』 내에 있는 군사시설 및 방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목관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실물체험학습을 구상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활동 학습으로 ‘탐라순력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이것 또한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의 연구들과 성격은 다르지만, 이정환(2012)은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박물관, 공원, 시내 관광지 등에서의 초등사회과 현장체험학습의 실질적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실행한 6차시에 걸친 체험학습을

주제탐구 체험학습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살펴보면 탐구 보고서라기보다 조사 보고서에 가까워 본 연구자가 실행한 탐구를 위한 체험학습과 다소 상이하다.

이 외에 지역의 문화재와 자연물에 대한 현장학습 방안을 구안한 연구물은 많으나 초등사회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사례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현장체험학습에서 관람 또는 프로그램 참여 후의 소감문 작성하기나 조사 내용 정리하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탐구를 촉진하는 체험학습의 실행 모습에 관한 연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의 연대(煙臺)를 실질적으로 탐구했던 체험학습에 대한 실행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발현적 교육과정

본 연구가 학생들과 교사에 의해 발생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얻어진 교육 경험의 과정과 결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는 ‘발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의 주제, 교사의 역할, 활동의 심화적 연계 부분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유승희(2004)는 주제의 측면에서 초등학교에서 무엇이 좋은 주제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20명의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접근법을 수행하였을 때 ① 놀이 ② 가시적인 준비물 ③ 교실 환경구성 ④ 이벤트성 상황 ⑤ 교사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주제 ⑥ 학습자 주변에서 관심 있는 것을 찾아보고 다수 의견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주제가 발현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탐구 주제라는 것은 ‘심층적으로 계속 탐색해 나갈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지적 갈등으로 인한 내적 동기 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학습자 간 서로 돕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교사도 도전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사의 역할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정리한 경우이다. 박영숙(2010)은 ① 학습동반자로서 학습자들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반성적으

로 사고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고 격려하기 ② 반성적 실천가로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전 활동을 다시 상기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기 ③ 기록 작업자로서 학습자를 단순히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기 ④ 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사 간 협력하기라는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네 가지의 교사 모습을 염두에 두고 실행연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발현적 교육 경험 안에서 이러한 교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일치됨을 볼 수 있다.

셋째, 활동의 심화 연계적 측면에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행연구를 통해 활동 심화를 위한 교수 전략을 제시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조길자(2004)는 ① 교사가 아동에게 실험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인지적 갈등을 일으킬 질문을 할 때 ② 아동이 자신의 활동물을 다시 살펴보는 재방문 활동을 하게 할 때 ③ 교사들이 아동들의 토의 내용이나 결과물을 분석하였을 때 교수·학습 활동이 심화될 수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탐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세 가지 측면의 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발현적 교육 경험 기술에서 ‘주제’가 교사의 역할에 의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현되고 학습자들의 탐구를 촉진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지 주목해볼 수 있다.

발현적 교육과정에 관한 실행연구들에는 유치원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은 있었으나 초등학교에서의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다. 초등학교에서도 더 많은 발현적 교육과정의 사례가 풍성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발현적 교육 경험의 가능성과 한계들에 대한 논의가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연대(煙臺)

가. 제주의 봉수와 연대

봉수와 연대는 적의 침입과 같은 위급함의 정도를 햇불의 수로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군사 정보를 담고 있는 통신 수단이면서 방어 수단이었다. 봉수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있었던 것으로 제주의 봉수도 육지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존재했다. 하지만 연대는 제주의 해안가에만 존재하였던 특별한 통신 수단이었다. 고려말 충숙왕 3년(1316)부터 조선 명종 11년(1556)까지 240여 년간 30여 회 이상 왜구가 제주도에 침범하고 18세기 후반에는 제주에 서양인들의 함대도 자주 출몰하여 제주의 방어체계를 정비해나가는 과정에서 18세기 즈음에 연대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이영권, 2005; 제주도, 2002).

조선왕조의 봉수제는 세종 29년(1447)경에 확립되고 『경국대전』상의 규정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평시에는 봉화를 1거(擧), 적의 모습이 나타나면 2거,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3거, 국경을 넘어서면 4거, 접전을 하면 5거를 올렸다. 그러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봉졸(봉군, 봉수군)들이 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하였다(제주시, 2012: 23). 그런데 바람이 세고, 비 오는 날이 많은 제주도의 날씨를 생각해본다면 실제 1거, 2거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햇불과 연기로 연락을 취한 것보다 직접 가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주도에 존재하는 봉수와 연대의 수에 대한 기록은 시대별로 달랐다. 제주도 봉수에 대한 기록은 15세기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22개소,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23개소, 17세기 『탐라지(耽羅志)』(1653)에는 25개소, 18세기의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1760-70년대 추정)에는 24개소, 19세기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1842)과 『제주읍지(濟州邑誌)』(1899)에는 25개소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대에 대한 기록은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이 가장 이른 것으로 연대 37개소가 설치되어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는 29개소, 『제주읍지(濟州邑誌)』에는

38개소로 기록되어 있다(김명철, 2000: 79). 즉, 통상 이야기하는 제주도의 봉수 25곳, 연대 38곳은 『제주읍지(濟州邑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도내의 봉수는 대부분 해안가 오름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는 멀리서 적선이 바다를 지나는 것을 살피고, 연변의 급한 보고를 경봉수(京烽燧)에 전하는 내지 봉수(內地 烽燧)의 기능을 담당했다. 즉 해안 연변에 있는 연변 봉수(沿邊 烽燧)에서 전달된 급한 보고를 서로 응하는 봉수에 연락하면서 끝으로 사라봉수에 도달케 하고 있다.⁵⁾ 따라서 제주도에서 사라봉수가 경봉수의 기능을 담당하여 각 봉수에서 전달된 급한 보고를 제주목에 전하였다(김명철, 2000: 59).

제주 도내의 연대는 대부분 해안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는 가까이서 적국의 배가 어떤 곳에 와서 정박하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동시에 해안 변경인 최전방에 위치한 연변 봉수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연변 봉수는 봉수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적이 침략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응전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 기능과 요새 기능을 같이 하여 방어 시설을 강화하였다. 곧 연대는 단순한 통신 기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체 방어와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제공 기능을 함께 수행했다(제주시, 2012: 23).

육지부의 연변 봉수의 이름 중에 연대(예, 진도 금갑리연대, 여수 북봉연대)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 연대들은 제주의 연대와 달리 바다로부터 몇 km가 떨어져 있다거나, 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의 연대는 바다와 매우 가까운데, 해안과의 거리가 100m 미만은 21개소, 100~200m미만은 5개소, 200m 이상은 10개소이며 위치 확인이 곤란한 죽도연대와 마두연대는 제외했다(김명철, 2000: 79-80). 제주의 경우 봉수와 연대는 구분되는 시설이지만 육지의 경우 연대는 봉수의 일부분을 일컫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육지부의 봉수가 축조 시 아랫부분 석축인 연대로 명칭 되어도 제주의 연대와 같은 것이라기보다 봉수로서 생각해야 한다.

5) 조선 시대 봉수는 위치에 따라 경봉수(京烽燧), 연변 봉수(沿邊 烽燧), 내지 봉수(內地 烽燧)로 나뉜다. 경봉수는 서울 목멱산 봉수를 말하고, 국경이나 해안 근처에 위치한 것을 연변 봉수, 연변 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 봉수를 내지 봉수라 하였다(네이버검색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제천문화대전-봉수). 제주도에서는 사라봉수가 경봉수의 역할을 하였으며, 오름마다 설치된 봉수가 내지 봉수, 해안가에 있는 연대가 연변 봉수이다.

제주도내 봉수의 축조 방식은 흙으로 쌓거나 흙과 돌을 혼용하였다. 왜냐하면 봉수가 오름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축조할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었고 최전방의 연대가 자체방어를 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는 기능만을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대의 축조 방식은 모두 돌로 쌓은 것이다. 그 이유는 연대가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살피며 경계와 주변 정찰, 자체 방어 등 군사 요새지로서의 역할도 겸하였기 때문이다(김명철, 2000: 80-81).

봉수와 연대 주변의 100보 거리 안에서는 일체 불을 피울 수 없었다. 햇갈리게 만드는 연기가 올라오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당의 곳이나 통속적인 잡신제도 금지되었다고 한다. 즉 민가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에 봉수와 연대가 위치했던 것이다(이영권, 2005: 151-152). 따라서 오늘날 ‘배령연대’처럼 바로 곁에 민가가 있더라도 과거부터 그렇게 있었을 거라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봉수들 중에서 그 원형을 온전히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전무한 상태이며,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도 하나도 없다. 이에 반해 연대는 1973년, 1976년, 1996년에 걸쳐 총 23개의 연대가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⁶⁾ 비교적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만 연대에 있어야 하는 연소실, 방호벽 등이 남아있지 않으며 변형 복원된 경우들도 있다. 우지연대는 복원되면서 원래 연대에는 없는 1m 남짓한 기단이 만들어졌으며⁷⁾, 배령연대는 복원되면서 원형에서 방형으로 복원된 사례 등이 있다.

봉수와 연대는 전기통신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통신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제주목관아 옆 제주우체국 앞에 전기통신 최초 도입터 표석⁸⁾을 통해, 그 시기가 1900년대 이후부터임을 짐작할 수 있다.

6) 말등포연대(제주도 기념물 제23-1호), 협자연대(제23-2호), 천미연대(제23-3호), 소마로연대(제23-4호), 조천연대(제23-5호), 우지연대(제23-6호), 남두연대(제23-7호), 수근연대(제23-8호), 별도연대(제23-9호), 연동연대(제23-10호), 당포연대(제23-11호), 대포연대(제23-12호), 왜포연대(제23-13호), 함덕연대(제23-14호), 좌가연대(제23-15호), 종달연대(제23-16호), 애월연대(제23-17호), 귀덕연대(제23-18호), 배령연대(제23-19호), 두모연대(제23-20호), 산방연대(제23-21호), 서림연대(제23-22호), 오소포연대(제23-23호)가 지정되어 있다. 이 중 1, 2호는 1973년 4월 3일에, 3~7호는 1976년 9월 9일에, 8~23호는 1996년 7월 18일에 지정되었다(제주도, 1998: 312-326).

7) 고영철의 역사교실. (n.d.). ‘우지연대’. http://jejuhistory.co.kr(2015. 11. 5)

8) 이곳은 1902년 제주우체사가 설치되어 제주지역에서 최초로 전신전화업무가 시작된 곳으로서 후세에 전기통신의 역사적 사실을 길이 전하기 위해 여기에 표시석을 세운다.

제주의 봉수와 유적은 보통 방어유적이라는 틀로 바라보는 관점이 많다 (김명철, 2000; 김종석, 1998; 제주도, 2002; 제주시, 2012). 그러나 평시의 상태에도 1거(擧)의 기호화된 약속을 통해 서로의 안전과 평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봉수’와 ‘연대’를 통신시설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나. 주요 연대와 봉수

본 연구에서는 배령연대, 애월연대, 남두연대에서 체험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제주목관아 체험학습에서 사라봉수가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 연대와 봉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령연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603번지에 위치하고 제주도 기념물 제 23-19호(1996년 7월 18일 지정)로 변형 복원되었다. 제주시(2012: 257)의 신석하 자문위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복원된 연대는 대부분 기초조사 혹은 발굴조사 없이 방형 혹은 원형으로 복원한 사례가 많다. 특히 배령연대는 원형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방형으로 복원된 것으로 추정되고...”라고 쓰여 있어 변형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령연대는 옹포리에서 협재리까지 일직선으로 오다가 금능리에서 밖으로 돌출되는 곳에 이 지역 민가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배령연대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만조봉수(상응봉수)는 잘 보인다. 하지만 서쪽의 대포연대(상응연대)는 콘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⁹⁾ 직선거리로 만조봉수와는 4.3km, 대포연대와는 4.4km이다.

복원 전 배령연대의 평면 형태는 다른 연대와 달리 원형의 평면을 하고 있다. 방형으로 된 지대석(地臺石)이 보이지 않고 연대를 축조한 돌의 크기가 대체로 작은 것으로 보아 평면이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조 방법은 잡석쌓기이며([그림 III-23]의 복원 전 모습 참고) 크기로는 하부직경 4.9m, 상부

9) 제주도의 봉수와 연대는 서로 상응하며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옛 문헌에 응(應)한다고 기록된다. 배령연대의 경우,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1765-1766)에는 ‘東應晚浦’라 하여 동쪽으로 만조봉수에 응했다. 『제주읍지(濟州邑志)』에는 ‘東應馬頭 西應大浦’라 하여 동쪽으로 마두연대, 서쪽으로 대포연대에 응했다(제주시, 2012: 132-133).

직경 1.6m, 높이 1.9m로 연대의 높이가 낮다. 연대 위에는 불을 피웠던 곳으로 보이는 흙으로 된 화덕자리가 있으며 그 둘레는 5m정도가 된다(제주도, 1996: 제주시, 2012: 132).

그러나 방형으로 복원되었으며 복원 규모는 장축 7.84m, 단축 6.69m, 높이 3.76m이다. 배령연대는 명월진에 소속된 연대이다. 배령연대는 명월진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3.91km)에 있다. 배령연대는 동쪽으로 만조봉수, 서쪽으로 대포연대와 교신하였다. 배령연대는 『남사일록』¹⁰⁾과 『탐라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숙종 4년(1678)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제주시, 2012: 132).

2) 애월연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70-2번지에 위치하며¹¹⁾, 제주도 기념물 제 23-17호(1996년 7월 18일 지정)로 복원된 상태이나 벽면이 불룩 나와 있어 재복원이 필요하다. 재복원에 대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나 벽면이 불룩하게 휘어 붕괴의 위험이 있어 시급하다.¹²⁾ 애월진이 있었던 애월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600m 정도에 떨어진 ‘연대왓’에 애월연대가 있다.¹³⁾ 애월연대에서 고내봉수(상응봉수)는 잘 보이나 귀덕연대(상응연대)는 거의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 직선 거리로 고내봉수와 2.7km, 귀덕연대와 3.2km이다. 애월연대는 대지가 경사져 있어서 높이 1.2m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상부 8.3×8.2m, 하부 9.3×9.4m, 높이 4.8m인 사다리꼴이다. 난간벽의 폭은 1.1m, 높이는 0.7m이고, 입구의 폭은 1.4m이다. 다른 연대와 비교하면 연대의 높이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입구 또한 중앙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애월연대는 『남사일록』¹⁴⁾과 『탐라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숙종 4년(1678)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제주시, 2012: 105).

10) 庚甲 二月 二十四日 排齡浦烟臺

11) 애월연대의 주소는 1970-2번지(2015년 애월연대 안내판; 문화재청누리집) 또는 1975-2번지(제주도, 1998: 321; 제주시, 2012: 10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누리집)으로 제시된다.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둘 다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연구자가 직접 다녀온 결과 골목에서 조금 들어가야 하므로 1970-2번지가 좀 더 애월연대의 위치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12) 본 논문 III장 5절에 제시된 제주시청 답글에서도 나타난다.

13) ‘왓’은 ‘밭’의 제주어이다. 연대가 있는 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애월읍 애월리에 위치한 애월연대도 ‘연대왓’에 있지만, 서귀포시 하예동의 당포연대도 ‘연대왓’에 있다.

14) 庚申 二月 二十五日 涯月浦烟西邊臺

3) 남두연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80-1번지에 위치하고 제주도 기념물 제 23-7호(1976년 9월 9일 지정)로 복원된 상태이다. 해안도로가 시작되는 구엄리에서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2km 정도를 가면 ‘남뜨르’라 불리는 동산 위에 연대가 있다. 해안과는 4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주위보다 지형이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다. 직선거리로 수산봉수(상응봉수)와 2.5km, 고내봉수(상응봉수)와는 2.7km이다. 남두연대는 1977년 고증을 거쳐 개축되었다. 남두연대는 애월진에 소속된 연대이다. 애월진으로부터 동쪽으로 11리(6.15km)에 있다. 곧 남두연대는 제주읍성으로부터 서쪽으로 37리(20.68km)에 있다. 남두연대는 『남사일록』¹⁵⁾과 『탐라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숙종 4년(1678)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제주시, 2012: 98).

4) 사라봉수

제주시 건입동 387-1번지에 위치하고 원형대로 복원되지 않았다. 사라봉 정상에 있는 망양정의 북쪽에 있었던 봉수로, 사라봉은 구제주시권의 동쪽 해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발높이가 184m이다. 서사면에 비해 다소 완만한 동사면의 정상부에 봉수가 복원되어 있다. 직선거리로 원당봉수와는 5.1km, 도원봉수와는 7.2km이다. 사라봉수의 형태 확인은 불가하다. 조선시대 때 통신 수단으로 사용했던 봉수를 1989년에 해체 보수하여 돌로 쌓은 연대 형태로 복원하였다. 복원 규모는 장축 9.25m, 단축 7.42m, 높이 3.4m의 장방형 석축으로 복원하였다. 대다수 제주지역에는 오름에 있는 봉수대들이 거의 흠을 쌓아 만든 원형 봉수대였다. 따라서 봉수대에 있어야 할 내호(토축)와 외호(토축)는 정밀조사 없이 석축으로 복원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라봉수는 제주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2.8km)에 있는 사라봉에 있다. 동쪽으로 원당봉수와 서쪽으로 도원봉수에 응하였다. 또한 동쪽으로 별도연대와 서쪽으로 수근연대에 응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제주목에 ‘사라오름봉수’라는 기록으로 보아 성종 12년(1481) 이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제주시, 2012: 155).

15) 庚申 二月 二十六日 南頭浦東邊烟臺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 III장에 등장하는 연대와 봉수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체험학습 과정에서 언급되는 제주의 연대와 봉수의 관리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다.

2.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이란 사전에 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잠정적인 교육내용만 예측하여 설정하되, 학습활동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학습주제를 자연스럽게 발현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유승희, 2004: 169). ‘발현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속의 두 단어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발현적’이라는 용어는, 계획하기가 학습자와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특히 학습자 자신의 흥미에서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학습자가 놀이하고 배우는 곳에서는 항상 자발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반면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에서는 교사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즉 교육과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용어이다(Jones & John, 2015: 10).¹⁶⁾ 학습자의 발현은 교사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Reggio Emilia Approach)의 이해는 발현적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발현’이 이 교육과정과 학습의 주요 특성이기 때문이다(오종숙, 2003: 90).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하 레지오 접근법)은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시가 운영하는 34개의 유아 학교와 영유아센터에서 0~6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사, 부모, 지역사회, 지역행정이 서로 잘 연계되어 질 높은 복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교육방식이다. 레지오 접근법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발현적 교육과정의 운영, 표상을 활용하는 다상징적 교수법,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 기록화의 교육적 활용, 프로젝트에 부모의 공동 참여, 지역사회 중심의

16) 발현적 교육과정과 관련한 서적 및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대한 연구물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유아’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런데 연구물들의 내용상 유아는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학습자로서 위치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유아’라는 말 대신 ‘학습자’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운영, 학습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 전문적 교사 현직교육 등 새로운 교육 방법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며 현장에 적용해왔다. 교사들이 미리 처방된 교육과정과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작업이 전개된 것을 근거로 차후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을 ‘프로제따찌오네(progettazione)’라고 하며 ‘발현적이며 상호조정적인(emergent and negotiated)’ 교육과정으로 해석되고 번역되기도 한다(박영숙, 2010: 46). 레지오 접근법의 활동은 학습자들의 욕구, 흥미, 인지적 갈등은 물론이고 교사의 심화 전략으로 일으킨 흥미도 모두 포함하여 진행된다.

발현적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질문들은 간단한 형식으로 답할 수 없다. 발현적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말하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형식을 빌려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발현적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에는 정해진 방법과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들의 흥미와 환경, 교사의 성찰과 판단, 미묘한 분위기 등이 복잡하게 얽혀 활동이 흘러간다. 그 모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는 형태이다. 발현이란 ‘드러남’, ‘나타남’, ‘생겨남’, ‘보여줌’이다.

발현적 교육과정에서는 주제, 학습자, 배움, 교사가 발현된다. 첫째, ‘주제’의 발현이다. 주제는 교사가 선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연한 사건 경험, 학습자의 인지적 갈등, 기존 교육과정의 통합, 체험 활동을 통한 호기심, 프로젝트 활동에서 주제로 발현된다(조길자, 2004: 217-228). 교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뻔한 학습자들의 말과 경험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주제를 생성하도록 돕는다. 이 때 이 주제는 “위대한 사물의 은총”(Palmer, 2016: 201)이다. ‘위대한 사물’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게 한다. 주제가 관심의 중심에 놓이면 인간에게 부여되는 존경과 권위가 그 주제에 부여되어 진리를 보고자 하는 인식과 가르치기와 배움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물에 모여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열정과 질서 속에서 관찰하고 반성하고 발언하고 경청하는 최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Palmer, 2016: 176-211).

둘째, 학습자 자신의 발현이다. 학습자 스스로가 배움을 통해, 그리고 배움의 결과 “자신이 되어지는 과정”(오종숙, 2003: 102)으로 발현된다. 레지오 접근법

에서는 학습자들을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협상하는 데 흥미와 잠재력과 호기심이 있으며,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학습자는 자신의 주변을 해석할 능력이 있고 자신의 주변에 대해 설명하고 이론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학습에 있어서 각자만의 학습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방법도 다르고 주변과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다. 즉 학습자들의 주체성과 개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2~4명이 참여하는 소집단 활동을 필수조건으로 여긴다. 학습자들은 협력적인 작업을 통해서 인지적 갈등을 경험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수행할 때 성취감을 느끼고 지적으로 성장한다(조길자, 2004: 211-212). 이와 같은 배움의 능력이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발휘된다. 또한 배움을 통해 한 개인이 주변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셋째, 배움의 발현이다. 발현의 힘을 믿는 교육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겪으며 교사와 동료의 도움으로 자신이 만나고 있는 주제를 조금씩 이해해 나간다. 이 때 주제는 주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탐구할 수 있다. 자신이 관심을 갖고 탐구하기 전에는 학습자의 외부에 존재했던 사물이 배움이 일어난 이후에는 학습자 자신에게서 그 사물이 생겨난다. 비로소 그 사회적 산물이 학습자 자신에게 의미를 갖게 된다. 하나의 사물에 대한 의미가 생겨났다고 해서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다른 의미가 생겨날 수도 있고, 의미가 상충되어 다시 조정을 겪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물에 호기심이 생겨 이전과 다른 갈등과 협상을 또 다시 겪는다. 이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배움이 순환하고 뻗어갈 때 배움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넷째, 교사의 발현이다. 교사가 미리 계획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몰두해 있을 때 학습자 내부로부터 배움이 뻗어 나오는 것을 누르기 쉽다. 그러나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다음의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 첫 번째, 학습동반자로서 학습자들의 흥미, 열정, 지식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탐구를 발전시킨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고, 탐구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여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탐구를 격려한다. 두

번째, 반성적 실천가가 된다. 교사는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배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도 활용한다. 세 번째, 기록 작업자로서 학습자의 생각, 경험, 감정을 기록하고,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발현시키고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준다. 네 번째, 학습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사 간 학습 공동체를 통한 협력이 강조된다. 교사 간 공동의 실천에 대해 반성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문제해결을 공유하는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탐구활동이 지속되고 그 과정의 의미를 도출한다(박영숙, 2010: 51-58).

이상으로 발현적 교육과정은 ‘주제’를 매개로 ‘학습자’, ‘교사’, ‘배움’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준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놓치지 않고 이것들의 의미를 살리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규정과 지침들은 교실 활동 속에서의 의미 있는 말, 생각, 행동, 감정들을 흘려보내도록 종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발현적 교육과정이 시행될 수 있는 비전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연대 탐구 경험

1. 배령연대

: 열떨결에 따라해 본 봉군이 멋지다

가. 체험학습 계획하기

현장학습 과정이 안전 등의 이유로 까다로워져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그래도 체험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¹⁷⁾ 연대를 주제로 한 첫 체험학습은 지금까지 내가 해 오던 방식대로 준비하였다. 교과서에서 관련 요소를 분석하고 적합한 지역의 현장체험 장소가 있는지 찾거나 학교로 발송된 공문 중에 특별한 체험활동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대개 체험학습은 해당 장소에서 제공하는 전시를 학생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교사가 어느 정도의 선을 제시해주고 탐구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사회과 교육과정의 3학년 1학기 내용 및 지역화 자료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의 내용을 훑어보았다. 배령연대 체험과 관련된 단원명과 주제명, 주제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사회 3-1』,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 1주제: 생활 속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 → • 2주제: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 • 3주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 → • 4주제: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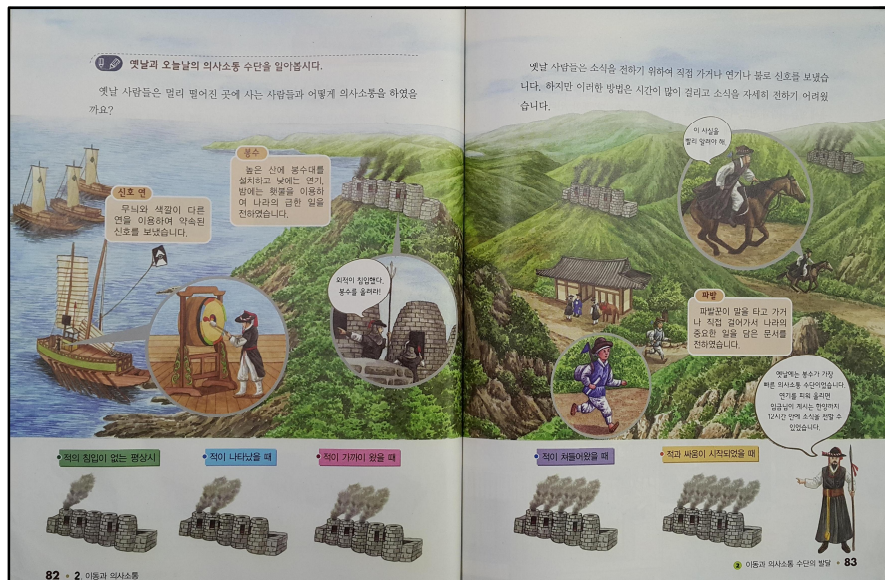
2주제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주제의 목표

- 옛날과 오늘날의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
- 옛날과 오늘날의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옛날과 오늘날의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을 조사할 수 있다.

17) Ⅲ장 ‘연대 탐구 경험’의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연구자라는 용어 대신 ‘나’ 또는 ‘교사’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당시 계획과 실행, 반성의 과정에서 교사로서 가졌던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교과서 『사회 3-1』, 2단원의 2주제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중에서도 특히 82~83쪽을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의사소통 수단들이 삽화로 그려져 있다. 봉수, 신호 연, 파발이 그려져 있고 각 수단별로 간단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본 체험과 관련된 ‘봉수’에 대해서 “높은 산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이용하여 나라의 급한 일을 전하였습시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봉수대에 연기가 1~5개가 피어오르는 그림을 제시하여, “적의 침입이 없는 평상시, 적이 나타났을 때, 적이 가까이 왔을 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III-1] 『사회 3-1』 교과서에 나타난 통신 수단 ‘봉수’

출처: 『사회 3-1』 (교육부, 2015: 82-83)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도』 지역화 자료에는 『사회 3-1』에 제시된 봉수와 관련하여 지역지정문화재인 ‘연대’를 통신 수단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별도연대, 두모연대, 애월연대가 사례로 제시되고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우리 고장의 의사소통 수단인 연대를 살펴봅시다.

연대란 옛날 군사적 통신수단으로 적의 침입이나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했던 시설입니다.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횃불을 사용하여 인근 마을이나 군대가 있는 곳에 빠르게 연락했습니다. 봉수대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연대는 해변에 가까운 높은 지대에 설치했습니다.



▶ **별도연대(제주시 화북동)**

별장 6명과 봉군 12명이 배치되어 교대로 24시간 지켰으며, 동쪽으로 조천 연대, 서쪽으로 수근연대와 신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 **두모연대(한경면 두모리)**

동쪽으로 대포연대, 남쪽으로 우두 연대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별장 6명과 봉군 12명이 배치되어 해안선을 지켰다고 합니다.



▶ **애월연대(애월읍 애월리)**

바닷가에서 450m정도 떨어진 동산 위에 세워져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여러 연대 가운데 비교적 큰 편에 속합니다. 동쪽으로 남두연대, 서쪽으로 귀덕연대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림 III-2] 지역화 자료에 나타난 통신 수단 ‘연대’

출처: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 (제주시교육지원청, 2015: 33)

이렇게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과 지역화 자료와의 연결성을 분석하던 중, 학기 초 수시로 발송되는 체험관련 공문들에서 <봉수씨 연대기> 프로그램 공람 문서를 접할 수 있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

2. 문화재청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105선을 확정하였습니다.
3. 우리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이 제안한 [제주섬 방어유적 생생체험 “봉

수씨 연대기”] 프로그램 또한 선정되어 각급 학교(초등 3-4학년)를 대상으로 시행하려 합니다.

4. 이는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해설이나 답사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겪어보는 신나는 생생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 (중략) ...

지역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프로그램명	제주섬 방어유적 생생체험 “봉수씨 연대기”
대상문화재	산방연대(제주특별자치도 시도기념물 제23-21호) 외 5개 연대 별도연대 / 조천연대 / 배령연대 / 연동연대 / 오소포연대
프로그램 특징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경관이 빼어난 제주 섬 해안에 설치된 연대에서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방어유적 생생체험
<p>▪ 주요프로그램 : 제주섬 방어유적 생생체험 “봉수씨 연대기” 4월 1일 ~ 8월 30 신청한 수요일 09:00~12:00 / 신청기관 및 학교(총 18회)</p>	
1. 봉군원정대 소년 봉수, 봉수꾼 되다	마을에서 해안 어딘가에 있는 연대를 찾아 가는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마을역사 이야기를 듣거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도보 여행 4월 1일 ~ 8월 30 학교에서 신청한 수요일 09:00~12:00 / 총 6회
2. 봉군체험 연대에 불 올려라	모두 봉군이 되어 별장 등의 봉군 복장을 갖추고 연대에서 행해지는 교대의식, 순라의식, 거화의식 등을 직접 수행해 보는 신나는 봉군 체험 4월 1일 ~ 8월 30 신청한 수요일 09:00~12:00 / 총 6회
3.봉군 페스티벌 봉수씨 꿈을 이루다	1, 2과정을 겪은 팀들이 그동안의 과정을 영상에 담아 UCC를 제작하여 발표하고, 실력을 겨루는 별장과거시험, Presentation 등을 펼치는 마무리 축제의식 4월 1일 ~ 8월 30 신청한 수요일 09:00~12:00 / 총 6회

*진한 글씨는 원문 재인용

*밑줄은 공문 내용 중 교사가 눈여겨 본 부분임

교통·통신 발달과 관련해서 사회 교과서에는 ‘봉수’가, 지역화 자료에는 ‘연대’가 소개되어 있었다. ‘연대’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보고 본 것 같기도 한데, 지역화 자료 속의 연대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연대구나’라는 생각만 했다. 교사로서 내가 연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체험을 놓칠까봐 급한 마음이었다. 교과서 진도를 확인하여 체험 날짜를 잡았다. 2015년 5월 27일,

연대를 체험하고 나면 학생들은 분명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을 통해 익히니 확실히 ‘연대’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 체험학습 실행하기

1) 별장, 봉군 복장을 입고 제식 훈련

학생들이 배령연대 체험을 위해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잔디밭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세 팀으로 나누어 별장을 뽑는 일이었다. 각 팀별 별장 2인, 봉군 6인을 선정하였다. 별장은 봉군처럼 머리띠를 하고 검은 옷을 입었으며, 다리에 행진¹⁸⁾을 맨 뒤 모자를 추가적으로 썼다. 이 프로그램의 마스코트인 [그림 III-3]과 같은 별장의 이미지대로였다. 복장까지 갖추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마치 옛날 사람, 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열을 맞춰 썼다.



[그림 III-3] <봉수씨 연대기> 봉군의 이미지

출처: ‘봉수씨 연대기’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FkPgqFOTx90>)

*동영상 시작 장면에서 캡처하여 제시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칼과 창을 사용하는 무기 숙지법을 익혀야 한다며

18) 바지를 입은 위에 무릎 아래에 매는 것으로 형태는 네모나게 생기고, 행진 양 측 두 개의 끈을 돌려 매게 하는데, 진행팀원은 학생들에게 행진을 매도록 하면서 복장의 한 소품인 이 이름을 ‘행진’이라고 한다며 설명해주었다. [그림 III-4]에서 학생들의 무릎 아래부분에 매어져 있는 것이 행진이다.

“들어 칼” 등의 훈련 용어와 함께 창 들기, 올리기, 찌르기 등의 행동을 취했다. 물론 창이라고는 하지만 가벼운 고무 재질이라 학생들의 입에서는 “장난감이잖아”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도 이 소품은 학생들이에게 신기함과 진지함을 담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림 III-4] <봉수씨 연대기> 제식훈련 체험 장면

2) 봉군원정대 마을 순찰

각 팀별로 ‘별장 1인-봉군 6인-별장 1인’의 순서로 줄을 서서 바닷가 해안도로변으로 바다를 살펴보며 마을을 순찰하였다. “왜구가 나타났는지 바다를 잘 살펴야 한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과 함께 북소리를 둥둥 울리며 학생들이 배령연대까지 쭉 걸어갔다. 중간 중간 제주의 바다 원담¹⁹⁾, 용천수가 솟아 오르는 자연 빨래터, 그리고 돌담 이야기들을 프로그램 진행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19) 제주 해안가에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만든 일종의 자연 그물이라 할 수 있다.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도록 하는 원리이다.



[그림 III-5] <봉수씨 연대기> 봉군원정대 마을순찰 체험 장면

3) 배령연대 불 올리기 의식

배령연대에 도착한 학생들은 직접 연대의 모습을 보자 감탄사를 쏟아냈다. 엄청난 반응은 아니었고 “와, 연대다”, “도착이다”, “이게 배령연대야?”와 같은 말들이었다. 학생들이 연대에 도착하자 옛날 연대에서 했던 의식들을 할 거라고 했다. 원래 연대를 지키던 봉군들과 나중에 온 봉군들이 서로 교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옛날과 같은 상황을 재연하는 것이었기에 학생들을 먼저 연대를 지키던 팀, 새로 도착한 팀으로 두 팀을 정하고 한 팀은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선정된 두 팀은 연대의 계단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연대를 한 바퀴씩 돌았다. 주변이 안전한지도 살피는 거라고 하였다. 이를 순라의식이라고 한다며 학생들에게 작은 종이에 적힌 ‘순라’라고 적힌 단어를 보도록 하였다. 한 바퀴를 돌고 연대 계단 입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서로가 같은 편인지 혹은 적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므로 경계를 놓치지 말라고 하였다. 서로 같은 편인 것을 확인해야만 교대를 할 수 있다며 각 팀의 별장에게 비밀스런 패를 주었다. 이 패는 ‘信’자의 반쪽짜리였는데 어떤 글자인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나눠준 반쪽짜리 패를 서로 맞춰보도록 하고 딱 ‘信’자가 맞아 떨어지자 함성을 질렀다. 이런 것을 교대 의식이라 한다며 ‘순라’라는 글자를 보여줄 때와 똑같이 ‘교대’라고 적힌 종이를 펴서 보도록 하였다.



[그림 Ⅲ-6] <봉수씨 연대기> 봉군 교대의식 체험 장면

본격적으로 연대에 올라 적의 동태를 확인하고 연기를 피우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어떻게 연기를 피우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는 순간이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맨 돌바닥에 미리 준비해 놓은 벽돌 무늬의 시트지를 붙인 굴뚝 모양 상자가 놓여 있었다. 돌계단은 굉장히 반듯하였으며, 학생들 여럿이 올라가도 걱정 없을 정도로 튼튼하였다. 학생들에게 바다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지금 바다에 왜적이 보이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적도 없음을 확인하고, 적이 보이지 않고 안전한 상태에서는 연기를 몇 개 올려야 하는지 물었다. “1개요”라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적이 없는 고요한 평상시의 1개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경우 5개까지 연기를 올리는 오거법을 설명해주었다. 적이 없으니 연기를 1개 피우기로 하고 [그림 Ⅲ-7]처럼 노란 연막탄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자신의 무기를 하늘을 향해 들며 “와~” 하는 함성을 내질렀다. 이를 ‘거화’라는 의식이라 한다면 앞에서 의식을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림 III-7] <봉수씨 연대기> 연대에 불 올리기 체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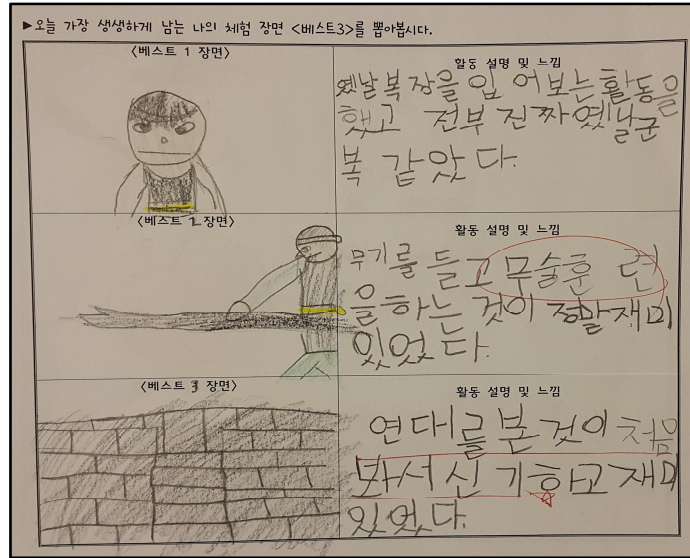
다. 체험학습 되돌아보기

1) 체험학습 직후, 만족한 교사와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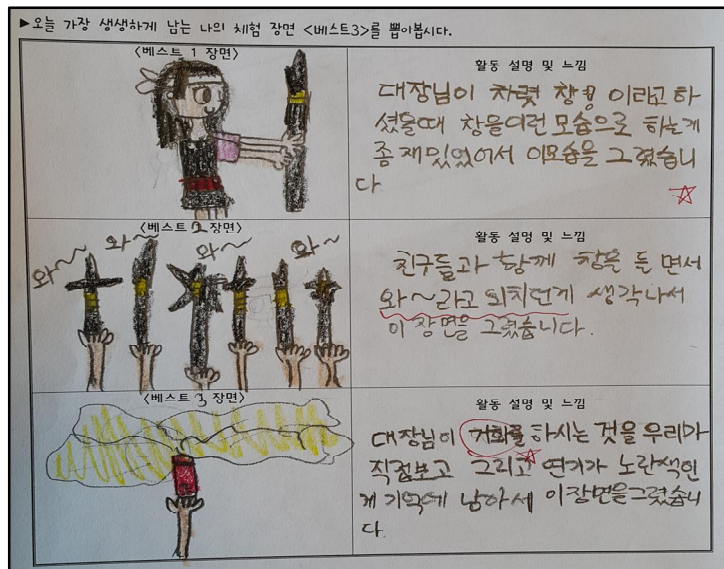
<봉수씨 연대기> 체험학습 참여 후, 학생들은 옛 봉군들의 복장을 갖추고 직접 마을을 순찰한 것, 무엇보다 연기를 피워보았다는 것에 만족해하였다. 당시 3학년인 자신들만 학교 밖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에 신나고 즐거워했다. 물론 걸을 때 힘들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이런 건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이 체험의 내용은 인상적이었다.

나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만족해했다. 우선 체험활동을 위한 준비를 주최 측에서 미리 다 해 주었다. 또 학생들을 작은 팀별로 나누어 5명의 진행요원이 활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교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져들어 진짜 봉군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하였다. 배령연대를 사전 답사할 때만 해도 연대의 모습, 안전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기에 연대를 알았다는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이 체험을 마치고 나니 연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또한 교사 한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에 만족했다. 학교로 돌아온 뒤 추후 활동으로 <봉

수씨 연대기> 체험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뽑아 <나의 체험 장면 베스트 3>를 그려보고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느낌을 적도록 하였다.



[그림 III-8] 승학이의 <나의 체험 장면 베스트 3>



[그림 III-9] 서린이의 <나의 체험 장면 베스트 3>

[그림 Ⅲ-8]과 [그림 Ⅲ-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가 학생 24명이 가장 많이 뽑은 장면으로 ‘옷’(17명), ‘무기 및 훈련’(15명), ‘연기 피우기’(14명), ‘연대 오르기’(9명), ‘교대의식’(7명) 등이 나왔다. ‘옷’과 관련하여 “내가 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진짜로 연대에 있는 군사가 된 것 같았다(상록)”, “직접 입어보니 멋졌다(세현)”, “옛날 옷을 입어보았더니 재미있고 신났습니다(명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무기 및 훈련’과 관련하여 “창을 들고 쓰는 법을 배우니까 좋았다(남광)”, “무기를 다루는 것을 배운 게 재미있다(수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연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연기를 피우는 게 재미있고 신기했다(아현)”, “연기가 노란색이니까 신기했다(수현)” 등 연기를 피우는 것 자체를 인상 깊게 생각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험의 특징적인 장면들을 깊이 각인하고 있었으며 재미있고 신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재미있고 신나는 느낌과는 다른 느낌을 표현한 네 가지 경우도 있었다. “활동: 걸어가는 활동, 느낌: 걸어갈 때 힘들었다(유리)”, “옷을 입었다. 정말 옛날에는 불편했겠다(유빈)”, “무기를 다루는 것을 보고 배운 게 기억에 남는다. 실제 무기라면 무섭겠다(아랑)”, “옛날 옷을 입으니 멋있기도 했지만 좀 답답했다(준혁)”라는 반응이 그 예이다.

이후 6월 중순, <봉수씨 연대기> 진행 팀에서 유튜브에 올린 학생들의 활동 장면 영상을 다함께 봤다. “저건 ○○네, 웃기게 나왔다, 집에 가서 다시 봐야지”라는 말소리가 간간히 들렸으나 학생들의 눈은 모두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동영상은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학생들의 활동 사진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제작되었다. 우리는 영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때를 추억하도록 허락되고 우리의 체험 자체만을 바라보며 모두 향수에 젖고 흐뭇할 뿐이었다. 동영상은 그 때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게 하는 마법과 같은 장치였다.

2) 반성: 연대 체험에서 놓친 것들

배령연대에서 <봉수씨 연대기> 체험 이후에도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던 2015년 9월 23일, 함께 공부하던 교사들과 1학기에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했던 배령연대 체험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었다. 이 체험활동에 자부심이 많았던 나는 학생들이 복장, 무기를 갖추고 마을을 돌았고 연대

에서 연기를 피워 올렸다는 이야기를 소상히 하였다. 그런데 평소 지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던 한 동료 교사의 물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 동료교사의 반응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대에 메여있으면서 일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친한 신분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봉군들을 멋진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네요. 제주도 척박한 땅에서 자기네 집 농사일도 거들기 힘들었을 거고, 매일 연대 지키는 게 고된 노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끌려나와 연기 지키고 하던 사람들이 과연 학생들처럼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훈련을 받았을까? 복장이랄 것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출처: 교육 연구 모임 수업협의 내용 중(2015. 9.23)

*밑줄은 연구자 강조

실감나는 의상, 멋진 봉군들, 불과 연기에 대한 나의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다. 나는 왜 동료 교사처럼 활동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궁금해 하지 않았던 것일까? 누군가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느라 정작 나만의 ‘연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봉수씨 연대기> 프로그램이 연대에 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했으리라는 지레짐작으로 진짜인 양, 모든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자신들이 재연했던 봉군과 연대를 학생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학생들의 감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 안에서 학생들은 의문을 가지고 탐구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생각할 틈도 없이 제작자들의 의도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교사로서 내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경험 속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탐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느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지만 학생들의 내면에 남아있는 것을 끄집어내 보기로 했다. 진정한 의문도 없이 받아들여진 ‘봉군’과 ‘연대’의 이미지일 것이란 생각에 사실 두렵기도 했다. 학생들이 탐구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가는 체험 학습을 실행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경험을 발현하게 할 출발점에서 있었다.

3) 배령연대에서 생성된 ‘봉군’과 ‘연대’의 이미지

첫 연대 관련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 약 5개월만인 2015년 11월 3일, 학생들

에게 남아있는 봉군 이미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봉군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봅시다’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표 III-1>과 같이 ‘힘들고 연기를 피워서 위험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학생이 24명 중 7명(29%)이었고, <표 III-2>와 같이 ‘봉군은 용감하고 멋지고 강하다’는 반응을 한 학생이 16명(67%)이었다. ‘봉군이 되어 올라가서 신기한 연기도 보았다. 또 무기 드는 게 재미있었다’라고 적은 도연이의 반응은 두 범주에 속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다수가 봉군을 멋진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봉군 복장, 무기를 다루는 훈련 체험, 교실에서의 유튜브 영상 시청 속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III-1> <힘들고 위험하다>류의 봉군 이미지²⁰⁾

학생명	기술된 봉군 이미지
유빈	봉군들은 위험할 때 연기를 피워야 해서 힘들 것 같다.
남광	봉군은 왔다 갔다 하면서 햇불을 피웠으니까 참 힘들었겠다.
유리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고, 눈이 매울 수 있습니다.
상록	나는 부별장을 했는데 체험이어서 안 힘든 거지 진짜로 하면 별장이나 부별장이나 힘들었겠다.
동훈	불을 피운 봉군은 눈이 매울 것이다.
준혁	봉군은 힘이 세고 숨을 잘 참고 빠른 사람이 해야겠다. 왜냐하면 숨을 참지 않으면 연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린	봉군들은 적이 많이 쳐들어왔을 때 연기가 나게 불을 피워야 한다. 근데 피우다 다치진 않았나싶다.

*진한 글씨는 연구자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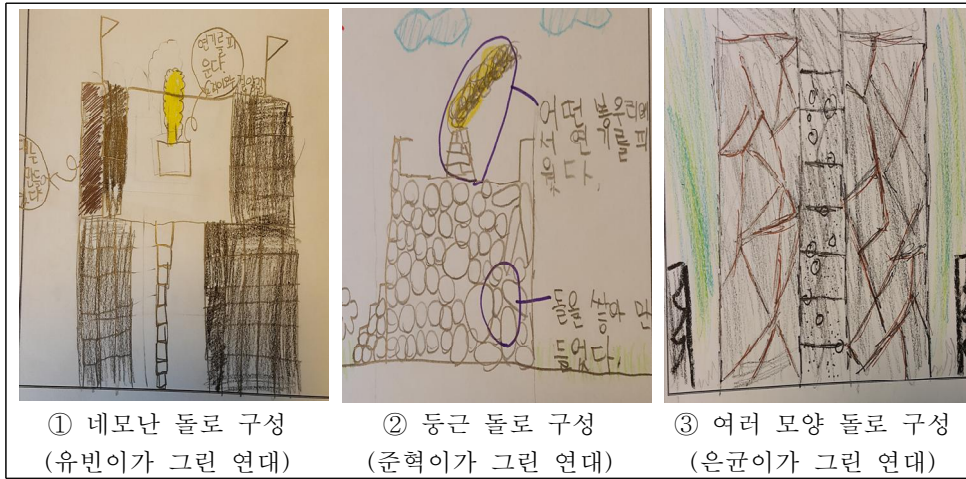
20) 여기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이름은 가명이며, III장, IV장에서 같은 가명이 사용된다.

<표 III-2> <용감하고 멋지고 강하다>류의 봉군 이미지

학생명	기술된 봉군 이미지
하준	우리가 봉군이 되니 용감하고 강한 것 같았다.
현이	우리가 봉군이 되니까 강한 느낌이 들었다.
준서	봉군은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 했을 것 같다.
승아	봉군체험을 해 보니까 옛날엔 어떻게 했었는지도 알 수 있고, 별장은 힘이 센 사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같다.
지혜	봉군은 힘센 사람, 순발력 있는 사람,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같다.
세현	봉군의 무기가 멋지고 힘이 세고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봉군인 거 같다.
명진	정말 멋있고 순발력, 힘, 속도가 있어서
고진	힘이 세고, 침착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은균	1. 봉군은 힘이 센 것 같다. 2. 봉군은 머리가 좋을 것 같다. 3. 봉군은 칼을 잘 휘두를 것 같다.
수혁	힘이 센 사람이 할 것 같다. 무기가 있으니 좋겠다.
승하	봉군은 생각해보니 연기도 피우고 왜적의 침입도 막고 싸우기도 하니까 힘이 센 사람, 수비 잘하는 사람, 순발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연기를 피우고 수비를 해온 봉군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소현	힘이 세고 머리가 좋은 사람
수현	봉군은 아주 힘이 세고 멋있고 용감한 것 같다.
과관	봉군은 멋있었다. 힘도 세고 아무튼 그렇겠다.
아현	봉군은 연대를 지키느라 힘들 거고, 봉군은 순발력, 힘센 사람,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 등등이 하는 것 같다.
아랑	봉군은 힘세고 남자고 순발력 좋고 멋진 사람일 것 같다.

*진한 글씨는 연구자 강조

또한, 학생들에게 연대의 모습을 그려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연대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III-10]의 ①과 같이 연대를 크기가 비슷한 네모반듯한 돌들로 구성하여 그린 학생은 9명, ②와 같이 둥그런 돌들로 그린 학생은 9명, ③과 같이 다양한 돌 크기를 서로 맞춰서 그린 학생이 6명이었다.



[그림 III-10] 연대 그리기 활동에서 정면을 그린 경우

[그림 III-10]의 ①과 ②처럼 네모반듯한 돌이나 둥그런 돌로 구성하여 연대를 그린 학생들의 설명에서는 ‘연대의 모양은 사각형이다’, ‘바닷가에 돌로 쌓아 만들었다’ 외에 특징적인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림 III-10]의 ③처럼 다양한 크기의 돌로 이루어지게 그린 6명의 학생 중 3명의 설명에는 ‘사각형으로 된 모양도 있지만 사각형에서 좀 기울어진 모양, 울퉁불퉁한 모양 등등 있다 (아현)’, ‘돌에 구멍이 뚫려 있다(수혁)’, ‘돌이 차곡차곡 쌓임, 중간 중간 작은 빈틈, 돌을 시멘트로 연결을 하지 않았다(동훈)’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 있었다. 여기서 동훈의 경우 연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고 정확했는데, 전날 다리를 다쳐 다른 친구들이 마을을 순찰하는 동안 미리 연대에 도착해 관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훈이가 그린 연대의 모습과 실제 배령연대의 모습을 제시하면 [그림 III-11]과 같다.



[그림 III-11] 동훈이가 그린 연대 모습과 실제 배령연대 정면 모습

배령연대 사진 출처: 연구자 촬영(2015. 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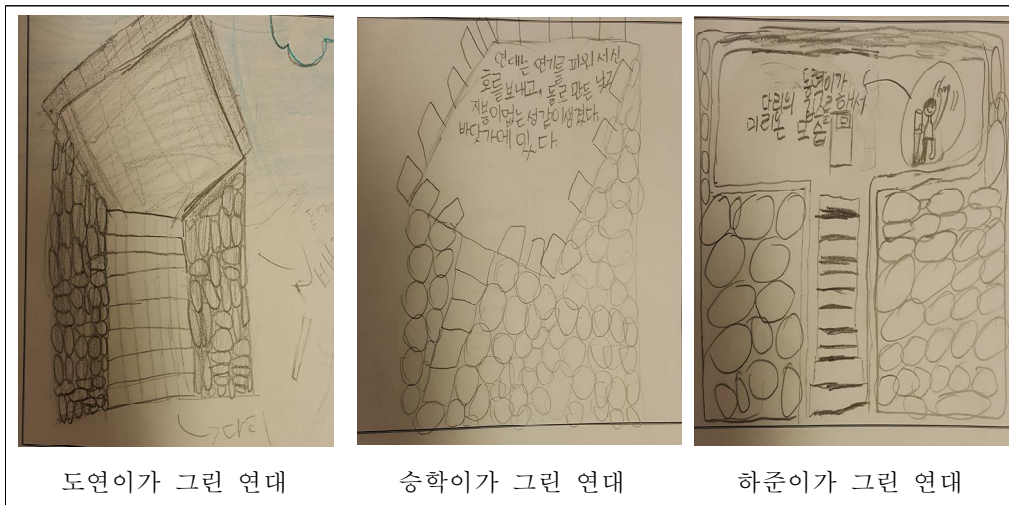
배령연대는 사실 변형 복원되어 너무나도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긴 했다. 전체적으로 네모 모양이라 돌들의 세부적인 모습들도 일률적일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변형 복원되었을지라도 배령연대는 제주의 돌을 이용하여 아랫부분에는 큰 돌을, 윗부분에는 점차 작은 돌로 쌓여졌다. 또한 벽돌처럼 쌓지 않고 빈틈은 작은 돌도 채워졌다.

학생들이 그린 연대 모습을 구성하는 돌의 모양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학생들이 연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 중 18명은 [그림 III-10]과 같이 연대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6명의 학생은 [그림 III-13]처럼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다. 특징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음에 주목할 수 있다.



[그림 III-12] 위에서 바라본 배령연대 모습

출처: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전시 사진 연구자 촬영(2015. 10. 31)



도연이가 그린 연대

승학이가 그린 연대

하준이가 그린 연대

[그림 III-13] 연대 그리기 활동에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린 경우

연대 그리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연기를 피우는 굴뚝같은 것을 그려 넣은 학생이 9명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체험 당시에 굴뚝 모양 소품을 연대 위에 설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품은 누가 봐도 소품일 뿐, 연대 위에는 돌바닥 외에는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4) '연대'에서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은 봉군에 대한 생각을 써 보라고 할 때보다 연대를 그려보라고 할 때 더 당황했다. 분명 연대 입구에 다다라서 전체 모습을 보았고,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주변에서 간식도 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말이다. 연대를 다녀왔고 그 모습도 떠오르는데 연대 그리기는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기억 속에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연대의 모습은 제대로 눈에 담고 오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들이 행했던 봉군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봉군의 신분과 어려움에 대한 자료들을 읽고 난 후라, 학생들이 지배적으로 지니고 있는 '멋진 봉군'의 이미지를 깨고 싶었다. '비가 오는 날, 연기를 피우지 못하는 날에는 다음 연대에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다'는 문구 한 줄만 읽어봐도 마음이 쓰였을 텐데 학생들은 아무도 연대의 안내판을 읽지 않았다. 옛날 해안가 돌길을 굽은 날씨에 적어도 4~5km를 달려갔을 생각을 해 보았다면 학생들 또한 봉군의 어려움을 봤을 것이다.

최근에 번듯하게 복원해놓은 배령연대가 제주도에 있는 38개의 연대를 대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에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연대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옛날 모습 그대로인 연대 같지 않다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렸다. 현대식으로 복원한 연대라서 조선시대 제주를 지켰을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지 않았다. 또한 어떤 연대들은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상을 살펴보아야 했다. 다양한 연대를 접하면서 자신만의 연대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기왕이면 학생들의 지역인 애월읍에 위치한 연대를 통해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로서 나는 봉군의 신분, 연대의 기능, 봉군의 복장, 연대와 봉수의 생김새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봉수씨 연대기> 체험 당시 순라 의식, 교대의식, 거화의식 등을 치렀는데 연대와 관련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봉수씨 연대기>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극화된 체험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수문장 교대의식 등에서 용어 및 각종 의식 등을 가져와서 시나리오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의문을 품지 않고 체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면, 옛날의 제주도에서 이 모든 의

식들이 멋지게 행해졌다고 믿었을 것이다.

사실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들에는 이처럼 시나리오로 짜여진 경우가 많다. 누군가 재현한 장소와 재현한 활동이 학생들에게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동영상도 학생들의 활동을 재차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상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생각해본다면, 본래 이 체험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제작자들의 의도가 담겼음을 볼 수 있다.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고 함께 누리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한다. 교사는 반드시 의도되고 정해진 체험 프로그램의 관점 및 활동을 비판적으로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배령연대 체험 후 느낀 교사로서의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연대’ 체험을 해 보기로 하였다. 진짜로 탐구하면 의문도 생기고 스스로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연대를 통해 생길 거라 믿고 다음 체험학습을 준비하였다.

2. 애월 · 남두연대

: ‘연대’에서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가. 체험학습 계획하기: 봉군에 대해 알아야 한다

봉군에 대한 동료 교사의 물음과 스스로 가졌던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다. 봉군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세종 21년(1439) 제주 안무사 한승순은 제주 방어를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어소 외에 왜선이 정박할 염려가 있는 21개소에 공·사 노비와 잡색군인으로 하여금 번갈아 방어케하고, 22개의 통신망인 봉수대와 높이와 너비가 각각 3m인 해안선 감시망인 연대를 설치하였다(전인봉, 1995: 117).

각 봉수와 연대의 배치인원은 봉수가 별장 6명, 봉군은 12~36명으로 차이가 있다. 연대는 모두가 별장 6명, 연군(혹은 직군) 12명이다. 이들은 병기·기·각을 가지고 후망함으로써 적의 침입을 대비하였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어 불이나 연기를 피울 수 없을 경우에는 봉군이나 연군이 달려가서 연락을 취하였다. 봉군이나 연군은 신분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신량역천(身良役賤) 계층

이었다(제주도, 2002: 152).

만약 적의 침입이 있을 때, 안개, 구름, 비, 바람 등으로 인하여 봉화로써 신호가 통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까지 달려서 알리는 한편, 주위의 주민과 수비군인에게 급보를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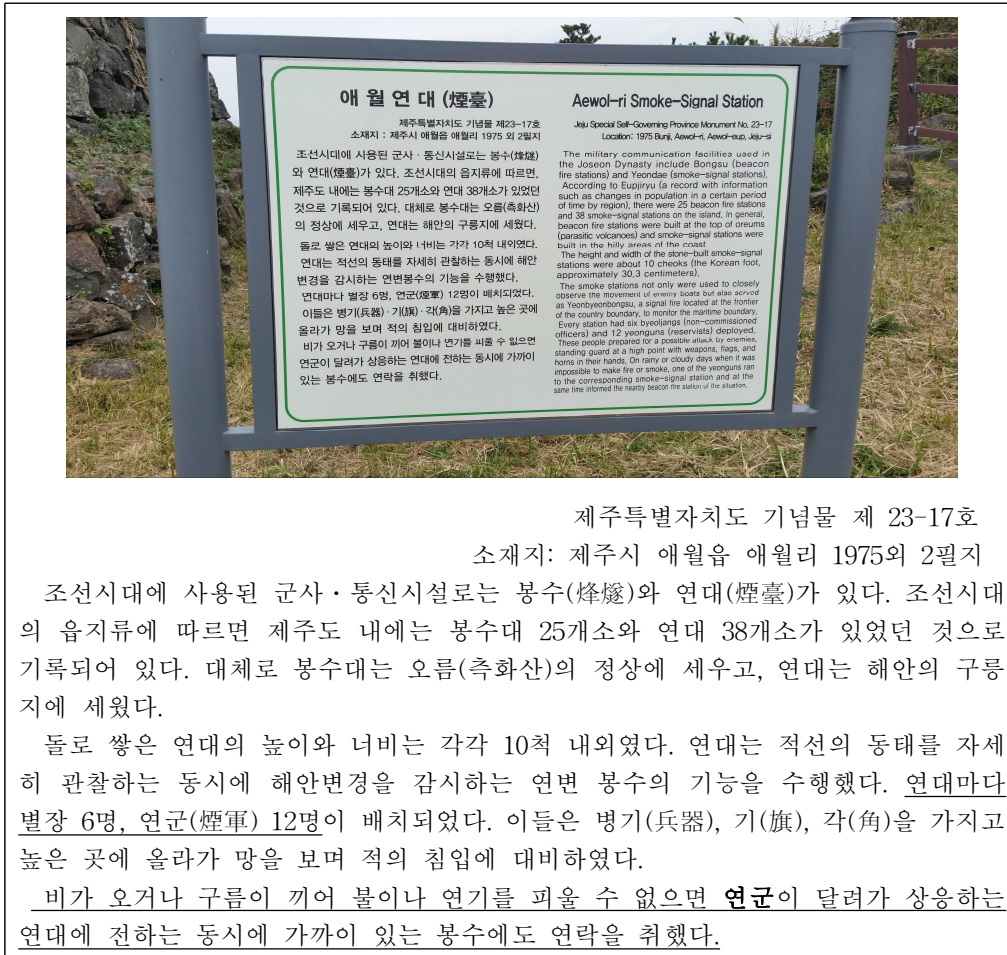
그런데 봉수군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부근의 주민을 중심으로 차출하였는데, 그 신분은 초기에는 연간(鹽干), 진척(津尺) 등과 같이 봉화간(烽火干)이라고도 하여 신량역천(身良役賤: 낭인(浪人)과 천인(賤人)의 중간)에 속하였다. 그러나 봉수의 역이 고달프고 갈수록 신분이 낮아, 조선조 후기에는 이른바 칠반천역(七般賤役)²¹⁾이라 하였다. 그들은 공부(貢賦)외의 일체의 잡역을 면제받았다. 봉화대에 배속되는 봉수군은 그 임무의 막중함으로 해서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오직 망보는 일에만 종사하게 했던 것이다. 물론 그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하였다(김종석, 1998: 91).

*밑줄은 연구자 강조

봉군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료를 통해 살펴보니, ‘노비’, ‘잡색군인’, ‘신분적으로 열악’, ‘고달픈’, ‘엄한 처벌’이라는 말로 그려졌다. 그들은 영웅적 존재가 아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연대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늘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관리하고 땀감 준비에 여념이 없어 낮과 밤도 없었다. 불을 다뤄야 했기에 위험하기도 했지만 제주의 팍팍한 살림에 자기 집안일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었다. 이런 자료들을 보고 학생들의 <체험 활동 베스트 3>를 다시 보니 학생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체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봉군에 감정이입하는 것을 체험학습의 목표로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은 우선 사실을 더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체험 장소에서 사실을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은 안내판이다. 이전 체험에서는 지나쳐버린 안내판 내용을 읽어 보면 학생들이 봉군의 생활에 공감할 것으로 보였다. [그림 III-14]는 애월연대 안내판의 모습이다.

21) 조선 시대 일곱 가지 천대받는 구실아치(조례·나장·일수·조군·수군·봉군, 역졸)를 말함. 원래는 양인이 하는 역이었지만 역이 고되므로 중기 이후로 세습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천역화하면서 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양인보다 낮은 대우를 받게 됨.(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네이버백과사전))



[그림 III-14] 애월연대 안내판 및 내용(연구자 촬영, 2015. 11. 1)

*굵은 글씨와 밑줄은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강조

애월연대 안내판의 내용을 좀 더 잘 느끼기 위하여 한 연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대와 연락을 취하는 상응연대(애월연대↔남두연대), 상응봉수(애월연대↔고내봉수)에도 함께 다녀오면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연대를 자세히 관찰하고 직접 그려볼 계획도 가졌다. 사진만 찍거나 훑어볼 일이 아니었다.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그려보았을 때 연대의 모습, 쓰임, 만들어지는 과정, 옛날의 모습에 대한 상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연대는 학생들의 지역인 애월읍에 위치한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였다. 애월연대는 사회과 지역화 자료에 실리기도 했지만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곧 무너질 것 같이 손상이 많은 곳이다. 남두연대는 해안도로변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지나쳤을 곳이다. 한림읍에 있는 배령연대 말고도 내가 살고 있는 애월읍에도 연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 사건이 될 수 있다. 실제 제주의 9진²²⁾ 중에는 애월진이 있으며 ‘애월연대-남두연대 및 고내봉수’가 애월진과 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체험으로 학생들이 ‘제주의 통신 및 방어유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번 체험을 준비하며 학생들을 혼들어놓기를 바란 점이 한 가지 더 있었다. 바로 안내판 속의 ‘연군’이라는 단어였다. 학생들은 이전 체험에서 분명 ‘봉군’이라고 들었는데 안내판 속에는 ‘연군’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었다. 연대를 지키던 사람들은 봉군 이외에도 ‘연군’, ‘직군’이라고도 불리는데 봉군이라는 명칭 하나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연군’이 무엇일지 궁금해 하기를 기대했다.²³⁾

나. 체험학습 실행하기

‘우리 지역 연대와 봉수’라는 주제를 잡고 [그림 III-15]과 같이 애월연대, 남두연대, 고내봉수를 돌아보는 체험 코스를 짰다. 각 연대와 봉수는 버스를 이용하여 가되 고내봉수는 바닷가 방향 산책로로 걸어서 올라갈 계획이었다. 고내봉의 바닷가 방향 산책로가 가파르지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고, 올라갔을 때 바

22) 제주도의 방어시설은 세종 21년(1439년)에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제주의 방어체계는 9개의 방어소가 9진으로 개편되었다. 즉, 수산진성과 차귀진성은 세종 21년(1439), 명월진성과 별방진성은 중종 5년(1510), 애월진성은 선조 14년(1581), 화북진성은 숙종 4년(1678), 모슬진성은 숙종 4년(1678)에 동해진성을 이긴하여 쌓았다. 그 외에 세종과 중종 때에 서귀진성과 조천진성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의 방어시설은 3성 9진 25봉수 38연대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제주도, 2002: 139-140).

23) 연대를 지키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별장(別將)’은 변화가 없으나, ‘봉군’의 명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봉수에 쓰이던 봉군(烽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군’, ‘연군’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탐라지(耽羅誌)』(1653)에는 ‘봉군(烽軍)’,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1760~1770년 추정)에는 ‘연군(煙軍)’, 『제주병제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1793)에는 ‘직군(直軍)’, 『제주읍지(濟州邑誌)』(1700년대 후반)에는 ‘직군(直軍)’,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1841)에는 ‘연군(煙軍)’이라는 말들을 볼 수 있다(제주시, 2012: 34-145).

로 봉수대 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가파른 길로 걸어서 올라가봐야 흐린 날 소식을 전하러 걷고 뛰었을 봉군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림 III-15] 애월연대-남두연대-고내봉 체험 코스

지도 출처: 네이버 위성지도(<http://map.naver.com/>)

* 애월리-신엄리 부근 캡처하여 체험 코스 표시하여 제시

연대에서는 각 연대의 모습을 그려보고, 알게 된 내용, 의문 사항들을 적어보도록 하고 봉수대에서는 학생들이 둘러보았던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를 한눈에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아침부터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적은 비가 내리는 것 정도는 봉군들이 겪은 날씨에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공감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므로 감수하기로 했다.

먼저 애월연대에 갔다. 꽤 큰 규모인지라 학생들은 거대함에 놀랐다. 출입통제 안내판이 놓여 있어 연대를 만지지는 말고 앞과 양 옆에서 관찰하도록 하였다. 연대를 자세히 관찰하여 그림을 그리고 안내판을 읽어보는 게 이번 시간 과제였다([그림 III-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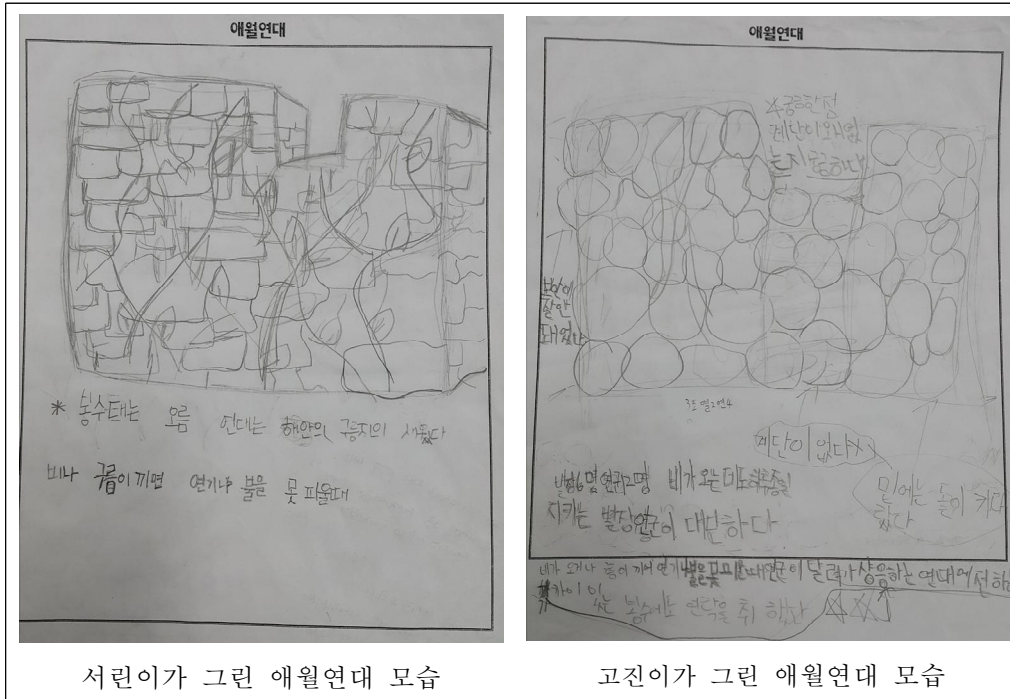


애월연대 모습 그리기

애월연대 안내판 읽기

[그림 III-16] 애월연대에서의 학생 활동 모습

학생들이 애월연대의 모습을 그린 것을 보니, 앞의 [그림 III-10]과 [그림 III-13]의 배령연대 그림들과 많이 달라졌다. 규격화된 벽돌을 쌓아 올린 듯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제주도 돌담 쌓듯 서로 모양을 얼추 맞추어 쌓아올린 모습, 크고 두꺼운 돌을 아래에 쌓고 점점 작은 돌을 쌓은 모습, 돌과 돌 틈 사이를 작은 돌로 메꾸어 놓은 모습 등으로 좀 더 정교하게 그렸다.



서린이가 그린 애월연대 모습

고진이가 그린 애월연대 모습

[그림 III-17] 학생들이 그린 애월연대 모습

학생들에게 애월연대를 그림으로 그린 후의 소감을 물어보았다.

교사: 애월연대, 남두연대에 가서 자세히 관찰하며 연대를 그려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서린: 연대를 그려 보라고 하니까 배령연대만 갔다 오니까 그 때는 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새 것처럼 그렸고요. 애월연대는 왜 이렇게 그렸냐면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돌도 아래가 크고 위에 니이런 모양도 있었어요.

고진: 애월, 남두 연대를 안 갔다 왔으면 제주도 연대는 다 배령연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출처: 학생 면담(2015. 11. 6)

학생들은 연대를 자세히 관찰했기 때문에 연대를 구성하는 돌의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 고진의의 말처럼 배령연대만 체험학습 했다면 모든 연대가 현대적인 모습이라고 인식할 터였다. 봉군은 옛날의 사람인데 연대는 현대식 시설이라는 부조화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처럼 세밀한 관찰은 알고자 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기본 조건이었으며 자신의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 주었다.

학생들의 활동지에는 안내판을 읽고 알게 된 것을 적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어 불이나 연기를 피울 수 없으면 연군이 달려가 상응하는 연대에 전하는 동시에 가까이 있는 봉수에도 연락을 취했다’, ‘제주도 내에는 봉수대 25개소와 연대 38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와 같은 내용이 주로 적혀있었다. 학생들이 ‘연군’이라는 단어와 ‘비가 오거나 구름 낀 날씨에 뛰어가는 고생’, ‘제주도에 존재하는 많은 봉수와 연대’를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두연대를 향하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남두연대에 도착했을 때는 빗줄기가 다소 굵어졌다. 5~10분 정도밖에는 학생들이 남두연대를 관찰할 시간이 없었다. 애월연대에서는 안내판을 읽으라고 교사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했던 반면, 남두연대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안내판이 어디 있냐며 찾았다. 그런데 안내판이 없었다. 학생들은 “선생님, 안내판이 없어요”, “왜 없지?”라고 말하며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비가 와서 더 이상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종이가 젖어서 잘 그릴 수는 없었지만 연대의 대강 모습과 관찰 결과를 기록했다.

날씨 관계로 애초에 계획했던 고내봉수는 보지 못하고 아쉽게 학교로 돌아왔다. 학교에 돌아와 오늘 봤던 연대에 대해 학생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궁금했던 점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자세히 관찰을 하고 나니, 학생들이 스스로 발생적 질문을 쏟아냈다.

다. 체험학습 되돌아보기

1) 질문의 생성: 연대와 안내판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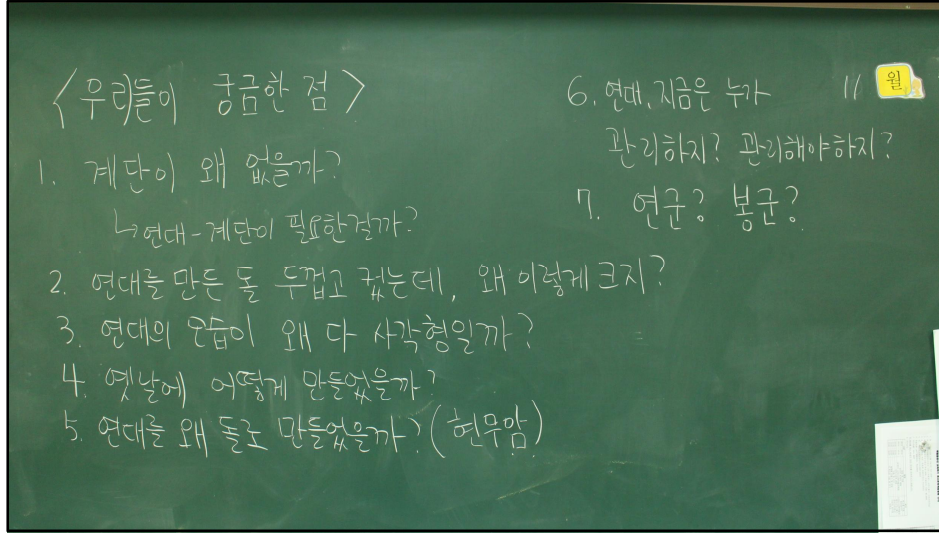
학생들 각자가 가졌던 궁금증들을 서로에게 풀어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나름의 추측들을 풍성하게 쏟아내는 시간을 가졌다. 교실 활동은 ‘① <모둠활동> 모둠원들과 궁금했던 점 이야기 나누기 → ② <전체활동> 각 모둠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데지 칠판을 활용하여 공유하기 → ③ <모둠활동> 전체와 이야기한 후 자신들이 본래 궁금했던 것 또는 다른 모둠이 궁금해 한 내용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기'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서로가 궁금했던 것들을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었다. 학생들의 궁금증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배령연대 체험과 이번 체험 간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었다. 또한 안내판에서 읽었던 문장들 자체가 질문의 대상이기도 하였는데,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었다. 나는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각 모둠에 나누어 준 A4 종이에 적게 한 후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함께 공유해 보자고 했다. 학생들은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1모둠부터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전체에게 발표하였다. 대부분 같은 궁금증들이었는지 학생들은 “맞아 맞아”하고 맞장구를 쳤다. 자기 모둠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궁금증을 마주할 때면 “맞아, 저것도 궁금했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1모둠에서는 계단이 왜 없는지 궁금해 했다. 배령연대에서는 계단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없어서 궁금했던 것이다. 우리 반 모두의 궁금증인지라 나는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에는 원래부터 계단이 없던 것인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인지 생각해볼 것과 연대의 역할과 관련하여 연대에는 꼭 계단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2모둠에서는 연대를 만든 돌이 두껍고 컸는데 왜 이렇게 큰지 궁금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아래 부분의 돌은 엄청 컸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았어요”라며 자신들이 본 사실을 말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아래는 큰 돌 쌓기가 쉽고 위에 작은 돌을 쌓지”, “연대가 튼튼해야 봉군이 망을 보지”라며 덧붙였다.

3모둠에서는 연대의 모습들은 모두 사각형인지 궁금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나는 “모든 연대가 다 사각형일까? 아니면 사각형이 아닌 것도 존재할까?”라고 되물었다. “사각형이 아니어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했다. 우리가 바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질문으로 남겨두자고 하였다. 4모둠은 옛날에는 이런 큰 연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5모둠에서는 ‘연대는 돌로만 만들었을까?’, ‘연대의 돌은 현무암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발표했다.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였을지, 연대에서는 무엇을 피워야 했냐고 물으며 타지도 말아야 하고 튼튼해야 하니까 연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했을지 대답해 보도록 했다.



[그림 III-18] 애월연대, 남두연대 체험학습 후 학생들이 공유했던 궁금증

6, 7모듬은 앞 모듬의 궁금증과 같다고 말하여 일단 칠판에는 다섯 모듬의 궁금증을 간단히 정리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연대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또는 누가 관리해야 맞는 것일까?”, “많이 훼손된 남두연대를 보면서 이게 남두연대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두연대에 표지판 있었니?”라는 질문에 학생들 모두가 안내판이 없었다며 대답했다. 남두연대 옆 도로에 꽤 넓게 파란색으로 지정된 도로가 튀어나고 물으니 자전거도로라고 대답했다. 자전거도로를 타고 해안가의 아름다운 길을 달리던 사람들은 연대가 뭔지 모르지 않을까라고 말을 이어갔다. 또한 우리 학교 버스를 주차하기 위해 남두연대 앞 호텔에 가서 문의를 했을 때 안내데스크의 직원도 바로 앞에 있는 남두연대를 몰랐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사전답사 과정에서 연대와 봉수가 제주의 올레코스 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연대의 모습과 쓰임을 아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마음이 학생들한테 생겨나길 바랐다. 우리 학생들이 연대에 대한 진짜 관심을 가지고 보존까지 실제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다. 이 바람은 실현될까? 교사 혼자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 체험에서 직감한 부분이다.

모둠별 순회를 하면서 들었던 모둠 토의 내용 중에서 전체 공유 시간에 나오지 않은 1모듬의 궁금증을 1개 더 발표했다. ‘연군이 맞나? 봉군이 맞나?’였다. 애월연대 안내판에는 ‘연군’이라고 적혀 있었고, 1학기 배령연대 체험 때 학생들이 맡았던 역할은 ‘봉군’이었는데 대체 무엇이 맞는 것일까? 학생들은 ‘연군’은 ‘연대’와, ‘봉군’은 ‘봉수’와 연관 짓고 연대를 지키던 사람은 연군이 맞다고 말하였다. 내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봉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봉군’이라고만 불리었지만, 연대를 지키던 사람들은 ‘봉군’, ‘연군’, ‘직군’ 등으로 불리었다. 학생들은 연대를 지키던 사람들을 ‘연군’으로 부르는 것을 더 마음에 들어 했으며, ‘봉군’과 ‘연군’을 구별하기를 원했다.

전체 공유 후 모듬별로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어떤 극적 활동도 없이 관찰만 했는데도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다 보면 학생들은 자신만의 ‘연대’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모듬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살펴보다보니, 모든 모듬에서 유독 ‘계단’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 연대 계단에 대한 모둠별 학생들의 생각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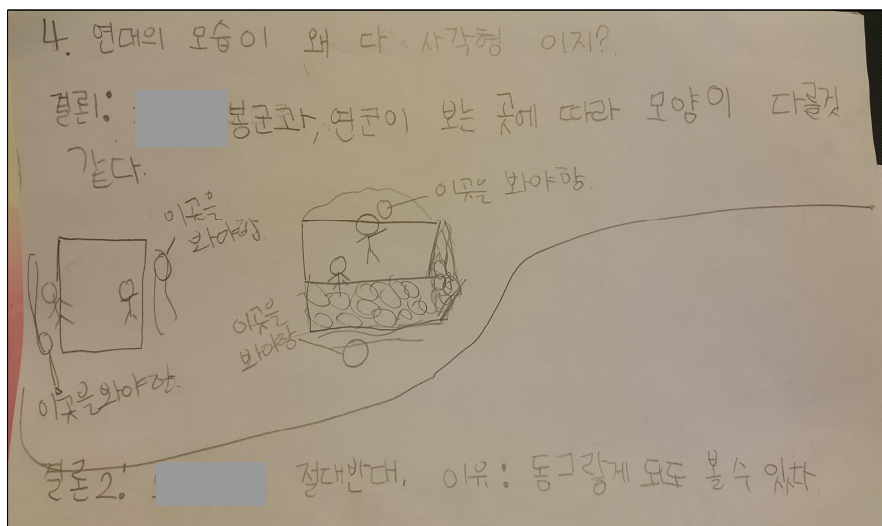
모둠	궁금한 점	모둠원들의 생각 정리
1모둠	계단이 없었다.	-처음부터 계단은 없었을 것이다. 계단이 부서졌다면 연대 전체가 부서졌을 것이다.(준혁) -계단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졌다.(아랑, 도연, 승학)
2모둠	왜 계단이 없을까	-적군이 잘 쳐들어오지 못하게(아미) -적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파란) -계단이 튼튼하지 않아서 무너졌을 것이다(남광) -돌을 잡고 올라갈 것 같다(유빈)
3모둠	계단이 왜 없는지 궁금하다?	-옛날 봉군들은 싸우려면 힘이 있으니까 돌을 잡고 올라갔을 것이다.(우리 의견: 고진, 하준, 수현, 서린)
4모둠	계단이 왜 없을까?	-복원이 안 되어서 계단이 없어졌을 것이다.(승아) -원래부터 계단이 없었을 것이다.(상록) -그 근처에 사다리를 이용했을 것이다.(동훈) -돌이 쌓인 곳으로 올라갔을 것이다.(유리)
5모둠	왜 계단이 없을까?	(모둠 의견) -처음에는 애월연대에 사다리가 있어서 여기로 올라갔던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사다리가 돌 때문에 무너진 것 같다.
6모둠	연대에 계단이 필요한 것일까?	-내 생각엔 계단이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준서) -봉군이 계속 봉수대에 있으면 잘 때 힘들 것 같다(하준) -계단이 없으니까 적이 잘 쳐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 같다.(현이)
7모둠	계단은 왜 없을까?	-왜냐하면 적이 연대에 쳐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표 III-3>에서 보듯, 계단에 대한 학생들의 추측은 다양했다. 계단이 없는 것에 대하여 배령연대의 모습을 떠올린 학생들은 ‘원래는 있었으나 무너지면서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이와 달리 이곳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원래부터 계단이 없는 연대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계단이 없어야 적군이 연대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계단이 없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돌을 잡고 올라갔을 것이라는 등 어떻게 올라갔을 지에 대해서 상상했다. 사실 거의 모든 연대에는 계단이 있다.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바로 알려주지는 않았다. 교사인 내가 여러 사례를

접하고 관련 자료를 찾았듯이 학생들도 스스로 알아가는 단계를 밟아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둠 안에서 연대라는 주제가 얼마나 뜨거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는지 모둠 토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같은 질문에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였고, 이 덕분에 토론이 가능했다. 주어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얻고자 하는 호기심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 제대로 알고자 하는 욕구와 태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이 모두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이 제출한 모둠별 활동지 중에서 재미있는 생각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 ‘연대의 모습이 다 사각형일까’에 대한 것이었다. 1모둠 학생들이 열띤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1모둠 걸을 뜰 수가 없었다. 1모둠 학생들은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며 제주도에는 사각형 모양의 연대만 있을지, 다른 모양의 연대도 있을지 토론을 했다. 1모둠이 제출한 활동지에는 결과적으로 사각형 모양의 연대만 그려져 있지만 토론 과정에서는 동그란 모양도 함께 그려 사람이 네 방향을 보도록 했다. 1모둠 학생들은 사각형이어야만 정해진 방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원 모양이어도 볼 수 있는 것인지로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2명은 반듯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야만 내가 보려는 방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2명은 동그란 모양이어도 보려는 방향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림 III-19] 연대의 모양에 대한 1모둠 학생들의 의견과 이유

1모듬 학생들의 토론은 제주의 연대들 중에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사각형 모양 밖에는 없다’는 확신과 ‘사각형 이외의 다른 모습을 가진 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로 이어졌다. 연대는 사각형 모양만 있는지 아니면 둥근 모양도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뒤에 <제주의 방어 유적> 특별전 체험학습을 통해 비로소 해소할 수 있었다.

2) 끊임없이 연대를 만나며 깊이 더하기

모든 모듬에서 계단 문제를 궁금해 했기 때문에 다음날 전체 공유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는 원래부터 계단 없이 만들었던 것일까, 아니면 사라진 것일까 이게 문제였다. 지금까지의 사례가 3개이므로 배령연대에만 계단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에도 원래 계단이 있었는데 복원이 안 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학생들이 직접 보지 못한 다른 연대의 사진을 몇 개 더 보여주려고 하였다.

많은 연대들 중에서 전날 다녀온 애월연대-남두연대와 연결되어 있는 연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연대로 통신을 하였기 때문에 ‘우지연대-(귀덕연대)-애월연대-남두연대-조부연대’로의 연결을 생각해볼 겸 우지연대([그림 III-20])와 조부연대([그림 III-21])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귀덕연대는 터만 남고 연대의 모습이 전혀 남지 않아 귀덕연대 대신 우지연대로 보여주었다. 실제로 우지연대와 애월연대가 직접 신호를 보내면서 귀덕연대는 통신 기능을 잃었다고 한다.²⁴⁾

24) ‘이 연대는 동쪽으로 애월연대와 서쪽으로 동리의 진질 마을의 우지연대와 서로 교신하였다. (중략) 언젠가 애월연대와 우지연대가 서로 교신하게 되면서 귀덕연대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이 연대터에 월대(月臺)를 구축하여 망해대라 이름 짓고 바다를 바라보며 시인 묵객들이 모여들어 한시를 짓고 시조를 읊었던 장소로 활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7년 5월 북제주문화원에서 세운 귀덕연대 안내표석)



[그림 Ⅲ-20] 우지연대 사진 자료

출처: 고영철의 역사교실.(n.d.). '우지연대' [<http://jejuhistory.co.kr>](2015. 11. 5)

*○부분은 연구자 표시



[그림 Ⅲ-21] 조부연대 사진 자료(연구자 촬영, 2015. 11. 1)

*○부분은 연구자 표시

[그림 Ⅲ-20]과 [그림 Ⅲ-21]과 같이 우지연대와 조부연대 모두 계단이 있음을 보고 학생들은 [그림 Ⅲ-22]처럼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의 윗부분에 2~3개 정도의 계단 모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림 Ⅲ-22]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윗부분의 계단 모양(연구자 촬영, 2015. 11. 1)

*○부분은 연구자 표시

왜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에는 아랫부분부터 계단이 없었던 것일까? 두 연대에만 특별히 계단을 만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계단이 있었는데 복원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여전히 분분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올라가지 못하게 처음부터 계단이 없었고 사다리, 밧줄로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했었다’라는 생각에서 ‘원래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졌을 것이다’로 생각이 기울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연대 사례가 필요했다. 계단의 유무에 대한 궁금증 또한 앞서 나왔던 연대의 모양에 대한 궁금증과 마찬가지로 뒤에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체험학습을 통해 풀 수 있었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에 비해 배령연대에 대한 느낌은 어땠는지 물었다. 너무나도 새 것이었다는 게 모두의 대답이었다. 전날 연대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이

야기 나누면서 ‘연대나 봉수와 같은 제주의 방어유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라는 활동지를 주었었다. 학생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수혁)’, ‘연대와 봉수를 더욱 아끼고, 관심을 가져서 사람들도 연대와 봉수를 알게 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루다)’, ‘연대와 봉수를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알고 사랑해야 한다(아미)’ 등으로 답했다. 연대를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진짜 마음으로 걱정한다기보다는 기계적인 대답인 것 같아 각 연대들의 구체적 문제점들부터 생각하도록 했다.

나는 학생들과 각 연대들의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았다. 애월연대는 옛날의 분위기는 남아있지만 곧 무너질 것 같이 위태위태했고, 남두연대는 안내판 없이 길거리에 방치되었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배령연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배령연대의 복원 전후 사진 자료를 이용하였다. 배령연대의 현재 모습을 먼저 보여준 뒤 복원 전 사진 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변형 복원된 배령연대(2008. 7. 20)

복원 전 모습(1998)

복원 전 모습을 보면 상부도 많이 무너져 산봉우리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 고용반씨(1926년생)의 증언에 따르면 하단과 상단의 직경 차이가 별로 없는 원기둥에 가까운 원뿔대 모양이었다고 하며, 맨 위에는 70cm 정도 높이의 방호벽이 있었다고 한다. 이 방호벽은 발담처럼 외담이었지만 비바람이 치면 쪼그려앉아 비를 다소 피할 수 있는 높이였다고 한다. 계단으로는 연대 남쪽으로 벽에 붙여 20~30cm 정도 되는 돌덩이 세 개가 겹쳐 놓여 있었다고 한다.(2008년 7월 24일 대화) 그러나 2005년 복제주군이 예산 8500만원을 들여 복원하면서 사각형 연대로 만들어 버렸다.

[그림 III-23] 배령연대 변형 복원에 대한 사진 및 설명 자료

사진 및 설명 출처: 고영철의 역사교실.(n.d). ‘배령연대’ [<http://jejuhistory.co.kr>](2015. 11. 5)
*밑줄 부분은 학생들에게 강조하여 설명함

학생들은 [그림 III-23]의 자료를 보면서 배령연대가 원래 모양대로 복원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복원 전 모습도 너무 돌무더기로 방치된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다고 했다. 이렇게 누군가 기록해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배령연대가 처음부터 네모난 모양이었다고 알았을 거라고 했다. 변형 복원되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전 모습을 잊어가는 것은 더욱 문제다. 곧 무너질 것 같은 애월연대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남두연대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은 마음, 배령연대가 변형된 것임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학생들에게 솟아났다.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제주시청 누리집에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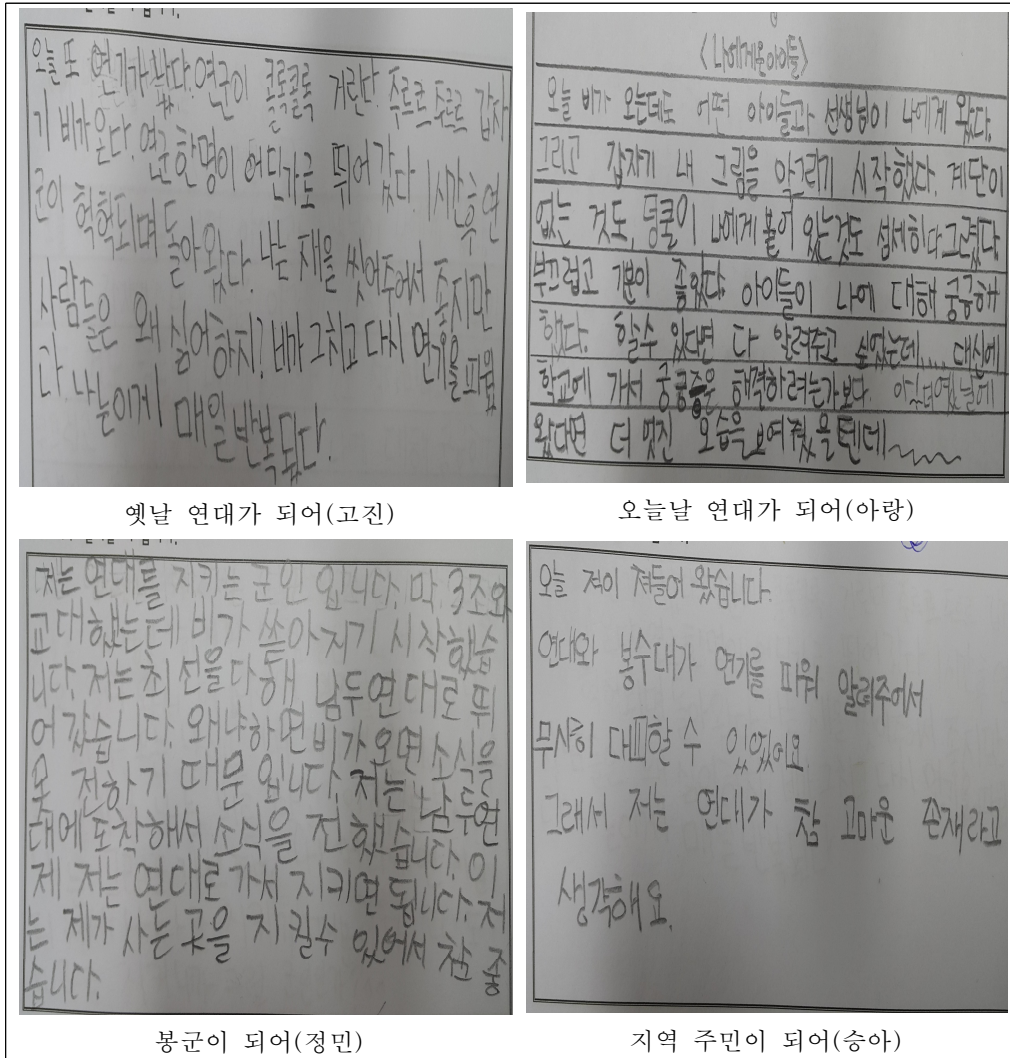
의견을 담아보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의 활동은 이렇게 계속 깊어져 갔다.

이번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발생적 질문들은 학생들이 연대를 자세히 관찰하고 안내판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이전에 <봉수씨 연대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체험한 내용과의 괴리를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학생들에게서 나온 질문들이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었으며 교사로서 몽클한 감동을 받았다. 학생들로부터 나온 질문들을 바탕으로 교사가 활동을 잘 구성한다면 학생들이 충분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3) 관찰과 탐구에서 비롯되는 ‘연민’의 감정

애월연대 안내판 안에는 역사적 사실이 들어 있었다. 학생들은 안내판을 읽고 당시 제주를 지켜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비가 오거나 궂은 날’, ‘불과 연기를 다루는 일의 고됨’이라는 부분들을 종합하여 당시 봉군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상상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이해 방식이며 개인의 정서나 감정을 상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의적인 성격도 포함한다. ‘당신이 ~이었다고 가정하고, ~을 하시오’의 수업형태가 감정이입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수업방식이다. 이러한 수업 방식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글쓰기로, 상상적 글쓰기, 묘사적 글쓰기, 일기나 연설문, 논문, 편지쓰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김한중, 2001: 738-752).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에 멈추지 않고 감정이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대, 별장, 봉군, 지역주민이 되어 그 당시 하루 일기를 써 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옛날 연대가 되어’(13명), ‘봉군의 입장에서’(6명), ‘당시 지역주민이 되어’(5명), ‘오늘날 연대가 되어’(2명), ‘체험학습을 간 오늘날의 내가 되어’(2명) 일기를 작성했다. 다음과 활동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이 밖에서 바라보던 입장이 아닌 연대 또는 인물 그 자체가 되어 감정이입해보는 결정적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24] 학생들의 일기 써 보기 활동 결과물

학생들의 쓴 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진이는 옛날 연대가 되어 일기를 썼는데, 우리가 체험을 했던 비오는 날씨를 고스란히 반영하였다. 비가 와서 자신에게 있는 재들을 씻을 수 있어 좋은데, 연군은 헉헉대며 뛰어 갔다 왔고 사람들은 비 오는 날씨를 왜 싫어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아랑이는 오늘날의 연대가 되었다. 연대를 의인화하여 연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일기에 담았다. 좀처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연대에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와서 섬세하게

그러주니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연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좀 더 과거에 와 주었다면 허물어지지 않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을 거라며 아쉬워하였다.

정민이는 봉군이 되어 일기를 썼는데 비오는 날 열심히 다음 연대로 뛰어갔는데 이런 힘들이 자신이 사는 곳을 지킬 수 있어서 좋다고 썼다. 당시에 제주를 지켜주어서 감사하다는 현재 정민이의 마음이 과거의 봉군으로 돌아가 뿌듯함으로 되살아난 듯하다. 승아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적이 오는 것을 연대와 봉수가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쓰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의 일기 안에는 연대, 봉군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들이 느꼈을 감정, 당시의 상황과 어려움이 녹아있다. 현재와 과거 사이의 거리감을 극복하고 학생들은 과거의 맥락 안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외부자의 입장에서 연대 또는 인물을 객관적 사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봉군으로서 저절로 지치고 연대에 연기에 피어오르는 장면이 보이는 것이었다.

배령연대 체험학습 후 교사는 봉군들이 비루하고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고 그들을 멋진 사람으로만 기억하게 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했는가?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봉군을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해서도 안 되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연대를 다시 보러 갔을 때 학생들이 안내판을 자세히 읽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은 안내판을 자세하게 읽음으로써 연대와 봉군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봉군이 멋지다’라는 느낌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인 나는 상상일기 쓰기를 통해 관찰을 바탕으로 둔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이 연대, 연군 혹은 봉군의 입장이 되어 감정이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식과 정서는 외부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주제에 공감하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또 다른 질문의 생성: 연대가 이어져서 어디로 가는 걸까?

학생들에게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의 계단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지연대와 조부연대 사진을 제시했었다. 칠판에 제주도 그림을 그려 이제까지 배

운 연대들을 점으로 표시하고 해안선을 따라 연결해 가니 학생들은 그 다음 연대는 뭐냐며 궁금해 하였다. 나는 제주도에는 9진 25봉수 38연대가 있었다는 설명을 자연스레 하였고 학생들도 이 설명을 전혀 어색해 하지 않았다. 우지연대에 연기가 하나이면 귀덕연대도 1개, 애월연대에도 1개, 남두연대에도 1개, 조부연대에도 1개, 그리고 용담해안도로에 수근연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1개가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설명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라고 질문이 나왔다. “이렇게 연결되면 마지막에 누가 연기를 확인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하며 학생들의 궁금함을 더 끌어올렸다. “제주도를 다스리는 사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목이라서 제주목사가 있는 곳으로 연락이 닿도록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곳의 이름은 ‘제주목 관아²⁵⁾’라고 칠판에 쓰며 알려주었다. 학생들은 이곳에 대해 처음 들었고 신기해 하였다. 제주도의 옛 이름이 제주목이라는 것도 새로운 정보이지만, 이곳으로 진짜 연대와 봉수의 신호가 가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해 하였다. 이제 우리의 체험 장소는 제주목관아이다.

3. 제주목관아

: 연대가 이어져서 어디로 가는 걸까?

가. 체험학습 계획하기: 우리가 만든 제주목관아 체험

학생들은 연대와 봉군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 연대의 연결 체계의 실상을 궁금해 했다. 사실 나도 우리들의 체험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연대가 서로 점점 연결되는 만큼 학생들도 제주도의 옛날과 점점 더 연결되고 있었다. 이제 ‘제주목’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하고, ‘제주목사’가 제주도에서 군대 사령관의 역할까지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제주도에 있

25) 칠판에 일부러 ‘제주목 관아’라고 적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사람들은 보통 ‘제주목관아’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로 만든 관아가 아니라 제주목의 관아이기 때문에 ‘제주목 관아’로 썼다”고 설명해주었다. 몇 번 ‘제주목 관아’라고 띄어쓰기를 하며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한 뒤에는 ‘제주목관아’라고 붙여 사용하였다.

는 25봉수 38연대가 서로 연결되어 제주목관아로 닿는다'라고 설명을 끝맺었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일인가? 학생들은 애월연대-남두연대로 이어지는 상응연대를 직접 보고, 이와 또 연결되는 조부연대와 우지연대의 사진 자료까지 보고 나니 연결의 끝을 직접 알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제주목관아에 가서 학생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지 염두에 두고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목관아 체험학습은 보통 '제주목관아는 무슨 일을 했던 곳일까?'란 물음을 가지고 목관아 내의 각 건물의 쓰임을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 체험학습의 목적은 이와 다를 수밖에 없다. 방어와 관련하여 제주목사의 역할을 알아야 하고, 연대와 봉수가 어디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대와 연결된 도원봉수(도두봉)와 사라봉수의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제주목관아에서 제일 높은 곳인 망경루(望京樓)이다. 망경루는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곳이지만, 목관아 내에서 가장 높은 2층 건물로 망을 볼 수 있는 초소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해안선을 바라보며 외적의 동태를 감시하였다는 망경루에서 사라봉수를 확인하는 게 일차 목표였다. 사라봉에서는 제주목관아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목관아 내 망경루에 오르니 사라봉 정상에 있는 정자가 바로 눈에 보였다. 그 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었다. 나는 이제껏 제주목관아에 여러 번 갔어도 한 번도 사라봉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지 못했었다. 건물에 가려 도두봉은 볼 수 없었지만 해안선 왼편에는 바로 도두봉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을 그려보니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 혼자 확인하면서도 기뻐지만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이를 확인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설레었다. 지금까지 체험학습 한 내용과 관련지어 학생들이 목관아에서 스스로 탐구하고 동료 친구들과 의논하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또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목관아를 둘러보았다.

목관아 입구 옆 회랑에는 제주도의 고지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고지도들에 연대, 봉수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지금이야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로 제주관광지도나 행정구역도를 많이 보지만, 옛날에는 관광명소 소개보다는 방어적인 목적에서 지도를 그렸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낼 수 있었으면 했다. 또한 이형상 목사가 그렸다는 탐라순력도가 전시된 곳도 살펴보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주목관아 건물들 중에서 그나마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관덕정도 자

세히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제주목관아에 왔으니 제주목과 제주목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들어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이 곳 관계자에게 문화해설사와 20~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갖되 퀴즈 형식으로 재미있게 진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연대로 인해 생긴 학생들의 궁금증도 해결하고 또 다른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이 준비되었다. 학생들과 나로부터 나온 탐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둘씩 진행되는 활동이 즐거웠다. 학생들도 체험학습 안내문을 받으면서 탐험을 떠나는 양 충만한 의지를 보였다.

나. 체험학습 실행하기

이번 체험학습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나눠 준 활동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늘날의 관덕정 모습을 그리고 <공마봉진(貢馬封進)> 속 관덕정 모습과 비교하기 ② 옛 고지도들의 공통점 찾기 ③ 망경루에 올라 사라봉을 본 느낌 작성하기 ④ 탐라순력도를 살펴보고 알 수 있는 점 정리하기 ⑤ <한라장축(漢拏壯囑)>에서 제주목의 위치를 제주도 지도의 위쪽(북)이 아니라 아래에 그린 이유 생각하기 등이다. 제주목관아의 입구에서부터 제일 안쪽의 건물에 이르는 순서에 따라 탐구 문제를 만들었을 뿐, 해결 순서는 온전히 학생들이 정하도록 했다.

1) 문화해설사와 함께 ‘제주목’, ‘제주목사’ 만나기

전문가를 만나 자신들이 모르는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해설사와의 만남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설사의 진행에 무조건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시간도 배정하였고, 우연당(友蓮堂)→홍화각(弘化閣)→연희각(延曦閣)→굴림당(楡林堂)→망경루(望京樓) 1층 탐라순력도 체험관 입구로 이동하며 ‘제주목과 제주목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해설사의 제주목관아 장소별 설명 장면과 내용

장소	장소별 설명 장면	설명 내용
우연당 (友蓮堂)		<p>해설사가 제주도의 옛 이름은 제주목이고, 제주도 전체를 다스리던 사람이 제주목사라고 설명하였다. 우연당은 연회 장소이므로 목사가 멋진 행사용 한복을 입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붕 처마에 있는 부시(철망)를 가리키며 왜 이런 게 있는지 퀴즈를 냈다. 새가 등지를 틀어 뱀이 살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돌 벽은 왜 지었을까도 퀴즈로 냈다. 학생들은 제주도가 바람이 많아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잘 맞혔다.</p>
홍화각 (弘化閣)		<p>홍화각에서 해설사는 제주목사가 제주의 진상품을 검사하는 역할, 군대 사령관의 역할, 제주도 전체 행정의 일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역할에 따라 제주목사가 다른 옷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서는 걸쇠의 역할을 퀴즈로 냈다. 여름철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문을 천장의 걸쇠에 걸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건물의 규모는 나무 기둥이 있는 사이를 세어 앞 5칸, 옆 4칸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알려 주었다.</p>
연희각 (延曦閣)		<p>연희각 건물의 옆으로 돌아 해설사가 돌계단 위에 올라 학생들을 내려다보았다. 재판관의 역할도 했던 목사가 죄인을 심판할 때 죄인이 높은 곳에 있는 목사를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 수 있도록 계단을 높게 만들었다고 설명해주었다. 학생들도 위를 올려다보니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p>

문화해설사는 굴림당에 있는 하얀 한복을 입은 제주목사 마네킹을 가리키며 시와 바둑을 두며 쉬기도 했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망경루 1층에 있는 탐라순력도 특별관을 안내해주며 제주도에 왔던 이형상 목사가 그린 탐라순력도의 장면들이 전시되어 있다며 이 날의 간략한 설명을 끝냈다.

2) 오늘날의 관덕정 모습을 그리고 옛날 관덕정과 비교하기

1999년에서 2002년에 걸쳐 제주목관아가 복원되기 이전부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건물이 관덕정이다. 관덕정은 1702년 화공 김남길이 그린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 속에도 나오는 장소이다.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주고 지금의 관덕정 모습을 그려보게 하면 300여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옛날과 오늘날의 관덕정의 변화 모습을 비교할 수 있을 거라 보았다.



[그림 III-25] 지금의 관덕정과 『탐라순력도』 <공마봉진> 속의 관덕정 모습
출처: 지금의 관덕정(연구자 촬영, 2015. 11. 11), <공마봉진>(제주특별자치도, 2008: 5)

학생들은 목관아 입구 광장에서 관덕정 정면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공마봉진>이라는 그림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관찰, 비교, 추측 등을 적어보았다.

- 옛날에 비해 관덕정 무늬와 색깔도 약간씩 다르다. 하지만 옛날과 2015년의 관덕정 깃발은 똑같다.(서린)
- 오늘날의 관덕정은 화려한 무늬와 색깔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
(구름)
- 같은 점은 기와의 모양이 똑같고, 다른 점은 기둥의 수가 다릅니다.(루다)
- 지금은 진상을 안 한다. 그리고 같은 점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준서)
- 옛날에는 진상하는 것을 관덕정에서 검사를 했구나. 옛날은 목관아지를 함부로 안 들어온 것 같다.(소현)
- 공통점: 예전같이 건물이 세워져 있다. 차이점: 옛날처럼 낮지 않다.(유빈)
- 깃발이 비슷한 것 같고 옛날 관덕정은 넓은데 현재의 관덕정은 작다.(상록)
- 이름판(관덕정)이 1702년에는 없고 2015년에는 있다.(아미)
- 모습이 비슷하다. 예전 건물이랑 거의 똑같다.(명진)
- 옛날에는 화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화려함.(동훈)

학생들은 오늘날의 관덕정이 옛날과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붕의 모양, 마당이 있는 모습, ‘帥’자가 쓰인 노란 깃발이 똑같다고 했다. 그러나 기둥의 개수가 다르고 지금은 기와와 기둥이 모두 화려하지만 예전에는 밋밋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관덕정 마당에서 실시하였던 말 진상을 위한 검사가 이젠 사라졌고, 예전에는 없었던 현판이 오늘날에는 새로 생겼다는 변화의 모습을 찾았다. 오늘날 관덕정만 봤다면 비교를 통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 자체의 특징만 살펴봤을 것이다. 사료가 있었기에 관덕정이 담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공마봉진>에서 제주목사가 관덕정 안에 위 아래로 꼭 끼게 그려진 모습을 보고 관덕정이 낮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3) 제주 고지도들의 특징 알아내기

제주목관아 입구의 회랑에는 제주의 고지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주, 고지도 속에 담겨지다’라는 주제로 제주의 모습들을 그린 고지도들이 시간 순으로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에는 제주목의 모습을 나타낸 1600년도의 <여지도>에서

부터 1914년 이후 <탐라약도>라는 지도까지, 지도 이름과 제작년도, 보관 장소들이 적혀있다. ‘고지도에는 제주의 행정구역, 방어시설, 자연, 생활상을 담고 있어 통치와 지역방어, 그리고 특산물 조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 목적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고지도 전시에 대한 개략적 설명도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은 고지도 안내 설명보다는 [그림 III-26]처럼 지도 하나 하나에 주목하면서 모둠원들과 이야기 나누며 고지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그림 III-26] 제주목관아에 전시된 고지도들과 이를 탐구하는 학생들

고지도 사진 출처: 연구자 촬영(2015. 11. 11)

*시간의 순서에 따른 전시임을 보여주기 위해 1세기마다 1개의 지도를 예시로 제시함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고지도들이 지금과는 달리 손으로 그려졌다는 점, 봉수와 연대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 제주목의 위치가 아래에 그려졌다는 점들을 알아냈다.

- 위성사진 등으로 지도를 만들지 않고 직접 그려서 지도를 만든다.(승학)
- 제주 옛날 지도에서는 모두 다 목관아, 연대, 봉수가 다 표시되어 있다.(루다)
- 제주목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북쪽인데 남쪽으로 그려져 있다.(준혁)

학생들은 봉수와 연대를 배웠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볼 수 있었다. 제주 고지도에는 [그림 III-27]처럼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봉수와 연대가 제주도를 빙 둘러 불타고 있는 모습(, )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III-27] 고지도 속 연대와 봉수의 모습

지도 출처: 제주목관아 회랑에 전시된 고지도를 연구자가 촬영(2015. 11. 11)

*봉수와 연대에 연구자가 ○표시

학생들은 이미 학교 주변의 모습을 그림 지도로 그리는 활동을 할 때 그림 기호를 배운 적이 있었고 봉수와 연대의 이미지를 떠올렸기 때문에 이 시설물 기호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교사에게 달려와서 “저희 알아냈어요”라고 말할 때 학생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해 미칠 것 같았

던 수수께끼를 풀어낸 듯 속 시원하면서도 짜릿한 흥분, 자세히 관찰하고 고지도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추려 나가는 과정에서의 지적 만족감, 서로 의논하며 친구가 말하는 내용의 진위를 가려내려는 활동 속의 신중함 등을 거쳤을 것이다.

4) 망경루에 올라 사라봉수 확인하기

망경루는 2층이기 때문에 함께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사라봉의 정상 부분에서 봉수가 타 올랐을 것이므로 가장 위에 있는 정자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제주목관아 망경루에서 과연 사라봉이 보일 것인가? 학생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망경루에서 동쪽 먼 곳을 살펴보았다. “보인다, 보인다”라는 목소리가 연신 들려왔다.



[그림 III-28] 망경루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라봉 정상의 정자 모습

학생들은 사라봉의 정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학생들은 사라봉의 정상에 있는 정자를 확인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작성하였다.

- 제주목사가 있는 관아까지 전달될 것 같았다.(남광)
- 사라봉이 가까이 있고 잘 보였으니까 밤에 신호가 아주 잘 보였을 것 같다.(아미)
- 우리가 정말로 봉수를 보는 듯해서 옛날 당시에 온 느낌이었다.(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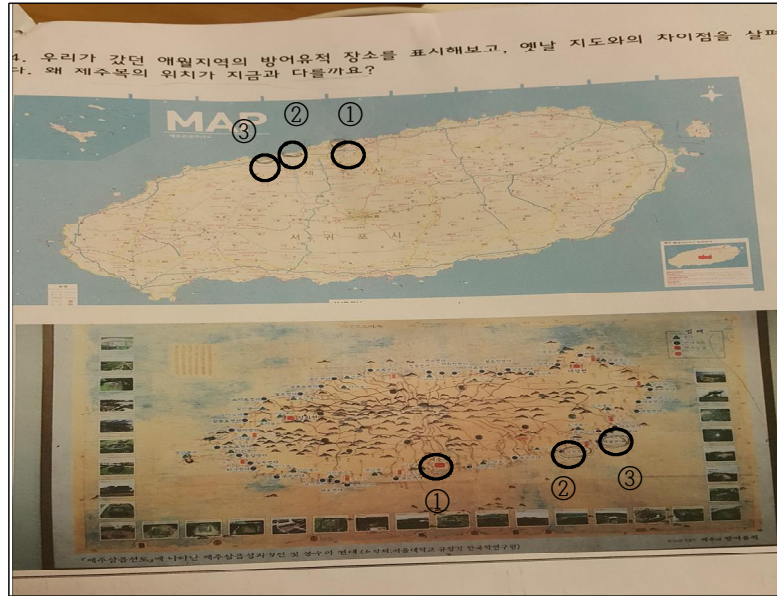
- 사라봉수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밤 때 불을 피우면 잘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상록)

이 외에도 학생들은 ‘사라봉을 확인하니 진짜 봉수가 전달되었을 것 같다’, ‘나라(제주)를 잘 지켰을 것 같다’, ‘봉수의 연기와 불을 잘 확인했을 것이다’와 같이 적었다. 제주도 지도에서 상상만으로 연대와 봉수를 연결해 보다가 그 도착점을 직접 발견했다는 것은 지적 쾌감을 주었다. 또한 연기가 타올랐던 연대, 봉수의 옛날 모습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다.

사라봉수의 신호를 대신하여 사라봉 정상에 정자를 확인한 후, 망경루의 서쪽 측면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지금은 건물이 바싹 붙어있어서 못 보지만 여기서 도원봉수 즉, 도두봉의 연기도 먼 거리지만 확인이 가능했을 테니 한 번 상상해보라고 했다.

5) <한라장축>에서 제주시, 제주목관아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 이유 알아내기

2015년 11월 5일, 애월연대, 남두연대 체험학습을 다녀온 당일에 학생들에게 <제주관광지도> 및 <제주삼읍전도>(1872)를 주고, 우리가 다녀온 연대의 위치를 표시해 보라고 하였다. 이 지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방어유적의 위치가 모두 표시되고 각 유적별 명칭이 한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시의 위치도 표시하여 확인해 보라고 했다. 학생들은 [그림 III-29]처럼 제주목, 남두연대, 애월연대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지도에 표시한 것을 확인해보니 <제주관광지도>에서 제주시는 위에 있는데, <제주삼읍전도>의 제주목은 아래에 있었다. 학생들에게 “왜 제주목(제주시)이 옛 지도에는 아래쪽에 위치할까?”라고 질문하였다. 제주목, 제주시 둘 다 북쪽(위쪽)에 위치해야 하는데 왜 위아래 반대로 놓였는지를 물었던 교사의 의도와 다르게, 당시 학생들은 ‘왜 지도가 잘못 그려졌을까’라고 고민하였다.



[그림 III-29] 제주목이 아래에 그려진 고지도를 처음 제시한 활동지(2015. 11. 5)
 출처: <제주관광지도>(상)(제주관광공사, 2014), <제주삼읍전도>(하)(<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전시물 연구자 촬영(2015. 10. 31)
 *학생들이 표시한 ①제주(목), ②남두연대, ③애월연대를 연구자가 다시 ○와 번호로 표시하여 제시함

‘옛날 지도는 누구를 위한 지도였을까’라는 질문으로 교사가 힌트를 주었지만 학생들은 이것만으로는 제주목의 위치가 지도의 아래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제주삼읍전도>에서 보이는 제주도의 타원형 윤곽 형태가 지금의 <제주관광지도>와 같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왜 제주목의 위치를 잘못 그렸을까’만 생각했던 것이다. 제주도의 전체 모습은 잘 그려놓고, 제주목의 위치는 잘못 그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대의 위치들도 제주목처럼 지금의 지도와 상하좌우로 대칭되게 그렸으므로 왜 이렇게 그렸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했던 것이다. 교사는 그 이유를 먼저 밝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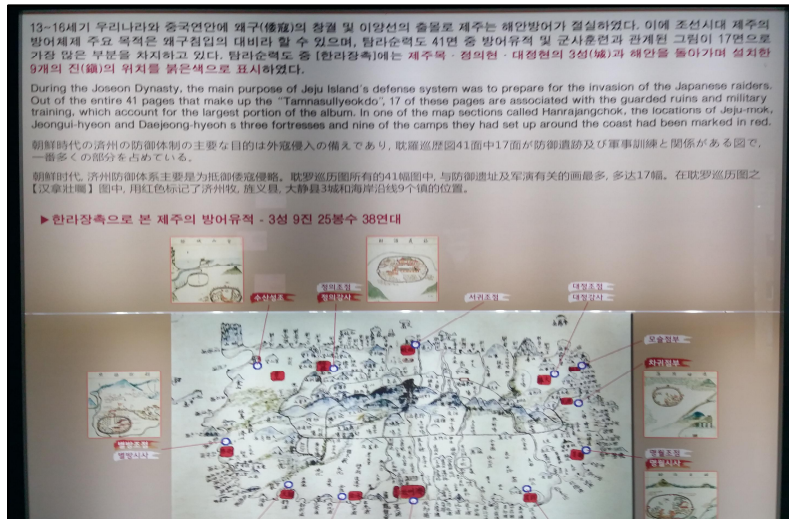
나는 지난 애월연대, 남두연대 체험학습 후 학생들이 가졌던 ‘옛날과 오늘날 지도에서 연대와 제주목의 위치가 상하좌우로 바뀐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이번 제주목관아 활동지에 다음의 <제주삼읍전도>의 모습을 다시 넣었다.



[그림 III-30] 활동지의 자료로 다시 사용된 <제주삼읍전도>

출처: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전시물 연구자 촬영(2015. 10. 31)

<제주삼읍전도> 그림 아래에 탐라순력도 체험관에 전시된 <한라장축>을 보면서 왜 제주목을 아래(남쪽)에 표시했는지 모둠별로 생각하여 적도록 했다.



[그림 III-31] '탐라순력도 체험관'에 전시된 <한라장축>(연구자 촬영, 2015. 11. 11)

“누구를 위한 지도였을까?”라는 지난번 질문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 지도는 누가 봤을까?”라는 질문으로 힌트를 주었다. 학생들은 “누가 봤지?”를 되뇌며 계속 이야기 나눴다. 나는 “이 귀한 지도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과연 봤을까?”라는 질문으로 힌트를 덧붙이기도 했다. “왕?”이라는 말이 학생에게서 나오면 “생각 잘했네”라는 반응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드디어 어느 한 모듬이 알아내는 듯하더니 이내 쉬쉬거리면서 다른 모듬이 또 알아내는 듯했다. 학생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 육지에서 제주도를 보면서 그리기 때문이다.
- 목사가 제주를 육지에서 본 위치가 다르다.
- 육지에 있을 때 관찰 장소가 달라 거꾸로 보였을 것 같다. 임금을 위한 지도이다.
- 서울(육지)에서 그리면 제주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그려진 것 같다.

‘육지에서 제주를 보며 그렸다’ 정도는 맞겠지만, ‘목사가 육지에서 그렸다’거나 ‘목사가 육지에서 제주를 봤다’고 정리한 것은 수정이 필요할 듯 싶었다. 이를 위해 학교로 돌아와 한 일은 [그림 III-32]처럼 학생들에게 사회과부도의 지도를 거꾸로 돌려서 임금이 있었던 서울에서 제주도를 내려다보게 하는 것이었다. 남쪽을 아래로, 북쪽을 위로 생각하는 절대적인 위치 개념이 아니라 임금이 중심이 되는 위치 개념인 것이다.²⁶⁾

26) 제주시탐라순력도 누리집(<http://tamnamap.jeju.go.kr/contents/tamnainto/map.php>)에서 ‘조선시대의 지도는 궁궐이 있는 한양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제작된 경우가 많다.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 역시 마찬가지여서, 현재지도와는 달리 남과 북의 방향이 거꾸로 제작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양식은 일본이나 유구국(지금의 오키나와)을 그린 지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오상학, 2004: 135). 이에 반해 육지부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강진을 나타낸 <강진현지도>(1872)는 지금의 지도처럼 남쪽이 아래, 북쪽이 위로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더라도 육지의 최남단 지역인 강진과 제주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II-32] 서울에서 내려다 본 제주

출처: 사회과부도(교육부, 2015)의 전도

*좌측 지도는 서울 부근에서 제주도(○표시)를 내려 보며 연구자가 촬영한 것으로 원래 지도의 지역별 크기가 다소 다르게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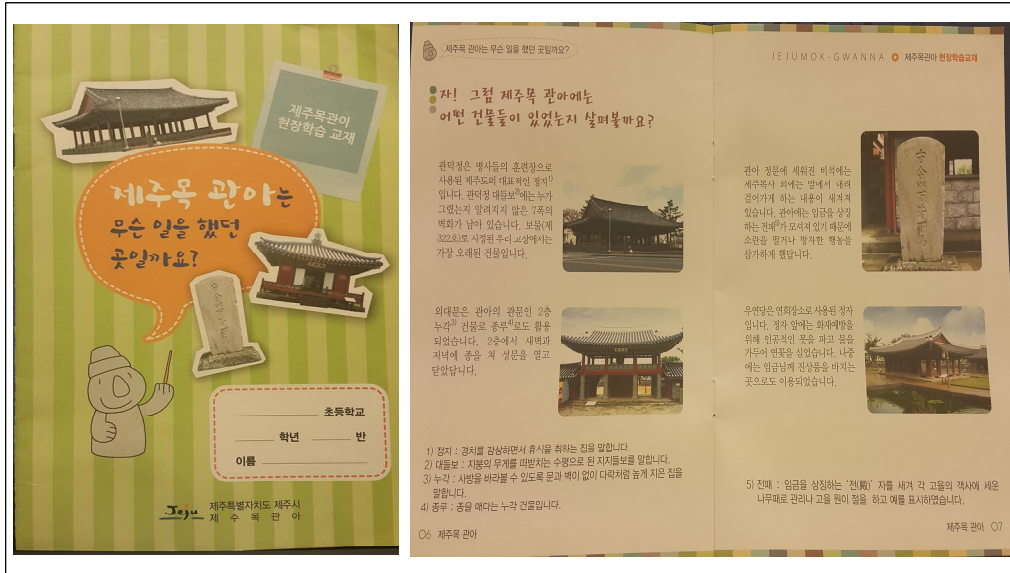
당시 중앙의 시선으로 제주를 보면 [그림 III-32]의 우측 지도처럼 임금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제주목, 즉 제주도 북쪽에 위치한 제주시가 된다. 이제 학생들은 지금의 지도와 다르게 옛날의 지도에서는 제주의 모습이 상하좌우로 바뀌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 고지도 속에 제주목의 위치가 잘못 그려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있는 위치를 서울로 가정하고 임금의 관점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활동을 통해 지도가 잘못 그려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 활동으로 알게 된 고지도 속 제주의 모습에 학생들은 놀라움뿐만 아니라 ‘이제 알아냈다’라는 뿌듯함까지 느껴졌다.

다. 체험학습 되돌아보기

1) 우리의 목적에 따라 체험의 모습이 달라지다

제주목관아 체험학습은 보통 제주목관아 측의 주도로 진행되며, 제주목관아의 문화해설사가 제주목과 제주목사의 역할, 각 건물의 명칭과 의미를 알려주는 데

집중한다. [그림 III-33]은 그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현장학습 교재이다.



[그림 III-33] 제주목관아에서 제공하는 현장학습 교재

학생들에게 ‘제주목’과 ‘제주목사’는 낯선 개념이었지만 제주의 연대를 배우는 맥락에서 필요한 기본 지식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가 제주목관아를 찾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제주의 연대, 봉수가 다다른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 연대의 연기를 누가 확인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 ‘제주목’과 ‘제주목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위지는 것, 연대와 봉수가 그려진 제주의 고지도를 읽어내는 것, 임금 위주의 시선으로 고지도가 그려졌던 사실 알아내는 것, 『탐라순력도』 속의 옛날 제주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까지 체험학습의 목표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제주목관아에 대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수동적으로 듣는 시간은 줄이고, 연대와 관련하여 학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그 덕분에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도 우리의 힘으로 관찰하고, 지금의 제주 모습과 비교할 수도 있었다.

우리만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제주목관아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활동하면서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정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해당 장소에서 천천히 관찰하고 생각했다. 우리가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했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가려낸 덕분이다. 체험학습의 주체가 온전히 교사와 학생이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설명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를 스스로 짚어갈 수 있는 체험이 되었다.

2) 궁금증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번 체험학습은 제주 역사를 더 잘 알기를 바라는 교사 혼자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체험학습이거나, 기관에서 제주목관아에 대한 학생들의 앎을 채워주기 위해 실시한 체험학습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제주목과 제주목사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제주목관아를 가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제주목관아 체험학습에서 알게 된 점을 작성해보도록 했다.

제주목관아, 다녀오다	
3학년 이름()	
* 체험과 탐구활동으로 알게 된 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알게 되면서 느낀 점도 연결지어 적어봅시다. (날씨, 제주목, 목사, 옛날 지도 속 제주, 발라순력도 등등)	
1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다.
2	탐라순력도를 알았다.
3	옛날 지도가 고지도라는 것을 알았다.
4	망경루에서 사라봉(수)가 보이는 것을 알았다.
5	현장에 쳐있는 철이 부시라는 것을 알았다.
6	연회각이 재판을 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다.
7	경사에는 무엇을 경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8	해마다 왜 아래에 있는지 알았다.
9	목관아에 불이 날 때 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10	목관아가 제주도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알았다.
11	굴림당에서 목사가 쉬면서 시도 짓고, 바둑도 두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12	부시가 집집마다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13	우리 집들은 몇 평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기둥을 보면서 집이 크고 작고를 알았다.

[그림 III-34] 제주목관아에서 지혜가 알게 된 점

제주목관아, 다녀오다

3학년 이름()

* 체험과 탐구활동으로 알게 된 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알게 된다는 느낀 점도 연결 지어 적어주세요. (방어, 제주목, 목사, 옛날 지도 속 제주, 탐라순력도 등등)

1	오늘날 제주도는 옛날의 제주목인걸 알았다.
2	망경루에서 올라가면 사라봉이 보이는 걸 알았다.
3	관덕정은 앞에 5칸이고 옆에 4칸인 걸 알았다.
4	제주목사까이는 힘이 많았을 알았다.
5	각각 집마다 결쇠가 있는 걸 알았다.
6	제주목사 쉬고 놀는 데가 있는 걸 알았다.
7	집 천장에 짚뿔이 걸려있고 몰아서 없게 하는 부시가
8	사라봉 정자가 있는 걸 알았다.
9	제주도는 육지에서 그려서 거꾸로 되어 있는 걸 알았다.
10	목사 제단 앞 돌보기를 목사하는 일이 된 걸 알았다.
11	목사는 옷을 여러 개 바꿔서 입는 걸 알았다.
12	공마봉진에서 말을 키우는 걸 알았다.
13	

제주목관아를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걸 알았다.

1. 오늘날 제주도는 옛날의 제주목인걸 알았다.
2. 망경루에 올라가면 사라봉이 보이는 걸 알았다.
3. 관덕정은 앞에 5칸이고 옆에 4칸인 걸 알았다.
4. 제주목사가 하는 일이 많은 걸 알았다.
5. 각각 집마다 결쇠가 있는 걸 알았다.
6. 제주목사가 쉬고 노는 데가 있는 걸 알았다.
7. 집 천장에 제비가 집 짓지 말고 똥 싸지 않게 하는 부시가 있는 걸 알았다.
8. 사라봉에 정자가 있는 걸 알았다.
9. 제주도는 육지에서 그려서 거꾸로 되어 있는 걸 알았다.
10. 목사가 제판, 말 돌보기 등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았다.
11. 목사는 옷을 여러 개 바꿔서 입는 걸 알았다.
12. 공마봉진에서 말을 키우는 걸 알았다.

[그림 III-35] 제주목관아에서 하준이가 알게 된 점

지혜와 하준이는 알게 된 것을 적을 때, ‘제주목’, ‘제주목사’, ‘결쇠’, ‘부시’, ‘굴림당’, ‘연희각’, ‘망경루’, ‘목관아’, ‘관덕정’, ‘공마봉진’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다른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지에는 지혜와 하준이가 사용한 단어들 외에 ‘제주목관아지’, ‘이형상 목사’, ‘진상(굴과 말)’, ‘고지도’, ‘연대와 봉수’, ‘탐라순력도’ 등 어려운 용어들이 나타나 있었다. 대부분 학생들은 지혜와 하준이처럼 알게 된 내용 10여 개의 문장으로 거뜬히 정리하였으며, 이 안에는 자신들이 행동했던 것, 들었던 것, 본 것들이 들어있었다. 학생들이 알게 된 내용들 중에서 ‘제주목사’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려보았다.

- 목사가 노인들과 같이 파티를 하는 모습이 좋았다.(도연)
- 목사가 굴림당에서 쉬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동훈)
- 제주목사가 제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랬다는 그림이 탐라순력도인 걸 알았다.(상록)
- 제주목사가 임금에게 굴과 말을 바쳤다.(아미)
- 굴림당은 옛날 목사가 바둑이나 시를 지으며 쉬는 곳이란 걸 알았다.(서린)

- 제주목사는 제주도의 모든 일을 맡았구나.(남광)
- 제주목사가 일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쉴 때 옷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정민)
- 목사가 잘못하거나 제주도를 못 지키면 해고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현이)
- 목사가 재판하는 방은 계단이 높은 걸 알았다.(아현)
- 제주목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구름)
- 목사는 제주사람이 아니라 육지에 살던 사람이다.(아랑)
- 제주목사는 지금의 도지사라는 걸 알았다.(준서)

학생들이 서술한 문장들을 통해 장소가 학생들의 기억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처럼 문화해설사와 함께 제주목관아의 건물을 다니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주로 장소를 떠올리며 목사의 역할을 기억했다. 우연당에서 앞뜰과 연못을 보면서 들었던 연회를 베풀던 목사의 모습, 홍화각에서 수많은 업무를 하는 목사의 모습, 연희각을 돌아 높은 돌 위에서 재판을 하던 목사의 모습, 굴림당에서 하얀 옷을 갈아입고 바둑이나 시를 쓰며 쉬었던 목사의 모습이 학생들의 설명에 나타났다. 학생들이 특정 사항을 기억하는 데 있어 본인들이 위치했던 장소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은 그 장소에서 보고 듣고 깨닫기 때문에 사실 습득 및 기억에 유리했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3일 뒤에 작성했음에도 이와 같이 많은 정보를 기억했다는 것은 장소 요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강력한 학습 욕구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목관아를 찾아갔을 때 학생들은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었으며 여러 탐구 문제들에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했었다. 당장 배운 사회 교과서의 일반적인 개념 1~2개의 용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교실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체험학습을 통해 학습한 용어, 개념, 이미지가 전문적인 수준에 이른다는 점에서 내재적 학습 욕구의 놀라운 효과를 알 수 있다.

3)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내니 탐구가 즐겁다

학생들은 제주목관아의 망경루에 올라 사라봉수의 위치를 눈으로 직접 보고 도원봉수를 상상하면서 연대와 봉수의 최종 도착점이 제주목관아임을 확인한 것에 환호를 터뜨렸다. 고지도 속에 그려진 연대, 봉수, 제주목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들도 해결했다. 제주목관아 활동지를 들고 자신들만의 가정적인 답이 진짜로 맞는 답인지 교사에게 자꾸만 확인해보고 싶어 했다. 궁금한 게 많으니 문화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퀴즈를 풀기 위해 여러 생각들을 자꾸 발표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의 설명 속에 나타난 목사가 입은 옷의 모습과 건물들의 모습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오늘날의 관덕정을 관찰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관덕정 모습과 비교도 했다. 고지도 하나 하나를 살펴보며 고지도들의 공통점을 뽑아내기도 했다. 우리들만의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 확인하기, 관찰하기, 전문가 설명 듣기, 비교하기, 공통점 추출하기, 의논하기, 예상하기 등 탐구에 걸맞은 이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었다. 학생들은 이 탐구 활동을 어떻게 느꼈을까? 다음은 제주목관아 체험학습 후에 작성한 학생들의 소감문이다.

... 옛날 제주의 지도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내가 찾았듯이 임금이 제주도를 바라볼 때 제주도가 거꾸로 보여서 제주도의 옛날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공통점을 찾기 전에는 정말 공통점이 궁금했는데 찾으면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찾는 것이 재밌었다. 제주목관아에 가서 제주목관아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어 좋았고 제주목관아를 탐구해서 재밌고 즐거웠다.(루다)

... 목관아에 대해서 탐구도 자세히 했다. 그리고 문제도 풀었다. 문제가 조금은 어려웠지만 할 만 했다.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여기에 또 와서 목관아의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남광)

... 오늘 제주목관아에 갔다 왔다. 나는 처음에부터 가기 전에 엄청 기대되고 궁금한 것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제주목관아에 갔다 오니까 궁금증이 싹~하고 풀렸다. 탐구과제를 할 때 힘들었지만 그걸 알아내는 것이 즐거웠다.(이하생략)(승아)

... 회랑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주도 옛날 지도 모습을 보았다. 제주도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었던 이유도 알아냈다. 이건 비밀이지만..... 이유는 임금님이 육지에서 제주도를 내려 본 거여서 그렇다. 정말 재밌는 하루를 보낸 것 같다. 근데 사실 난 이 곳이 정글이어서 정글 탐험을 한 것 같다.(서린)

출처: '제주목 관아 다녀오다' 체험학습 후 학생들의 소감문(2015. 11. 20)

*밑줄은 연구자 강조

‘제주목’, ‘제주목사’라는 개념은 어려운 것이었다. 학생들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개념들의 의미도 거뜰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제들도 해결해냈다. 학생들은 목관아에서 자신들이 행한 과정을 스스로 ‘탐구’라는 말로 지칭하기도 했다(루다, 남광, 승아). 또한 학생들에게 제주목관아 체험학습은 힘들었지만 알아내는 과정이 재밌고 즐거웠으며(루다, 승아), 정글 탐험과도 같았다(서린).

이 외에도 학생들의 소감문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들도 드러났다. ‘친구들이 내 의견을 들어줘서 즐거웠다(지혜)’, ‘거의 7분 있다가 아현이가 알았다고 했는데 나도 아현이의 말에 찬성해서 나도 적었고, 우리 모듬이 다 적었다(세현)’, ‘우리 모듬끼리 의논하며 적고 같이 알아내니 좀 더 쉬웠던 것 같다(명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조정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4) 옛날 제주 방어유적들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

제주목관아를 다녀온 이후 교실에서는 남두연대의 안내판 설치에 대한 감사와 무너져가는 애월연대를 다시 복원해주기를 시청 누리집에 건의하는 활동(III장-5절-나의 내용에 제시)이 마무리되었다. 각 모듬별로 작성한 건의의 글 속에서 다음의 내용이 유독 눈에 띄었다.

- 배령연대가 원래대로 복원이 되지 않았는데, 표지판이라도 원래의 모습은 동그랗다라는 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옛날의 통신 수단을 무사히 미래에도 남게 하고 싶습니다.
- 남두연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의 내용이 다른 연대에 있는 표지판의 내용과 같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연대의 특징과 다른 연대의 특징이 같지 않으니까요.
- 연대와 봉수는 우리의 방어유적이예요. 조금만이라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애월연대를 빨리 복원해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애월연대 위에 쌓여 있는 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출처: 시청 누리집에 표현할 모듬 글쓰기 활동지(2015. 11. 25)

학생들은 자신들이 탐구했던 3개의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자

신들의 생각을 담아 편지를 썼다. 앞으로 이 유적들이 잘 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학생들은 복원과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펴본 배령연대, 애월연대, 남두연대 외의 다른 유적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우리의 체험학습의 목적은 배령연대, 애월연대, 남두연대 이외의 연대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정해졌다.

4. <제주의 방어유적>특별전

: 옛날 제주 방어유적들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

가. 체험학습 계획하기

앞서 실시한 체험학습에서 학생들은 애월연대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고, 남두연대는 안내판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었다. 또한 배령연대가 현대의 관점에서 변형 복원되어 과거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조선 말기까지 제주도의 해안가에서 불을 밝히던 연대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 복원된 연대는 또 없는지, 많은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팽개쳐진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관심이 넓어지고 있었다. 나는 오늘날 남겨진 방어유적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지역의 유적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학생들이 그 이유를 진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양한 연대의 현재 모습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진행한 연대 탐구 학습 전체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체험이 없을까 고민했다.

마침,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제 130회 특별전 <제주의 방어유적>이 개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던 것이다. 나는 바로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다. 이곳에는 제주목관아를 찾았을 때 활동지에 담았던 <제주삼읍전도>([그림 III-30])가 아주 거대한 크기로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연대를 포함한 여러 방어유적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비록 몇 개의 항공사진과 짤막한 설명뿐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될 터였다. 연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연대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올 것이고, 연대 사진들을 통해 학생들이 또 다른 물음을 생성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사진전을 보면서 알게 된 점과 찾게 된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자신이 가고 싶은 연대를 선정해보자’는 활동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애월연대 체험 이후에 생긴 의문인 ‘연대는 모두 네모 모양만 있을까?’, ‘연대에 계단이 없었던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학생들이 찾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나. 체험학습 실행하기

1) 제주 방어유적의 더 큰 모습을 보다

학생들은 특별전에서 제주의 다양한 방어유적을 볼 수 있었고, 전시물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덧붙여져 기존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다. 다음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제주의 방어유적에 대해 어떠한 점을 이해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 방어유적은 적이 쳐들어 왔을 때 연기를 피우던 곳이구나.(남광)
- 옛날에 방어유적을 하였던 봉수는 25개이고, 연대는 38개이다.(유리)
- 봉수는 연대와 같이 바닷가 쪽에 있다.(수민)
- 봉수와 연대가 가깝다. 연대와 봉수가 같이 연락했다.(아람)
- 봉수하고 연대들은 다 바다 쪽에 있다.(하준)
- 연대나 봉수들은 모두 왜군이(을) 잘 볼 수 있는 바닷가에 있다.(승학)
- 한 연대가 불을 피우면 그걸 본 연대, 봉수가 제주목까지 간다고 하니 신비하고 신기하다. 그리고 봉수, 연대가 다 바다에 있다.(명진)
- 제주의 봉수는 25개, 연대는 38개로 9개의 진이 있고, 봉수에는 9명의 별장과 12~36명의 봉군이 있다. 연대에는 6명의 별장과 12명의 연군(혹은 직군)이 있다.(정민)
- 모든 봉수들이 터만 남아있고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상록)
- 지금의 봉수들은 봉수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봉수터’만 남아있다. 섭섭했다.(아미)

우선 눈에 띈 사실은 연대와 봉수가 방어유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방어를 하였던 연대가 방어유적이라는 말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위에서 제시한 문장 외에 ‘연대가 방어유적이다’(동혁)라고 쓰는 학생도 있었다. ‘방어유적’이라는 용어가 ‘연대’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체험학습을 실시할 즈음이 되자 교사는 ‘제주의 방어유적’이라는 용어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학생들도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을 똑같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 또한 학생들이 방어유적에 대해 나만큼 알고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음을 이번 체험학습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다. 특별전에 와서 방어유적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적은 학생 활동지를 살펴보고 나서야, 연대와 봉수가 방어유적이었다는 것을 이번에만 알게 된 학생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건 당연한 것인데 이걸 이제야 알았단 말인가’라는 실망감도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이번 체험에서 얻은 큰 수확이었다.

둘째, 학생들이 연대와 봉수를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봉수와 연대의 위치가 바닷가 쪽이다’(수민, 하준), ‘서로 가깝다, 서로 연락했다’(아랑) 등의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제주목관아에서 사라봉수를 확인하고 도원봉수도 상상해 보기는 했지만 이제야 학생들은 봉수라는 것이 연대와 함께 이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셋째, 방어유적에는 연대뿐만 아니라 봉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봉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봉수는 안타깝게 현재 터만 남아있다’(상록), ‘봉수는 25개이다’(유리), ‘봉수에는 9명의 별장과 12~36명의 봉군이 있다’(정민) 등의 정리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다.

2) 연대 사진을 읽어내다

학생들이 연대 사진전을 둘러보며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학생들은 이제 사진을 자세히 보며 사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 했다. 학생들은 사진을 통해 알게 된 것과 찾아낸 문제점을 활동지에 기록하였다. 사진을 보면서 학생들이 알게 된 점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연대의 모양과 관련지어 학생들이 사진전에서 알아낸 내용이다.

- 왜포연대는 둥글한데 다른 연대들은 거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은근)
- 왜포연대가 동그랗다. 나는 다 네모 모양으로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동그란 것도 있었다.(준혁)
- 연대는 동그랗거나 네모나다.(파란)

- 왜포연대는 원 모양으로 되어 있다.(소현)
- 왜포연대는 복원이 되도 동그랗다. 그리고 벽이 있고 그 안에 또 벽이 있다.(상록)
- 왜포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 모양이 동그랗다.(준서)

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학생들은 연대의 모양은 네모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월연대를 체험한 이후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연대의 모양은 모두 네모 모양일까?’에 대한 해답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다음은 불을 피우던 연대의 기능과 관련지어 학생들이 사진에서 찾아낸 것이다.

- 모든 연대들은 구멍 안에 불을 피우지 않고 그냥 맨 바닥이다.(상록)
- 연대마다 불 피우는 곳이 없다.(하준)
- 사진을 봐도 불을 핀 데가 없다.(아현)
- 불을 피우는 데가 없다.(동훈)
- 남두연대, 우지연대는 그 시대에 불을 피웠던 뿔감 자국이 있다.(유리)

특별전에서 학생들이 본 사진들이 주로 항공사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가능했다. 또한 연대가 불과 연기를 피웠던 곳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진을 더 눈여겨보았다고도 할 수 있다. 배령연대를 제외하고 학생들은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는 올라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에는 불을 피우는 구멍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진에서 실제 연대 위에서 불을 피웠던 구멍이나 특별한 장치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학생들도 맨바닥의 어디에서 불을 피웠는지 궁금해 하였고, 더 나아가 연기 한 개, 두 개 구분은 되었냐는 질문까지 하였다.²⁷⁾ 다음은 연대의 계단에 대해 학생들이 사진을 통해 찾아낸 내용이다.

- 계단이 있는 것, 없는 것도 있고 흔적(계단)이 남아 있다.(명진)
- 계단이 없는 것도 있고 계단이 없는 것은 계단의 흔적이 있다.(승학)

27) 제주도 봉수와 연대는 다섯 개 봉화소를 설치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대개 봉화소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봉화나 연기를 드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2회 들었는지, 3회 들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고, 또한 든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든 것인지, 두 번째 든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었던 경우가 많았다(오창명, 2014: 113-114). 나는 이 이야기를 교실에서 학생들과 나누며 제주도 날씨에 연기가 공중에 올라가면 몇 개인지 정확했겠느냐는 의문으로 확장시켰다.

- 계단의 흔적만 있고 계단이 거의 없다.(승아)
- 계단이 무너져 있는 게 많다.(수민)
- 계단의 흔적들이 거의 다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정민)
- 거의 다 연대에 계단이 많다.(유리)

학생들은 거의 모든 연대에 남아있는 계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계단은 원래 있었던 것인데 무너졌고 흔적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이전 체험에서 궁금해하던 ‘계단은 원래 있던 것일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까?, 계단은 왜 없지?’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 사진 사례를 통해 스스로 해소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 사진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고 가장 많이 뜻을 질문한 용어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였다.²⁸⁾ 나는 지정문화재는 유적으로 인정받고 더 관리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다음은 문화재로서의 연대 관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문제점으로 쓴 내용이다.

- 죽도연대는 복원이 안 되서 그냥 쉬는 장소로 변했다.(준혁)
- 마두연대, 무주연대, 우두연대 등 터만 남았더라도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정을 안 하면 나중에 연대가 38개가 아니고 지정된 연대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고진)
- 마두연대, 무주연대 등은 비지정 되어서 연대를 복원하기가 어렵다.(유빈)
- 연대들 중에 복원이 안 돼 있고 터만 남아있단 걸 알았다.(승학)
- 연대 중에 훼손된 모습도 있다.(도연)
- 마두연대나 무주연대 등은 비지정 되어 있어 복원이 어렵고, 마두연대, 무주연대, 죽도연대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며 3연대를 없애버렸습니다.(루다)
- 마두연대 등은 비지정 되어 있어서 복원하기 어려워 나중에도 알기 어렵다. 사람들이 개발을 하며 죽도연대 등을 없애버렸습니다.(아랑)

학생들은 비지정 되어 있는 연대들이 지정문화재인 연대들처럼 모양을 갖추

28)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이며,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그리고 문화재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지정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의 의해 지정된 문화재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법령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장재훈, 2004: 5-7).

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동네 사람들의 휴식처인 의자가 놓인 곳을 찍은 사진을 죽도연대라고 전시하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찾길이나 집터에 포함되어서인지 사진 속에서 연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연대들 밑에 적힌 말은 ‘비지정’이었다. 학생들은 비지정 된 연대들은 그 형태가 없음을 똑똑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비지정 되면 복원이 안 되고, 터만 남게 되고, 훼손되고, 나중에는 알아볼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문제점을 직접 찾고 나니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연대가 앞으로도 잘 남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다.

3) 다른 연대에도 가고 싶다

여러 연대를 사진으로 보면서 학생들은 어떤 연대에 가고 싶어졌을까?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에는 제주에 있는 연대 중에 20개의 연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²⁹⁾ 이 사진들을 보면서 찾아가고 싶은 연대를 골라봤다. 학생마다 가고 싶은 곳은 달랐는데, 주로 지금껏 다녀온 연대와 다른 모양을 띤 연대에 관심이 많았다. 다음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연대들과 그에 대한 이유이다.

- 두모연대가 가장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계단도 있고 연대가 아주 멋져서입니다.(은균)
- 조부연대. 왜냐하면 직사각형이고 연대가 좀 낮기 때문이다.(고진)
- 좌가연대이고 이유는 우리가 못 보던 동그란 모습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준혁)
- 좌가연대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특이하고 제 눈에 멋지고 네모 안에 네모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입니다.(명진)
- 함덕연대. 이유: 왜냐하면 좀 특이하게 생기고, 다른 연대들보다 조금 낮아서(지혜)
- 별도연대. 이유: 내가 가 본 연대는 다 1층인데 별도연대는 2층이어서 신기하고 가보고 싶다.(승학)
- 죽도연대. 연대 같지 않은 연대를 보면 이런 연대도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아현)

29) 여기에 전시되었던 연대는 왜포연대, 종달연대, 귀덕연대, 남두연대, 대포연대, 두모연대, 마두연대, 무주연대, 배령연대, 별도연대, 수근연대, 애월연대, 우두연대, 우지연대, 입두연대, 조부연대, 조천연대, 좌가연대, 죽도연대, 함덕연대로 총 20개이다. 이 중 대포연대와 우두연대만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재 제주시에 위치한다. 연대를 전시할 때 ‘제주시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후원하였기에 제주시의 연대를 다수 전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대포연대, 마두연대, 무주연대, 우두연대, 입두연대, 죽도연대에 ‘비지정’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었다.

- 왜포연대. 내가 가 본 연대는 다 네모난데 왜포연대는 동그래서 신기하기 때문이다.(하준)
- 왜포연대이다. 이유: 동그랗기 때문이다. 네모난 연대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기 때문.(준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연대는 좌가연대, 왜포연대, 별도연대였다. 좌가연대와 왜포연대는 지금껏 봐왔던 연대와 다르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도연대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사각형의 형태와 다른 형태의 연대들을 가보고 싶은 곳으로 뽑았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다녀왔던 남두연대를 적은 학생이 2명 있었다. 그 이유를 ‘새로 생긴 표지판이 있어서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서 가장 가보고 싶다’라고 썼다. 이 중 상록이는 남두연대에 안내판이 생기기로 한 주말(11월 28일)에 엄마와 그 곳에 확인하러 갔었는데 12월 1일야야 안내판이 설치되는 바람에 안내판이 직접 생긴 것을 보지 못해 아쉬워했었다.

다. 체험학습 되돌아보기

1)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이 열리는 이유

나는 학생들에게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이 열린 장소를 생각해보도록 했다. 그곳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학생들에게 그곳은 제주도 사람들보다 제주에 놀러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왜 그 장소에서 이런 사진전이 열리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나는 관광객들보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더 많이 보러 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사진전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과연 ‘비지정 된’ 연대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제주의 방어유적을 이렇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았을까? 학생들은 이 사진전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이 연대를 탐구해 온 모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연대를 포함한 방어유적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문화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들도 제주의 방어유적을 직접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연대를 이용한 올레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지속적인 주제 ‘연대’가 상상 속에도 나타나는 경험

지금까지 ‘연대’라는 주제로 총 4회의 체험학습이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연대’와 관련한 지식들을 스스로 구성하고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출근하는 아침이면 눈앞에 수산봉과 조금 멀리의 고내봉이 자꾸만 연결되어 눈에 들어왔다. 집 앞 오름에 불빛이 켜진 가로등을 보며 봉수나 연대가 불을 밝혔을 과거가 나도 모르게 눈앞에 상상되었다. 또한 바닷가에서도 봉군들이 망을 보고 있을 모습을 그려보게 된 것이다. 우리 반 학생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현장체험학습으로 이런 적 있다!’를 작성해보게 하였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학생들도 교사와 비슷한 상상의 경험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지 않고, 그저 주어지는 문구만 보고 떠오르는 게 있는 경우에만 대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문제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여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어떤 감정이나 별다른 생각이 떠오른 경험이 없다면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이 때 제시한 문구는 앞에서 서술한 교사의 상상과 관련된 것들이다.

먼저, ‘어두운 곳에 켜진 불빛을 봤을 때 또는 산 위어나 바닷가에 켜진 불빛을 보며’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 떠올랐던 경험을 적어보도록 하였다. 28명 중 18명의 학생이 이 문구에 봉수, 연대를 떠올렸다.

- 봉수, 연대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다.(명진)
- 옛날에는 봉수와 연대가 저렇게 켜져 있었을까?(고진)
- 예전에 저 불빛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나?(준서)
- 그곳이 산 쪽이면 고내봉이나 사라봉에 불이 켜지는 상상을 하고 우리 집이 목관아로 변해서 신호를 받는 것도 상상해 보았다.(정민)
- 연대도 저렇게 밝게 불을 피웠다는 걸 느꼈다.(남광)

‘바닷가를 바라보며’라는 두 번째 문구에 대해서 22명이 왜적선, 연대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이 연대 같았다.(아미)
-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싸웠다는 생각(아현)
- 오늘보다 한 옛날에 저 곳에 여러 가지 적이 있었을까(동훈)
- 왜적이 엄청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소현)
- 바닷가 끝에서 적인지 우리 배인지 모르는 배가 딱 한 척 들어오는 모습(아랑)

‘지도를 보며’라는 세 번째 문구에 대하여 학생들은 나도 모르게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보며 웃었던 일, 제주지도에서 연대들이 불을 밝힐 것 같은 일 등을 생각해 본 학생이 23명이었다.

- 지도를 배우고 나서 제주도 지도를 볼 때 거꾸로 돌려도 보았다. 지금도 그럴 생각하면 내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신기하다.(승아)
- 성산일출봉이 연대처럼 □모양이라서 지도에 성산일출봉이 연대 대신 놓여 있다고 생각했다.(아랑)
- 목관아를 먼저 찾게 된다.(준혁)
- 제주도 테두리에 연대가 있는데 밤이 돼서 불을 켜올 때 꼭 가게 간판이 밤이 되어 깜깜할 때 켜진 불빛 같은 것 같다.(서린)
- ‘연대 어디 있지?’라고 생각했다.(구름)

‘부모님과 놀러 나갈 때’라는 네 번째 문구에 대해 연대와 봉수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전에 보이지 않던 곳들이 보이기 시작한 학생이 16명이었다.

- 표지판에서 <제주목관아>를 보았다.(아미)
- 부모님과 놀러 다닐 때 학교에서 갔던 길이 생각난다.(유빈)
- 제주목관아가 근처에 있다고 네비게이션에 나와서 아~ 했다.(아랑)
- 해안도로를 놀러갔을 때 갑자기 내 옆으로 남두연대가 지나가서 아빠에게 멈추라고 했다. 아빠가 깜짝 놀라했는데 연대가 지나가서 그런 걸 말했다고 하니 아빠가 집에 갈 때 안내판을 보자고 해서 나중에 봤었다.(서린)
- 연대나 봉수, 목관아 같은 곳에 자주 가고 싶어졌다.(승학)

이 외에 ‘꿈 속에서’, 또는 ‘내 상상 속에서’라는 문구에 26명의 학생이 연대

체험과 관련하여 자기가 상상했던 경험들을 적어주었다. 자기가 망을 보고 있기도 하였고, 연군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연대가 봉수에게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재미있는 상상도 있었고, 꿈 속에서 다음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 상상을 한 학생도 있었다.

이런 상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연대’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집에서도, 주말에도 연대와 관련한 생각들이 학생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연대가 자꾸만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나 또한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듯한 상상은 학생들이 역사를 배울 때 꼭 경험해봐야 할 귀중한 경험이다. 이러한 상상은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또는 인물의 마음을 탐구하기 위해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회 수업 시간에 잠깐 상상하면서 빠져들어 마음이 젖어든 다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상이 아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음에도 연대라는 주제를 만나면서 내 생활 속에 스며든 나도 모르게 상상이 되는 ‘미적 체험’이다. 꾸준한 탐구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늘 과거를 현실로 불러오고, 현실 속에서 과거를 생각하는 즐거움을 낳았다.

5. 교실에서 지역으로

: 연대 알기에서 실천으로

배령연대에서 <제주의 방어유적>특별전까지 총 4회의 체험학습을 실행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교실 활동들도 ‘연대’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교사의 의도로 이루어진 고지도 읽기 활동이 있고, 연대를 알리고 보존하려는 학생들의 실천 활동이 있으며, 교사의 행동도 있다. 탐구를 통해 배움과 실천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교실 활동도 연대 탐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교실에서 이루어진 탐구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 고지도를 읽고 옛날의 제주 만나기

학생들은 연대와 관련한 체험학습을 하면서 몇 개의 제주 고지도들을 접했다. 그 중에서 <제주삼읍전도>는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를 다녀오면서, 그리고 제주목관아에서 ‘왜 제주목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교실 활동과 체험학습에서는 <제주삼읍전도> 원본 그대로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쉽게 제주목과 연대의 이름을 한글로 읽을 수 있게 처리된 것을 사용했었다([그림 III-29]와 [그림 III-30] 참조). 이 지도에서는 연대는 ▲(녹색), 봉수는 ●(파랑)의 임의적인 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 <제주삼읍전도>는 제주목관아에 전시된 <한라장축>([그림 III-31])과 견주면서 제주목이 아래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주요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전에 대강적으로 살펴보았던 <한라장축> 원본 모습의 고지도를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들은 과연 지도를 읽어낼 수 있을까? 연대와 관련한 3회의 체험(배령연대,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제주목관아)에서 보인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고지도를 읽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읽어내는지 궁금했다. 과연 고통스러울지 재미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모둠별로 A4용지 크기의 <한라장축>(1702) 복사물과 오늘날 제주관광지도를 나눠주었다. 다음에 나오는 [그림 III-36]은 3모둠 학생들이 <한라장축> 원본 지도 읽기 활동 모습의 흔적이다.



[그림 III-36] 3모듬 학생들의 <한라장축> 읽기 활동

출처: <한라장축>(제주특별자치도, 2008: 21)

*학생들이 연필로 표시한 부분을 독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연구자가 재표시함

[그림 III-36]처럼 3모듬 학생들은 복사본 <한라장축> 자료에 서로 의논하며 해안가의 연대를 찾아 표시하고, 빨간색의 '진'의 개수를 둘러가며 세었다. 또한 한라산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여러 하천의 모습에 집중하였는데, 이 모듬의 경우 처음에는 하천이 아닌 도로라고 짐작했다. 제주도는 건천이라 비가 많이 올 때에만 물이 흘러 실생활에서 강물과 하천을 볼 일이 없다. 이런 경험으로 고지도에 그려진 하천을 보면서 하천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하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학생들에게 오늘날 지도와 비교하며 고지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들을 적어보도록 했다.

한글이 적혀있지 않은 고지도를 주며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다 알아 보라고 하니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금세 한 가지씩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학교 특색 활동으로 한자를 배워 대부분 6급과 7급 자격증을 보유한 실력이라 학생들은 자신들이 읽을 수 있는 한자부터 찾아냈다. 제주(濟州), 애월(崖月), '월'자와 그 위치로 애월을 짐작함)을 찾고는 자신들의 동네 지명을 찾았다. '유수암(流水巖)', '장전(長田)', 그리고 '우로(牛路)'를 찾았다. 『사회 3-2』의 1단원

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명에 대해 공부했던지라 한자의 뜻을 생각하며 바로 찾아냈다. 유수암리, 장전리에서 ‘리’의 개념 없이 유수암, 장전이 적혀 있었고, 소길리는 ‘쇠(소)가 다니던 길(길)’이라는 한자의 음과 뜻을 담은 ‘우로’가 적혀 있다는 것을 신기해했다. 자신들의 마을이 1702년에도 이미 존재하였고 그 이름 그대로 전해져 온다는 것을 고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물어온 질문은 “이 때에는 한글 없었어요?”였다. 한글은 이미 세종 때 140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대답해주니, 170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도에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학생들은 제주목이 아래에 있고, ‘애월’이라는 한자가 바로 옆에 빨간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찾았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를 갈 때 ‘애월진’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다섯 모듬이 이 점에 주목했다. 특히 세 모듬은 특별히 ‘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곳을 특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1모듬을 제외하고 모든 모듬에서 봉수와 연대를 찾아냈다. 봉수와 연대의 위치, 이것들의 기호까지 알아냈다. 어떤 모듬은 보이는 대로 봉수와 연대의 개수를 세어보긴 했으나 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헛갈려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도 봉수나 연대의 개수를 세기 위해 제주도 둘레를 쭉 손으로 짚어가며 돌았으니 예전에 봉수와 연대가 서로 연결되어 제주의 해안가에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5>는 학생들의 <한라장축> 고지도 읽기 활동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I-5> 학생들의 <한라장축> 읽기 활동 결과

모둠	고지도에서 알 수 있는 점
1모둠	-한글이 만들어졌는데도 모두 한자로 되어 있다. -색깔은 초록과 빨강, 노랑으로만 된 걸 알 수 있다. -제주목관아나 특별한 곳은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다. (의견) 임금이 보면서 특별한 곳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빨강으로 색칠했을 것 같다.
2모둠	-연대와 봉수를 표시하는 기호가 있다.(·)점 -연대가 약 38개이다. -봉수가 약 26개이다. -옛날에는 길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동서남북이 없다. *방위표시가 없다는 것으로 보임
3모둠	-소길리를 우로라고 지도에 표시했다. -진 처 논 곳이 나타나 있다. -한글이 만들어졌는데도 아직 고지도에는 한자로 쓰여 있다. -봉수대와 연대가 표시되어 있다. -우리 모둠이 세어 본 봉수 개수는 20개이고, 연대 개수는 46개이다.
4모둠	-연대 기호■, 제주목관아. 군사들을 위한 지도일 것 같기도 하다. -큰 길이 없다. 처음에 지도에 ~부분이 길인 줄 알았는데,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봉수는 ▲ 이렇게 산 위에 표시되어 있다. -■은 애월진 등이다. 예전에도 성산일출봉이 붙어져 있다.
5모둠	-지명이나 연대, 목관아 같은 곳이 모두 한자로 표시되어 있다. -바닷가 주변에만 연대나 봉수가 있다. -옛날에는 글씨를 거꾸로 쓰거나 위에서부터 썼다. -옛날에는 임금이 보이는 대로 그려서 제주도가 거꾸로 되어 있다.
6모둠	-빨간 테는 마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산 위에 네모는 봉수이고 바다 옆에 있는 네모는 연대일 것 같다.
7모둠	-옛날 지도에는 제주목관아를 제외한 빨간 둥근 네모 표시는 모두 애월진과 같은 진이다. -연대와 봉수가 네모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성산일출봉과 같이 자세히 그려져 있는 곳이 있다.

나. 시청 누리집에 감사와 건의의 글 올리기

2015년 11월 5일,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를 다녀오고 나서 학생들은 연대, 봉군, 지역주민 등이 되어 일기 쓰기를 했었다. 이 때 연대와 봉수 같은 제주의 방어

유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험학습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적어 보도록 했다. 그런데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말들을 하는 학생들이 다수 보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쓴 내용이다.

- 더 뜻깊게 보고 더 아껴야 될 것 같다.(고진)
- 함부로 돌에 앉거나 건드리지 않고 제주도에서 연대를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 더 훼손되지 않게 하면 좋겠다.(정민)
-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수혁)
- 연대와 봉수들이 많은 복원을 했지만 아직도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더 지켜야 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서린)
- 연대와 봉수를 앞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사랑해야 한다.(아미)
- 훼손되지 않게 하지 않고 더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승학)

보호, 사랑, 홍보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말이 나와 고민되었다. 교사의 막연한 물음과 학생의 상투적인 대답이었다. 나는 실제로 연대를 다녀온 학생들이라면 연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존하려는 태도와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서린이의 고민처럼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학생들과 연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학생들의 생각과 실천이 ‘보호’, ‘사랑’, ‘홍보’처럼 막연한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은 배령연대, 애월연대와 남두연대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배령연대]

- 연기를 피우던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 연기 피우는 곳을 표시한다.(남광)
- 배령연대가 요즘 것 같다. → 배령연대를 다시 복원하면 좋겠다.(아현)
- 예전 그대로 복원을 안했다. →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까 안내판에 원래 모양은 둥글다라고 쓴다.(동훈)
- 돌이 너무 예전답지 않게 반듯하게 쌓여 있다. → 더 복원하지 않고 이대로 놔 둔다.(승학)

[애월연대]

- 관리를 잘 안하였다. → 돈이 많이 들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복원도 다시 해

야겠다.(상록)

- 맨 위쪽에 있는 돌 하나가 떨어질락 말락 하게 흔들렸다. → 돌은 좀 더 튼튼하게 세우고 관리하면 좋겠다.(정민)
- 돌의 뒤편이 튼튼하지 않다. → 시청에 부탁하고 돌 부분만 복원한다.(아랑)
- 너무나 관리를 안 한다. → 나무 줄기 만이라도 자른다.(동훈)
- 위에서 버티고 있는 돌이 무너질 것 같다. → 돈이 좀 들더라도 빨리 복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서린)

[남두연대]

- 길아랑 가까운 곳에 있다. 안내문이 없다. → 안내문이 있었으면 좋겠다.(세현)
- 남두연대는 표지판이 없어서 남두연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 시청에 부탁해서 표지판을 세워달라고 부탁할 것이다.(고진)
- 표지판이 없어서 자세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 표지판에 설명글을 넣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놔으면 좋겠습니다.(승아)
- 남두연대는 해안도로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저건 뭐야. 저런 건 없애버려야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눈여겨보지 않는 게 문제 같습니다. → 도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남두연대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남두연대에 대한 체험 등을 만들어서 남두연대는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게 해결 방안 같습니다.(루다)

학생들은 배령연대에서는 연기를 피웠던 곳을 찾을 수 없다는 점과 너무나도 현대적으로 복원했다는 문제를, 애월연대에서는 무너질 것 같은 보존 상태의 문제를, 남두연대에서는 안내판 없이 해안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주로 제시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말처럼 쉽게 복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안내판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말해 주었다. 바로 지역행정기관인 시청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알려 주었다.

제주시청 누리집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고’를 이용하기로 하고, 과연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역의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공사 문제 등이 주로 올라와 있었는데 한 학생의 글이 모두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바로 인근 학교인 U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지역에 도서관을 설치해달라고 쓴 건의의 글이었다. U초등학교는 제주시와 애월읍의 경계에 있는 제주도에 꽤 큰 규모의 학교로 제주시내 한라도서관이나 애월읍의 애월도서관과 같은 도서관에 가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

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글은 학급 학생들에게 자신들도 연대에 대한 의견을 내서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학생들은 먼저 모둠별로 연대의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교사는 이에 앞서 시청 측에 지금 남두연대에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 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뜻밖의 말은 남두연대에 표지판이 그 동안 제작 중에 있었고 11월 28일(토)에 설치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학생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연대 안내판이 설치되는 것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건 이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였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때는 11월 25일로, 제주목관아 체험학습까지 다녀온 터라 학생들이 더욱 연대(煙臺)와 가까워진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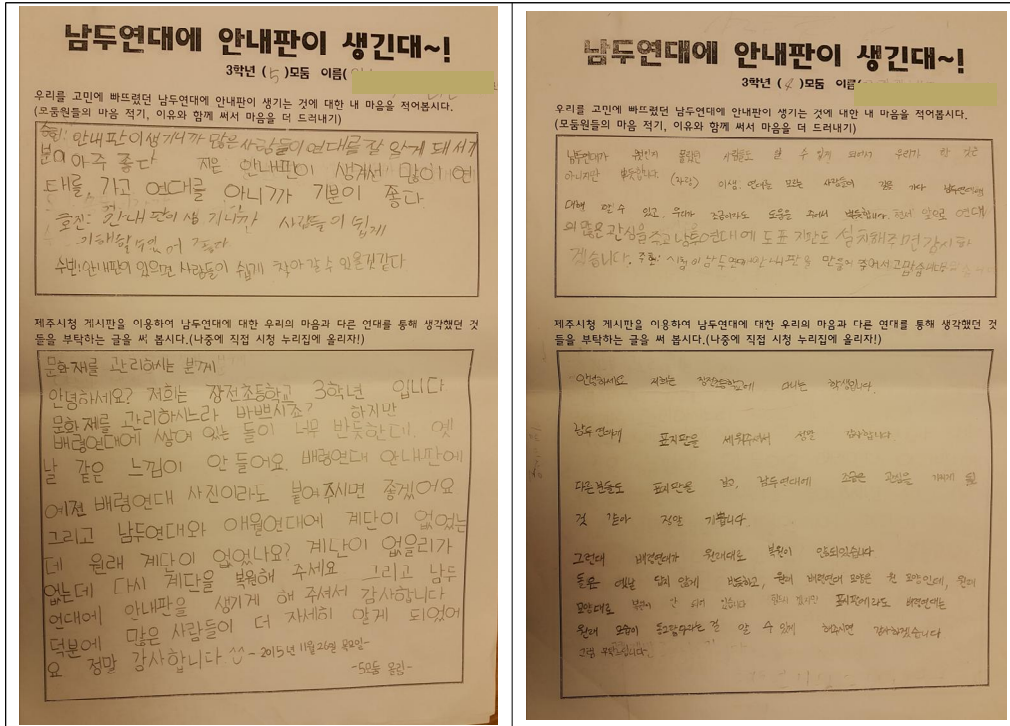
안내판 설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청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다른 연대들의 보존·관리에 대한 건의의 글을 작성해보기로 했다. 모둠별로 우선 남두연대에 안내판이 생기는 것에 대한 모둠원들의 마음을 먼저 작성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남두연대 표지판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마음을 표현하였다.

- 우리 반 때문에 안내판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남두연대에 안내판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란 걸 알 수 있어서 좋다.(서린)
- 안내판이 생겨서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기뻐요.(상록)
- 남두연대에 가서 표지판을 보면 반가울 거예요.(아미)
- 시청이 남두연대 안내판을 만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소현)
- 남두연대에 안내판이 생긴다니 이제 남두연대를 잘 알 것 같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하준)

이렇게 연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시청의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기 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니 학생들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대를 지키고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모두의 일인데, 이 일의 일부를 시청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학생들은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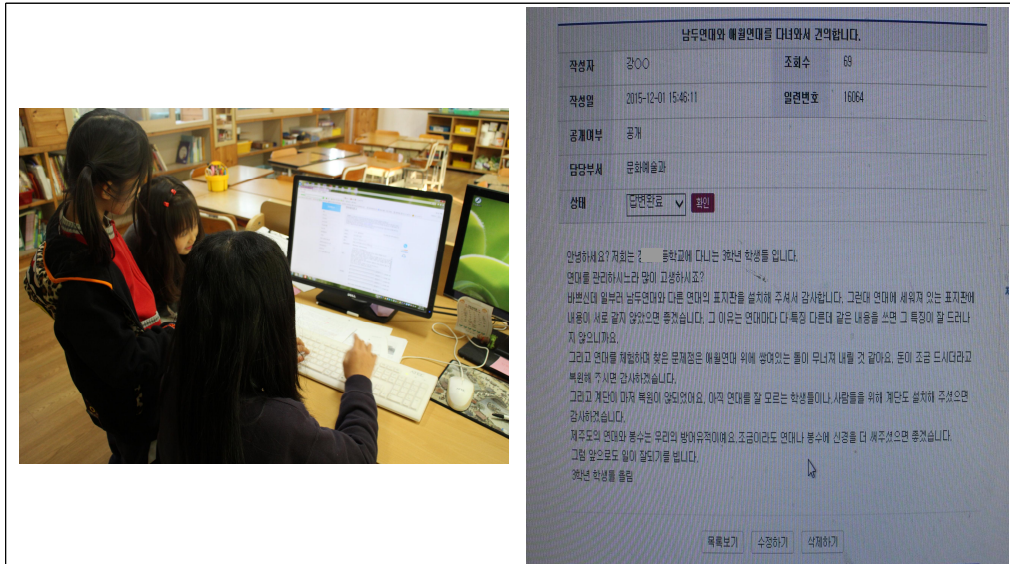
남두연대의 안내판 설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다음에는 시청에 연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하는 글을 작성하게 했다. 학생들은 신중하게 알맞은 용어를 선택하며 생각을 정리하였다.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모둠 내에서 진지하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모둠별로 쓴 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37] 모듬별로 시청 누리집에 올릴 글 작성하기

모듬별 글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 학급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글로 만들기 로 했다. 이 일은 학급 반장, 부반장을 맡은 친구들이 모듬의 글을 읽고 가장 좋은 부분들을 뽑아 완성하기로 했다.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선뜻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노라 대답한 친구들에게 학급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림 III-38] 제주시청 누리집에 연대에 대한 의견 올리기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시청 누리집에 올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J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입니다. 연대를 관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바쁘신데 일부러 남두연대와 다른 연대에 표지판을 설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대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의 내용이 서로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연대마다 다 특징이 다른데 같은 내용을 쓰면 그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니깐요. 그리고 연대를 체험하며 찾은 문제점은 애월연대 위에 쌓여 있는 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드시더라도 복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마저 복원이 안 되었어요. 아직 연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을 위해 계단도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연대와 봉수는 우리의 방어유적이예요.

조금이라도 연대나 봉수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일이 잘 되기를 빕니다.

- 3학년 학생들 올림 -

출처: 제주시청 인터넷 신문고(2015. 12. 1)

*연구자가 학생 현황에서 밝힌 것과 같이 J초등학교로 바뀌 표기함

학생들은 시청 누리집에 올린 건의의 글에서 각 연대의 특성에 맞게 표지판의 내용을 조금씩 달랐으면 하는 점, 무너질 것 같은 애월연대를 복원해 달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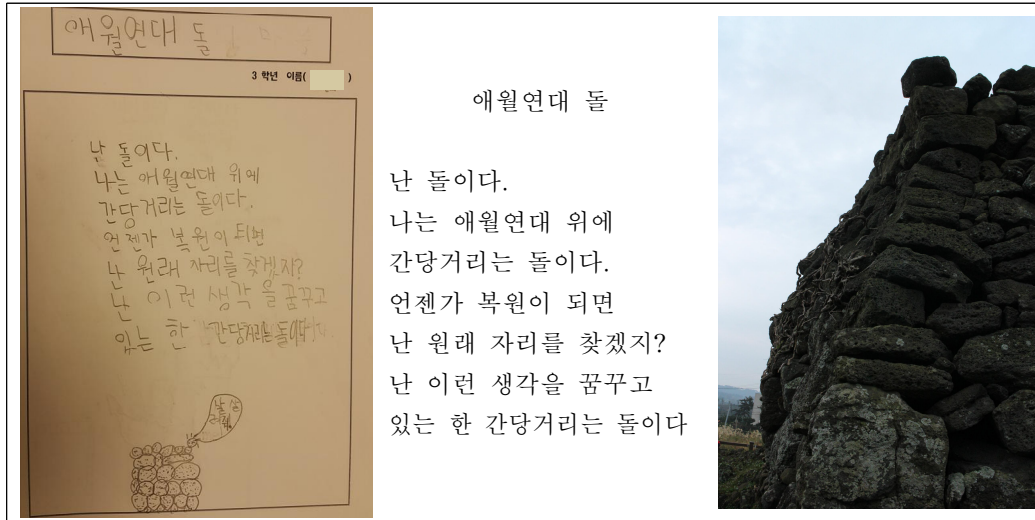
점, 방문객을 위해 계단을 복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건의에 대해 제주시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글을 게시하였다.

우선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중 남두연대를 비롯한 연대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각 연대가 갖는 특성을 관계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애월연대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자체 문화재 점검 시 확인되어 보수할 계획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제주시청 인터넷 신문고(2015. 12. 3)

제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는 각 연대에 대한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연대 안내판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고쳐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답글에서 학생들을 기쁘게 해 줄 소식도 들어 있었다. 바로 애월연대가 자체 문화재 점검 시 확인되어 보수할 계획으로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 소식에 또 환호성을 터트렸다. 자신들의 힘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 자신들이 있고 애월연대가 되살아날 것만 같아 기뻐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이 되어 다시 찾아가본 애월연대는 여전히 불룩한 벽면이 무너질 것 같이 위태롭고 연대 위의 돌은 곧 떨어져 내릴 듯 그대로였다. 모든 체험학습이 끝난 후 작성하였던 준혁이의 시 속에서 “날 살려줘”라고 외치는 간당거리는 돌이 무사히 제 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애월연대 돌

난 돌이다.
 나는 애월연대 위에
 간당거리는 돌이다.
 언젠가 복원이 되면
 난 원래 자리를 찾겠지?
 난 이런 생각을 꿈꾸고
 있는 한 간당거리는 돌이다

[그림 III-39] '애월연대 돌'이라는 준혁이의 시와 준혁이가 본 돌의 모습

애월연대 사진 출처: 연구자 촬영(2015. 11. 9)

다. 연대를 활용하여 제주의 올레 디자인하기

두 번째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하면서 애월진 소속 고내봉에 갔을 때 고내봉수터에 올레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남두연대 역시 올레길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사전 답사를 할 때 남두연대 앞에 위치한 리조트가 있어 이곳에 주차 문의를 하며, 본교 학생들이 남두연대를 보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그게 뭔데요?'라는 직원의 반응을 마주했었다. "이 리조트 앞에 있는 네모 모양으로 돌을 쌓아 만들어진 것 있잖아요"라고 설명했었다. 그 때야 "아..." 라며 알아듣는 직원을 보며 바로 앞에 있는 연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섭섭하고 안타까웠다. 2015년 11월 5일, 남두연대에 갔을 때 학생들이 발견한 것은 제주도 자전거 환상길과 올레길이었다. 제주도에서 자전거로 달리며, 두 발로 걸으며 지나치게 될 남두연대에는 때마침 표지판이 없던 때이기도 했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나와 학생들은 제주도 사람들도 잘 모르고, 관광 온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이 제주도 방어유적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 나누었다. 결정적으로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에 다녀오면서 지금의 연대를 꼭 잘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한다는 실천 의지가 강력하게 생겨났다. 나는 모두가 잘 아는 도보여행코스인 ‘올레길’을 이용하여 우리의 뜻을 알리는 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학생들에게 하였다. 해안가에 조성되어 있는 올레길의 경우, 제주도민과 여행객들이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연대와 봉수를 마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올레길을 개발·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이하 (사)제주올레)의 누리집을 살펴보았다. 그 덕에 올레길에 사용되고 있는 ‘간세’와 올레 이정표 등 다양한 표식들도 익히고 여러 가지 올레길로 연결된 타원형의 제주도 모습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제주올레에서 출시되는 상품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당근 밭, 돌담, 바다, 오름 등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방어유적으로서의 연대를 떠올리니 제주가 사실 온전히 평화로운 적이 있었던 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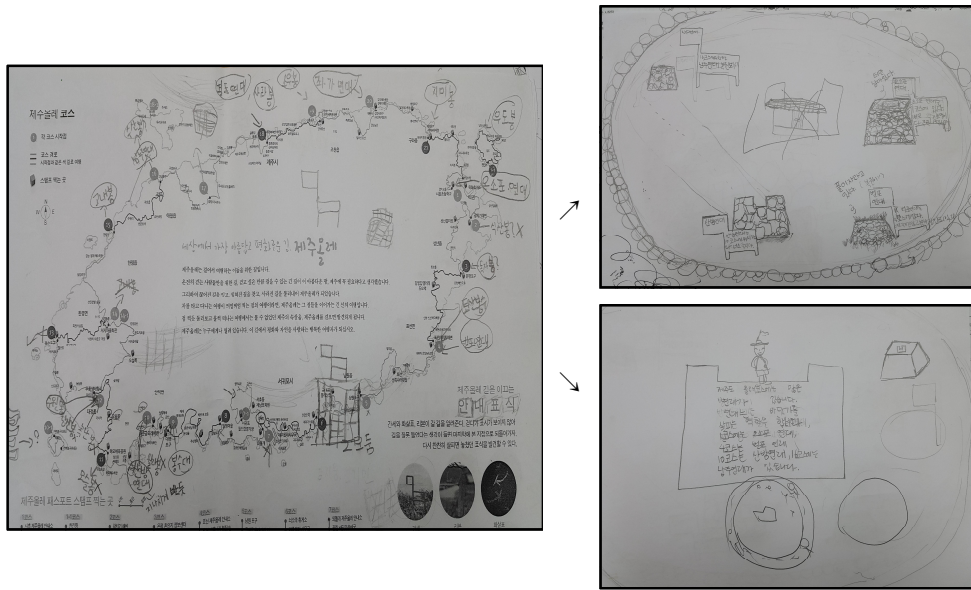
우리는 연대로 올레 디자인을 하여 (사)제주올레에 우리의 의견을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우리의 디자인이 채택되고 안 되고는 이후의 문제였고, 우리의 생각을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우선,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연대와 봉수는 총 몇 개나 되고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는지 각 코스별로 들어가 살펴보았다. 이렇게 검색하다보니 제주의 오름 중에서 ‘-봉’으로 끝나는 오름들이 봉수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오름들이 진짜 봉수였는지 한 번 더 검색해 보았고, 연대들의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 그 모양과 이름들을 재확인하였다.³⁰⁾

올레길에서 연대와 봉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학생들은 올레길도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뜻하는 방어유적 연대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디자인을 시작했다. 이름하여 연대-올레 디자인 활동이다. 이 때 활동은 짝과 함께 하였다. 혼자 하기에는 디자인할 임도가 안 날 것 같았고, 네 명이 함께

30) 제주올레 누리집(<http://www.jejuolle.org/>)을 활용하여 각 올레코스를 들어가서 살펴보았다. 그 예로, 1코스의 알오름, 말미오름, 6코스의 제지기오름은 봉수로 추정하지 않고, 2코스의 식산봉, 3코스의 독자봉, 4코스의 토산봉, 6코스의 삼매봉은 학생들이 봉수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 독자봉, 토산봉, 삼매봉은 실제 봉수이다. 물론 학생들은 봉수에도 관심을 보였으나 올레길에 있는 ‘연대’ 찾기를 더 흥미로워했다.

하는 모둠활동은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림 III-40]은 제주올레 코스를 나타내는 지도를 이용하여 올레길에 있는 연대와 봉수를 표시한 뒤, 연대와 올레를 적절히 조화시켜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그림 III-40] 연대-올레 디자인 활동의 과정

올레길 코스 이미지(좌) 출처: K-힐링투어(<http://cafe.naver.com/jhtrekking/133>)

[그림 III-40]에서 알 수 있듯이, 연대와 봉수를 찾는 것까지는 짝 활동 결과가 모두 같았지만 활동의 디자인 방향은 모두들 달랐다. 학생들은 이 활동 과정에서 연대의 크기는 어떻게 할지,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배치할지, 올레길을 어떻게 표현할지 등을 고민하였다. 어떤 작은 올레 코스를 떠올려 제주도 전체적인 모습을 그린 뒤 연대를 배치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작은 연대를 먼저 그리고 올레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넣는 등 그 방식은 다양하였다. 학생들은 짝과 함께 밑그림을 그려보고, 최종 시안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학생들이 연대-올레 디자인을 고민하는 동안 교사는 (사)제주올레 디자인 담당팀에 전화하여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연대 탐구 과정과 취지를 설명했다. (사)제주올레에서 하고 있는 ‘올레 스카프’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직접 작

성한 연대-올레 홍보 디자인을 보내줬으니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추후 ‘방어유적을 지킬 수 있는 올레길’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학생들이 완성한 연대-올레 홍보 상품 디자인이다.



[그림 III-41] 학생들이 만든 연대-올레 디자인

올레길을 이용하여 우리의 뜻을 알리는 것이었기에 올레의 원래 의미를 살리면서도 제주의 방어유적을 담아내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완성된 학생들의 디자인은 (사)제주올레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디자인 방향이나 직접 하고 난 느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내가 한 디자인이 올레 스카프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떨렸다.(준혁)

- 우리가 처음에는 연대를 직접 가서 탐구했는데 그걸 통하여 방어유적을 그리니 연대를 지키는 연군이 된 것 같았다.(하준)
- 디자인을 위해 생각들을 많이 했다. 사람들에게 연대나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다.(아현)
- 이 디자인을 하면서 제주올레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한 작품이 될 수 있어서 좋다. 우리 아이디어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진)
- 우리는 우선 제주도 땅을 그리고 양쪽에서 우리의 관심사인 연대를 그렸다. 처음엔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차차 나아졌다. 디자인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명진)

디자인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의지가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방어유적을 알리고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의 디자인을 받아본 (사)제주올레 디자인 담당자는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답메일을 보내왔다.

너희들이 이번에 연대체험을 하면서 방어유적들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강진영 선생님께 들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디자인한 그림들도 보았다.

제주올레 여러 코스의 연대들과 제주올레의 상징 간세를 예쁘게 조합해서 그린 그림들이 선생님은 인상이 깊었어. 선생님이 디자인 할 때는 항상 꽃, 나무, 숲, 바다 간세 등 자연과 제주올레의 상징들로만 디자인을 해왔는데 연대 같은 역사 유적으로 디자인을 해본다는 생각은 못해봤단다. 그래서 다음에 제주올레의 새로운 디자인을 할 때 꼭 너희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디자인을 해보려고 해. 아마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

나중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꼭 너희들에게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앞으로도 제주의 유적들과 자연 그리고 제주올레 길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적들이 훼손되지 않고 오래오래 지켜질 것이고 제주올레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명소가 될 테니깐^^

출처: 제주올레 디자인 담당자로부터 받은 이메일(2016. 1. 4)

*문단 띄어쓰기는 원문 인용

학생들이 보낸 제주의 연대-올레 디자인은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이 경험으로 연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학생들은 디자인의 장면

들을 언젠가 제주의 올레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 분명했다. 학생들은 연대를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자신들이 알게 된 연대를 제주도의 구성원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듯 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서 연대를 알리는 일이 자신들의 몫이라는 사명감이 엿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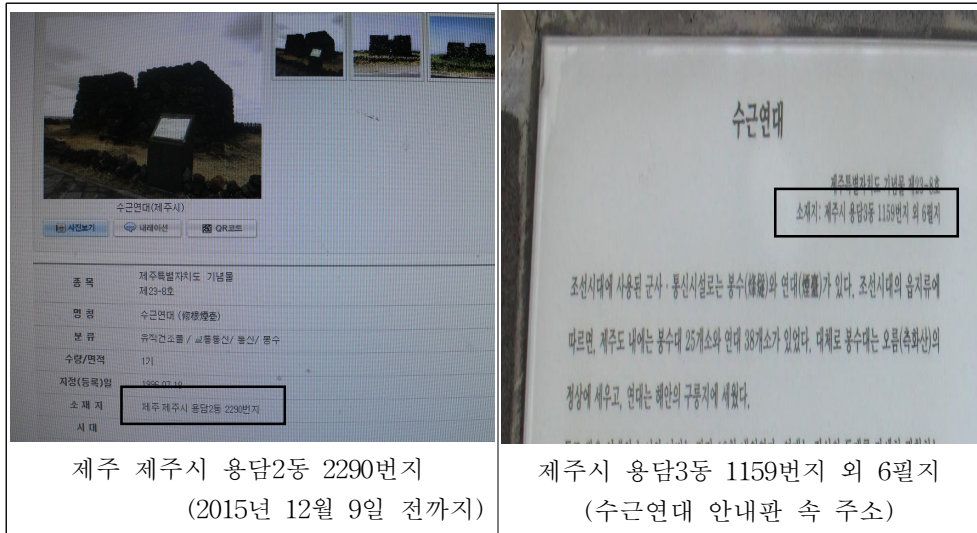
라. 연대를 통해 교사도 함께 행동하기

1) 문화재청 수근연대 주소 고치기

나는 문득 연대로 서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빨랐을지가 궁금해졌다. 체험학습으로 이미 다녀왔던 남두연대이지만 11월 28일(31)에 설치한다던 안내판을 확인할 겸 연대가 얼마나 빠른 통신 수단이었나 하는 나만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애월연대부터 남두연대, 조부연대, 수근연대까지 차를 타고 돌았다. 각 연대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5분 내외였다. 모든 연대를 다 돌 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1시간 20여 분이였다. ‘연대와 봉수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자동차보다도 훨씬 빠르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수근연대를 찾아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도착지의 주소에 ‘수근연대’를 입력해도 검색이 되지 않고 문화재청 누리집을 보고 메모해둔 수근연대 주소 ‘용담 2동 2290번지’를 입력했는데도 여전히 검색이 되지 않았다. 나는 내 휴대폰의 네비게이션에만 이 주소가 검색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이버지도에서도 ‘용담 2동 2290번지’를 입력해 보았다. 그러나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수근연대를 용담해안도로에서 본 적이 있었기에 운전대를 잡았다. 수근연대에 도착하자마자 눈길이 갔던 것은 수근연대 안내판에 적힌 주소였다. ‘용담3동 1159-6번지’라고 나와 있었다. 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나는 문화재청에 적힌 주소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31) 2015년 11월 5일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을 하고, 다음날 배령연대의 변형복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이후 학생들과 제주시청에 건의의 글을 올리기로 했다. 11월 25일(수)에 시청에 미리 남두연대에 안내판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시청 누리집에 건의의 글을 올리고자 한다고 제주시문화예술과에 전화를 했다. 뜻밖에 남두연대의 안내판이 제작 중에 있으며 11월 28일(토)에 설치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날 바로 확인해보기 위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30일(월)에 전화를 하니 12월 1일(화)에 설치한다며 답변해주셨다. 남두연대 안내판 설치 당일에 시청 담당자가 설치 장면을 직접 핸드폰으로 전송해주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그림 III-42] 수근연대의 문화재청 누리집 상의 주소와 실제 안내판 속의 주소
 *□ 부분은 연구자 표시

생전 전화 한 번 해 보지 않았을 문화재청 대표번호에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였더니 제주도청에 전화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제주도청 관련과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제주시청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제야 나는 제주시청 담당자가 문화재청 누리집의 지역문화재에 대한 정보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시청에 전화하여 지난 사정 이야기하기를 되풀이하고 문화재청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수근연대의 주소가 인터넷으로 전혀 검색이 되지 않으며, 수근연대 현장 표지판에는 [그림 III-42]와 같이 그 주소가 ‘용담3동 1159-6번지’임을 알려주었다.

그 결과 지금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수근연대를 검색하면 [그림 III-43]과 같이 ‘용담삼동 1159-6번지’로 그 위치가 검색된다.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8호
명 칭	수근연대 (修根煙臺)
분 류	유적건조물 / 교통통신/ 통신/ 봉수
상/면적	1기
(등록)일	1996.07.18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1159-6
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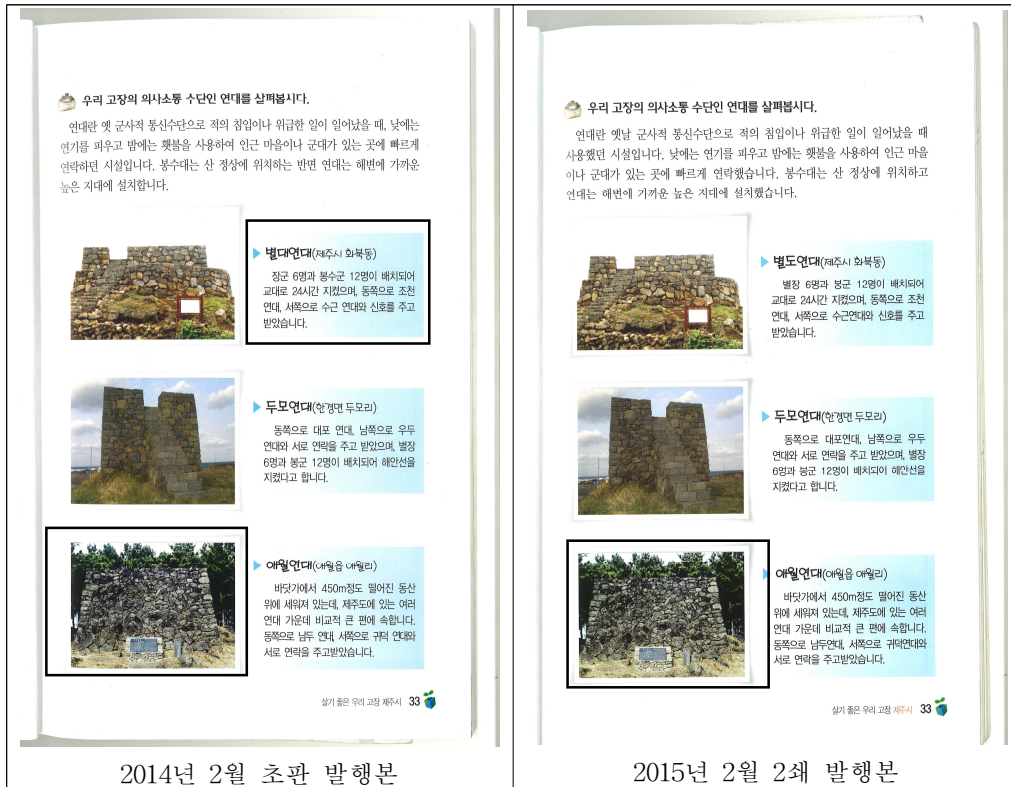
[그림 III-43] 수근연대의 문화재청 누리집 상의 수정된 주소

‘용담2동 2290번지’는 주소를 수정하기 이전 문화재청의 내용을 따온 경우 여전히 몇 개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그대로 남아있긴 하다.³²⁾ 이 ‘주소’와 관련된 기억은 내가 연대에 품었던 애정과 학생들과 함께 하던 체험 학습의 기억으로서 또 다른 교육 경험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2) 지역화 자료 고민하기

체험학습을 진행하다보니 이전에 그저 훑어지나갔던 사회과 지역화 자료에 연대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싶어졌다. 평소에도 사회 수업 시간에 사회 교과서 내용들이 지역의 어떤 것들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를 보조교재로써 활용해 왔었다. 학생들이 수시로 전학을 오기 때문에 재고를 보관해놓고 있던 터라 1쇄본(2014)과 2쇄본(2015)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32) 2016년 11월 13일, 용담2동 2290번지는 포털검색 다음지도 검색에서는 찾을 수 있으나 여전히 네이버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용담2동 2290번지와 용담3동 1159-6번지는 바로 근접하여 같은 위치로 보이고 있어 주소를 괜히 변경했나 싶은 생각도 차후에 들었다. 제주시(2012: 84)에는 용담 3동 2290번지라고 나오고 있으며 이 위치 또한 용담3동 1159-6번지와 근접하고, 네이버지도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어떻게 한 장소에 대하여 ‘용담 2동 2290=용담3동 2290=용담3동 1159-6번지’가 가능하단 말인가? 용담2동과 용담3동은 엄연히 다른 구역이며, 수근연대는 용담3동 구역에 해당된다. 수근연대 안내판의 주소와 문화재청의 주소가 일치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진다.



[그림 III-44] 지역화 자료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 ‘연대’ 관련 내용

*□ 부분은 연구자 표시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까지 다녀오고 난 후, 학생들에게 작년 책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단번에 찾아냈다. “별대연대가 아니라 별도연대인데요”, “장군이 아니라 별장이고요”, “봉수군도 봉군이라고 해야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지역화 자료 저자들보다 더 연대에 대한 전문가처럼 보였다. “교과서에도 잘못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우리 지역 방어유적과 같은 유적들을 더 잘 알고 고쳐나가야 하는 거야”라고 말은 했지만 1쇄본, 2쇄본을 보는 교사로서의 내 마음은 씩씩하였다. 왜냐하면 교사인 나조차도 체험 학습을 끝마치고 난 후에야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그제야 이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실린 사진들은 아주 예전의 모습이였다. 애월연대만 해도 그 주변의 울창한 소나무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예전의 흑백 사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실린 사진들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을 사용하였기에 시간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 아주 오래 전에 찍혀진 사진이라는 것이다. ‘장군’이라는 용어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적은 것이다. 문화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확인도 없이 저자들이 바로 지역화 자료에 인용해서 사용했다는 게 개탄스러웠다.

또한 연대만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봉수도 특별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참고자료로 소개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제주의 봉수는 돌을 쌓아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오름 흙 밑에 불을 지폈고, 불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원호(내호, 외호)를 만들어놓았다. 지역화 자료에는 단순 검색으로 얻어지는 사진들의 나열이 아닌 좀 더 생생한 지역의 유적을 담아 교실에서라도 실제에 가까운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IV. 발현적 교육 경험의 의미

1. 학생과 교사에게서 발현된 주제의 가치

가. 체험학습에서 발현된 탐구 주제의 성격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탐구 주제가 발현되었다. 이 주제들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실에서 사회과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하면서 다루는 주제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우선 III장에서 밝혔다시피, 체험학습을 통해 발현된 탐구 주제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 번째 배령연대 체험학습에서 학생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인 봉군의 이미지, 관찰 없이 본 연대의 모습, 프로그램화된 체험학습의 문제점 등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학습에서 연대의 모습과 관련하여 ‘연대에는 원래 계단이 없는 것일까?’, ‘사각형 외에 다른 모습을 한 연대는 없을까?’, ‘연대의 신호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질문들이 생성되었다. 세 번째, 제주 목관아 체험학습에서 ‘옛날에 제주를 밝혔을 연대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라는 주제가 나왔다. 네 번째,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체험학습 후에는 ‘우리의 방어유적을 어떻게 보호하고 알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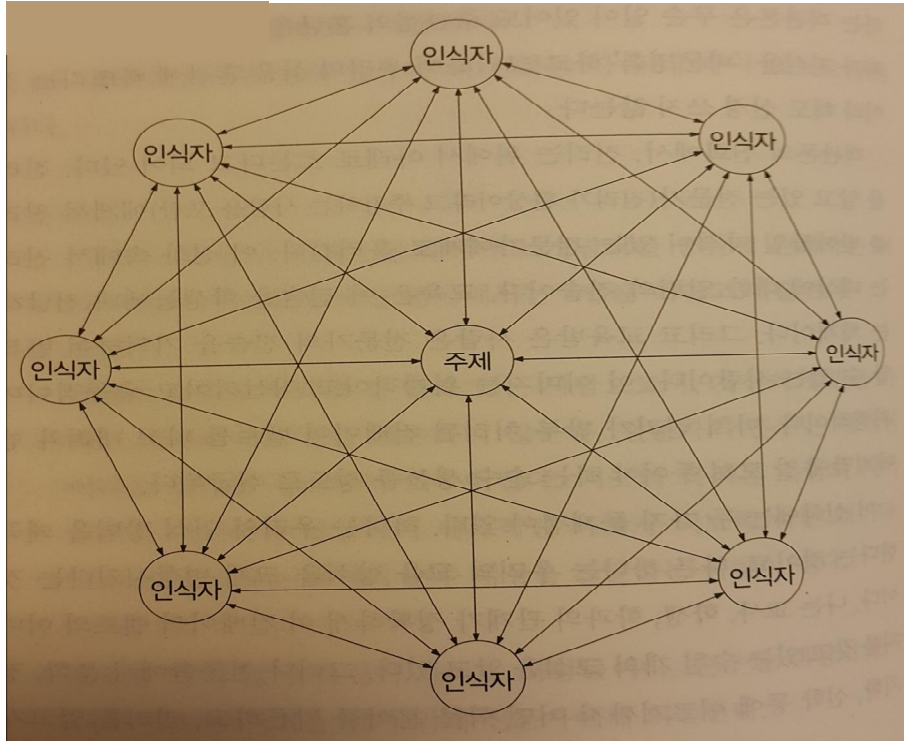
이 탐구 주제들은 교실을 넘어 확대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체험학습을 통해 연대, 목관아 건물,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생겨났다. 교과서에서 제시해주는 주제와 달리 교육 주체로부터 나왔다. 체험학습을 다녀오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고, 외부의 누군가가 줄 수도 없는 특별한 주제였다. ‘연대(煙臺)’는 제주도 곳곳에 존재하고 지역화 자료에도 제시 되지만 학생과 교사에게 체험학습 이전에는 별 의미가 없는 곳이었다. 학생들과 교사의 직접적인 경험은 연대(煙臺)를 중심 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체험학습 때마다 새로운 질문들이 나타났는데, 독특한 경험이 곧 탐구 주제와 연결되어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어냈다.

각자의 탐구 주제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했지만 하나의 큰 주제로 모아지기도

했다. 연대 관찰은 모두가 똑같이 했지만 연대를 만드는 구성물이 돌만 있는 것인지, 계단이 왜 없는 것인지, 계단이 없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 개인적인 궁금증은 각기 달랐다. 이러한 개인별 궁금증들은 무시되거나 그 다음 체험학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 존재하면서도 ‘연대가 이어지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와 같이 모두가 함께 탐구하는 큰 주제도 만들어냈다.

체험학습을 통해 발현된 탐구 주제는 학생이나 교사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아동의 관계를 중시하게 하였다. 주제는 교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능한 위치에서 학생들에게 내어준 것도 아니며, 학생에게서 나온 것이어서 무조건 의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탐구할만한 주제로서 가치를 지녔다. 체험학습을 실행하다 보니, 교사는 연대와 관련하여 발현되는 주제 하나 하나가 모두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심화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주제를 중심으로 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사 중심’ 혹은 ‘학생 중심’이라는 양극적 사고를 뛰어넘어 교사와 학생이 위대한 사물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교실, 교사도 학생도 아닌 주제를 초점으로 하는 그런 교실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교실에서는 위대한 사물(주제)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학생은 교사를 의식하고 교사는 학생을 의식하면서 사물의 이름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Palmer, 2016: 216-234). 학생들은 자신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교사에게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동료들과 의논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는 서로에게 선불리 정답을 요구함 없이 끊임없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질문해 나갔다.

다음의 [그림 IV-1]를 통해 이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진리의 커뮤니티 안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 진리의 커뮤니티는 개인적인 사고와 감정의 힘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물의 은총’에 의해 지탱되는 커뮤니티이다(Palmer, 2016: 201). 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연대(煙臺)’와 관련한 반성적 주제가 곧 위대한 사물이다.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와 교사, 주제와 학생, 교사와 학생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림 IV-1] 주제를 중심에 둔 진리의 커뮤니티

출처: 가르칠 수 있는 용기(Palmer, 2016: 194), <표> 진리의 커뮤니티

체험학습을 통해 생겨난 주제는 인터넷 포털검색을 통해 풀어내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다. 진리의 커뮤니티에서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은 복잡한 의사소통의 패턴인 관찰, 해석, 공유, 시정, 갈등, 교감, 합의가 도출되고 이는 순환적, 상호작용적, 역동적이다(Palmer, 2016: 196). 우리의 주제는 직접 경험과 더 많은 사례, 이를 통한 사고의 과정이 있어야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질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체험학습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체험학습은 (궁금증)이다. 왜냐하면 체험학습만 가면 궁금한 게 생긴다.(소현)
- 체험학습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체험학습을 가면 찾아본 것에 대해 생각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다.(루다)
- 체험학습은 (도전)이다. 왜냐하면 직접 가 봐서 도전하고 같이 경험해보기

때문이다.(명진)

- 체험학습은 (생각을 넓혀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체험학습을 갔다 오고 탐구를 할 때 생각과 머리 안을 넓혀주기 때문이다.(준혁)

체험학습이 실시되었던 당시의 현장 상황이 덧붙여져 탐구 주제는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되었다. 체험 당시 변형 복원되어 있었던 배령연대의 실제, 관리되지 않아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애월연대의 현실,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해안도로가에 안내판 없이 방치되었던 남두연대, 많은 이가 찾는 관광지에 제주의 연대 유적을 알리려는 사진전 개최 등 학생들이 그 곳을 찾았던 시점의 현재성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생각을 갖도록 하게 했다. ‘학생들이 변형 복원 되기 전에 배령연대를 찾았다면’, ‘애월연대가 재복원된 후에 관찰했다면’, ‘남두연대에 표지판이 설치되었을 때 관찰했다면’, ‘사진전을 개최하는 곳이 관광지가 아니었다면’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실천했을 내용은 본 연구에서 기록한 것과 크게 달랐을 것이다. 학생들이 연대를 그 순간의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탐구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 발현된 주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

학생들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발현된 주제들은 탐구로서의 다양한 기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활동들을 이끌었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정보를 찾으며, 결론을 이끌어내고, 가능한 해결을 반성하는 과정은 탐구로 일컬어진다(Levstik & Barton, 2009: 25). 의미 있는 질문이 있었기에 이를 찾아가는 다양한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학생들은 객관적 자료들을 관찰하고 해석하였다. 체험학습에서의 자료들은 유적 자체, 안내판, 사진, 지도 등 다양한 텍스트로 존재했다. 연대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연대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술할 수 있었다. 안내판 및 사진 설명을 읽고 그 내용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연균’, ‘상응하는 연대’, ‘비지정 문화재’ 등과 같은 특정 단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텍스트로부터 사실을 도출하여 자신의 말로 정리하였다.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다. 한 예로 ‘계단이 없는 현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가설들이 설정되었다. 원래부터 없었을 가능성, 있었는데

없어져서 복원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또 계단이 원래부터 없는 것이라면 연대에 올라가기 위해 봉준들이 사용했을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이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추후에 결론을 내렸다.

다양한 사례에서 공통점을 추출하여 일반화도 시도하였다. 제주목관아에 전시된 여러 가지 제주의 고지도를 살펴보면서 특징을 뽑아냈다. 봉수와 연대가 표시되어 있고, 제주목의 위치가 모두 아래(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와 반대로 연대 사진전을 통하여 ‘연대의 모습이 모두 사각형일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깨고 다른 모양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모듬원들과 가능성이 있는 의견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실질적이며 진지한 의논 과정을 거쳤다. 고지도에 제주목이 아래에 그려진 이유에 대하여 서로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되, 가장 알맞다고 여겨지는 의견을 모듬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드러났다.

학생 나름대로 연대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으므로 학생 반응들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학생 모두가 흡족할만한 탐구 과정들을 완벽하게 거쳤다고 말할 수는 없다. 관찰을 할 때 중심이 되고 있는 연대가 아닌 주변물만을 보는 학생들도 있었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를 관찰한 내용 중에 ‘바위 틈에 많은 풀이 있다’, ‘애월연대에 있는 덩굴은 연대를 보호하기 위해 심은 것이다’와 같은 기록이 있었다. 가설을 설정할 때에는 가능성을 쉽게 생각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대는 왜 돌로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하여 ‘돌이 아닌 철로 만들면 되는데’라는 전체 공유 활동 시간에 나온 학생 반응은 주변 학생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한 공통점을 추출하여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통찰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제주의 고지도들의 공통점에 대하여 ‘모두 다 직접 그린 것이다’라는 내용도 맞는 것이었지만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탐구의 요소와 과정을 먼저 배우고 체험학습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 체험학습 과정에서 탐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를 체득하였던 것이다. 강요된 탐구가 아니라 연대(煙臺)를 주제로 한 자발적 탐구였기에 연대 주변의 풀이 자란 모습을 관찰 결과로 썼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현실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학생들에게서 발현된 주제는 학생들을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켰다. 체험학습 현장에서 자신들이 궁금했던 탐구 주제와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가 제시한 탐구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제주의 고지도에 열중하고, 제주목에 대한 개념을 재미있어 하며, 놀이동산도 아닌 전시된 사진 속의 연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탐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연대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함도 함께 주었다. 이런 감정은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시청 누리집 활용하기, 연대를 이용한 올레 디자인하기, 남두연대 표지판 확인하러 가기, 연대의 주소 고치기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다. 주제에 따라 정해지는 체험 장소와 장소의 이야기

실제로 첫 체험학습처럼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교사보다 더 많은 준비와 수많은 실행을 해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시나리오는 빈틈이 없다. III장에서 시나리오로 짜여진 배령연대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관 주도 체험 프로그램들의 단점은 학생과 교사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체험에서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형성된 봉군의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그로 인해 연대를 다시 다녀와야겠다는 내적 의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로 발길을 옮기게 하였다. 그런데,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는 학교 체험학습 장소로 선호되는 곳이 아니다. 이곳을 체험학습 했던 결과물도 없어 연대 하나 놓여진 이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통 알 수도 없는 관심 밖의 장소이다. 하지만 이 연대들은 학생들과 연구자에게 탐구를 위해 꼭 가봐야 하는 필수적인 장소가 되었다.

제주목관아의 경우, 제주목관아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체험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이곳은 연대의 연기가 종착하는 곳으로서 의미 부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봉수(京烽燧)를 확인하는 곳으로서의 제주목관아의 위치와 중요성, 제주목사의 역할, 옛 고지도의 특징을 알아보는 체험 코스가 되

었다.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은 연대 탐구 과정에서 품었던 학생 개인들의 궁금증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또한 방어유적의 현실을 알게 해 준 것 뿐만 아니라 유적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 자신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이 학생과 교사에게서 발현된 주제는 체험 장소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 기존의 장소를 다르게 해석하게 하기도 했다. 만들어진 전시 장소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장소를 다시 구성했던 것이다. 교사는 이제껏 체험학습을 진행했을 때 느꼈던 관찰자나 보조자가 아닌 직접 체험 장소에서의 활동 내용을 결정하며 교육의 주체자로서의 만족감과 책임감 모두를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체험 장소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습득자, 관람자, 시나리오 배우가 아닌 그 곳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궁금한 바를 풀어내는 탐구자와 시나리오 구성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2. 정체성의 재구성

가. 장소정체성

학생들에게 제주도의 여러 곳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물어봤다. 12명의 학생이 거의 매주 외출하고 있었고, 6명이 한 달에 1~2번, 10명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거의 매주 외출을 한다는 학생 12명 중 8명이 외지에서 제주로 이주한 가정의 학생들이었다. 제주도의 여러 장소들 중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는 곳은 바닷가, 오름, 숲길, 경마공원과 같은 자연, 휴식처 또는 대형마트나 오일장과 같은 곳들이 전부였고, 2명만이 박물관이나 체험장 같은 곳에 간다고 대답하였다. 제주도의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일부 가정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제주도라는 지역 특성을 즐길 여유 없이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느껴졌다.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가고 싶은 곳들에 대한 관심사가 달라졌다.

- 성산일출봉에 가고 싶다. 이유: 옛날 고지도에는 모두 다 성산일출봉을 강조하여 그렸고 일출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수혁-거의 외출이 없음)
- 학교에서 갔던 곳과 관련된 곳을 많이 가고 싶어집니다. 가족과 차를 타고 갈 때 체험 활동했던 곳을 지나가면 눈에 잘 띕니다. 제주도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아랑-매주 외출, 주로 오름과 같이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감)
- 민속촌이나 역사박물관, 미술관을 가보고 싶다. 역사에 관심이 생겨서(상록-매주 외출, 주로 오름과 숲길을 감)
- 원래는 번개체험관에 가고 싶었는데 목관아로 달라졌다.(준서-매주 외출, 주로 산에 가거나 바닷가에 있는 올레길을 걸음)
- 고내봉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가서다.(수현-거의 외출이 없음, 몇 달에 1~2번 오일장에 감)

체험학습의 결과, 학생들은 제주도 역사와 관련한 장소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연대, 봉수, 제주목관아에 다시 가고 싶은 학생도 있었고, 체험 과정에서 듣거나 살펴봤던 장소(성산일출봉, 고내봉)에 가고 싶기도 했으며, 역사와 관련한 장소들을 망라하는 박물관 같은 곳에 가고 싶다고도 했다. 체험학습을 했던 곳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제주를 역사가 있는 장소로 바라보게 되었다.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 제주라는 곳에 학생들은 애착의 감정 또한 나타냈다. Ⅲ장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체험학습까지 끝마친 뒤 교사가 제시한 문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어두운 곳에 켜진 불빛을 봤을 때 또는 산 위어나 바닷가에 켜진 불빛을 보며’라는 문구에 대해 18명의 학생이 봉수, 연대에 불이 켜진 것 같은 상상의 경험을 했다. ‘바닷가를 바라보며’라는 문구에 22명이 왜적선, 연대를 떠올리며 누가 시키지도 않은 혼자만의 상상을 해 보았다. ‘애착(attachment)’은 장소정체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애착의 감정을 가지면 대상에 쉽게 마음이 떨어지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연대의 지금 모습을 걱정하고 현실에서 해결해보려는 실천 의지가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까지 이루어졌다. 이때 제주 외 출신 이주 학생

들은 이미 외지인이 아닌 이곳의 정주민 입장이 되어 있었다. 제주시청 누리집을 이용한 감사와 건의의 글 올리기 활동을 위한 모둠별 활동에서 ‘저희는 옛날의 통신 수단을 무사히 남겨서 미래에도 남게 하고 싶습니다’, ‘남두연대에 표지판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표지판을 보고 남두연대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남두연대에 안내판을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와 같은 말들을 작성하였다. 연대에 안내판이 설치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고, 사람들이 연대에 대한 관심을 잃을까 걱정하였다. 연대를 이용한 올레 디자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방어유적을 알릴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하였다.

나. 자아정체성

자아정체감은 원래부터 형성되어 있었다기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상호 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져 가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전 생애에 걸쳐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발달과업이다(김다희, 2016). 학생들은 제주도의 연대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미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애착과 적극적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들이 제주도를 삶의 근거지로 둔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장소정체성은 자아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다.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제주라는 지역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다. 또래 관계 형성 및 학교에서의 경험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준다. 4회에 걸친 체험학습을 마친 뒤 지금까지 체험학습에 대해 어떤 내용이든 시로 써 보도록 하였다. 연대에 대한 시가 가장 많았으며(21명), 다음으로 제주목관아에 대한 시가 많았다(3명).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각각 탐구, 친구, 국립제주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주제로 시를 작성하였다. 그 중 2명의 학생의 시가 주목되었다.

역사 탐구
세현

우리가 많이 가는 데는
역사를 배우는 곳!
우리 반은 탐구도 잘하니까
우리 반은 역사의 전문가지.
우리는 역사를 다른 학년보다
더 많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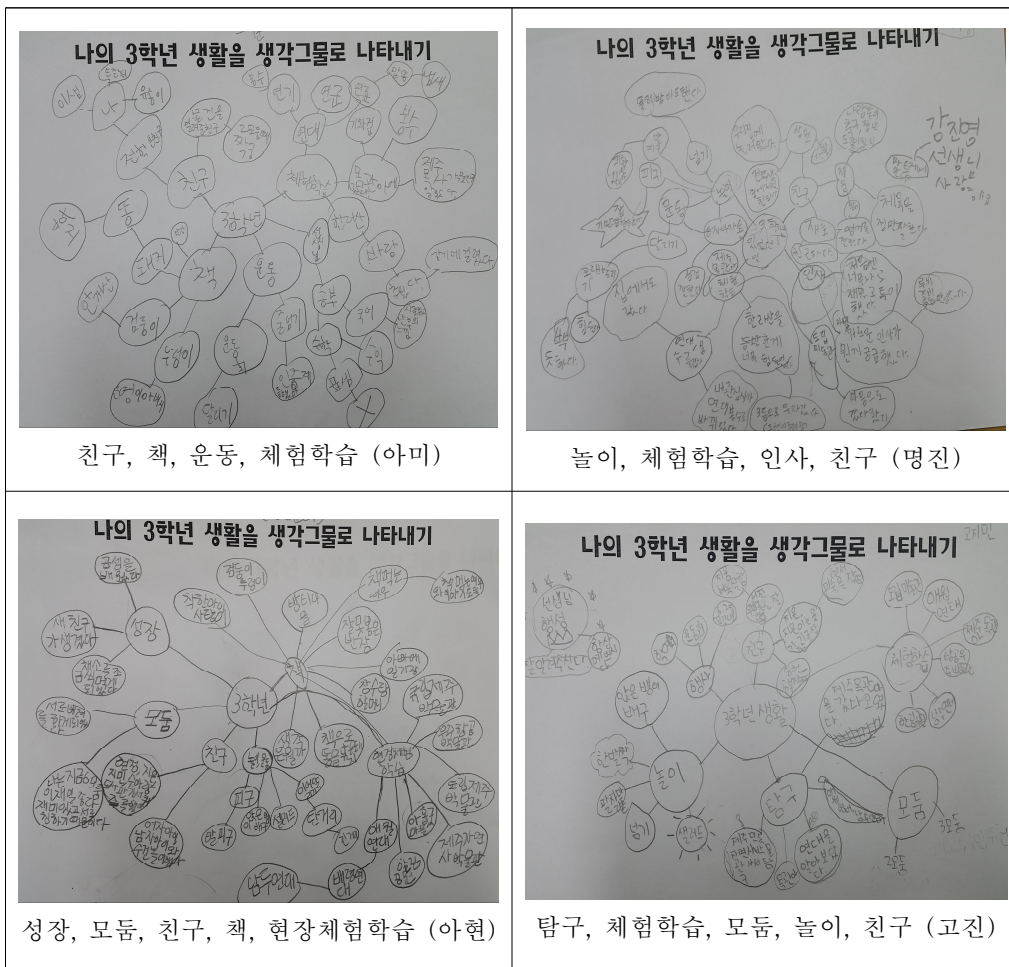
친구들이 나를 도와준다
하준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가는데
모듬은 네 명
우리는 둘씩 나눈다.
승학이와 명진이가 다가온다.
난 알 것 같았다. 같이 다니자는 거였다.
함께 다니면서 연대도 탐구한다.
이층 갈 때 내려갈 때 승학이가
손을 잡아준다
탐구할 때는 명진이가 기다려준다.
요즘에는 승학이 명진이가 좋다.

세현이의 시에서 우리 학급이 탐구도 잘하고, 역사에 대한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보인다. 또한 다른 학년보다 발현된 주제를 찾아 체험학습을 많이 다녀오면서 타학년과 구분되는 것이 자랑이 되었다. 그런데 이 시를 작성한 세현이는 우리 반 남학생들 중에서 학업성취도 성적이 가장 하위권이다. 하준이의 시에서는 친구 관계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 보게 된다. 특히 하준이는 친구들을 먼저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친구들과의 싸움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편이었다. 또한 1학기에 싸움이 크게 번져 학부모간의 오해와 다툼도 경험했었다. 이 학생이 체험학습에서 느낀 것은 탐구 과정에서 함께 다니고,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였다. 이 학생들은 성적은 하위권이지만 탐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자주 다투어 말썽을 부리지만 친구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위의 시 속에서 엿볼 수 있다.

연대(煙臺)를 통해 연대(連帶)를 이루었다. 연대(煙臺)들만 이어져 연대(連帶)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연대(煙臺)와 내가, 그리고 나와 친구들, 선생님이 서로 연대(連帶)하여 관계 맺는 가운데 긍정적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탐구를 해 나가며 모듬원들과 의논하는 과정에 익힌 배려, 궁금증을 알아내는 탐구의 성공적 경험이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은 [그림 IV-2]를 통해 나타난다. ‘3학년 생활을 생각그물로 나타내기’를 통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큰 개념들을 살펴보겠다. ‘친

구’, ‘모듬’ 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서로 믿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가 형성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체험학습’, ‘탐구’라는 단어를 통해 ‘연대’만을 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학생들에게 큰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학년 동안의 탐 구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존재, 공부가 즐거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또한 선생님과도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잘 적응된 학교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IV-2] 3학년 생활을 생각그물로 나타내기 활동 결과

3. 지속적인 표현 활동이 주는 의의

체험학습별로 학생들이 남긴 결과물들은 다양했다. 배령연대 체험학습에서는 ① ‘나의 체험 장면 베스트 3’ 그림으로 그리고 활동 설명하기 ② 나에게 남은 연대의 모습 그리기 ③ 봉군에 대한 내 생각 적기를 하였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학습에서는 ① (활동 중) 연대를 관찰하여 그려보기 ② (봉군, 연대, 지역 주민 등)이 되어 일기 써보기, ③ 연대 체험 후 궁금한 사항 정리하기를 하였다. 제주목관아 체험학습에서는 ① (활동 중) 탐구활동지 해결하기 ② 제주목 관아를 다녀와서 알게 된 점 정리하기를 하였다.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체험학습에서는 (활동 중) 알게 된 점 정리하기를 하였다. 교실 활동으로 ‘고지도 를 읽어 알게 된 점 정리하기’, ‘시청 누리집에 올리는 감사와 부탁의 글 작성하기’, ‘연대를 활용하여 제주 올레 디자인하기’를 하였다. 그 외에 ‘체험학습을 주제로 시 쓰기’, ‘3학년 생활 생각그물 작성하기’, ‘체험학습 비유하기’ 등 지속적으로 활동 결과물들을 작성하였다. 이 때 학생들은 글과 그림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

가. 학생: 다양한 생각거리와 감정 표현의 지점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할 때마다 ‘질문’에 대해 생각한 결과를 썼다. 활동지로 구성된 이러한 탐구 주제 관련 문제들에 답을 적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질문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또 다른 궁금증을 만들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지식으로 도약하게 만들었다. 체험 장소마다 생각해야 할 점들은 달랐는데, 이때마다 깊이 있는 사고가 요구되었다. 어딘가에 있는 내용을 베껴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 비교, 추출, 가설 설정 등을 통해야만 답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연대를 자세히 관찰한 뒤 궁금한 점’, ‘제주목의 위치’, ‘제주의 고지도들의 공통점’, ‘오늘날의 관덕정의 특징’, ‘연대 사진들을 보면서 알게 된 점’ 등 차분히 오랫동안 생각해야만 했다.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고 반성해볼 수 있었다. 배령연대 체험을 한 후 시간이 흘러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본인

이 알고 있는 연대를 그려보고, 봉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글로 적어봤다. 이 활동으로 학생들은 연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연대를 잘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봉군이 어떤 사람인지 적어본 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를 다녀오니 자신들이 봉군을 극화된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있었음을 성찰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여러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학생들은 다시 더 살펴보고 물어보고 친구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지역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글쓰기 및 연대-올레 디자인하기는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활동이었다. 시청 누리집에 글을 올리기 위해 애월연대, 남두연대, 배령연대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자신들이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한 언어로 쓰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감사와 건의의 글을 작성하기 위해 여러 번의 글쓰기 과정이 이루어졌다. 연대-올레 디자인 활동은 미술적인 감각이 요구되었다. 학생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제주의 방어유적을 올레의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청 누리집을 통한 글 올리기 및 디자인 활동은 국어-사회, 사회-미술의 통합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였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를 다녀온 직후 작성하였던 일기 써 보기 활동의 경우 감정 표현의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 일기는 객관적 사실을 적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활동에서는 특히 체험학습을 다녀온 날에 대한 일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봉군이라든가, 연대 등이 되어 보는 감정이입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응연대에 달려가느라 힘들었을 봉군, 매일 불과 연기를 밝혔을 연대의 역할로 인한 힘들 등이 저절로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이 외 체험학습에 대하여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시 작성해보기, 체험학습에서 접한 것들을 비유해보기 등은 자신의 지적 측면만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측면도 바라보게 만들었다.

나. 교사: ‘반성, 지식·정서의 형성 확인’ 과정인 동시에 ‘계획’ 과정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남긴 결과물들을 통해 학생들의 탐구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예로 학생들은 제주목관아에 전시된 고지도들을 보면서 ‘연대와 봉수가 그려져 있다’라고 정리하였다. 연대가 제주의 고지도에 그려져 있었을 만큼 중요했던 유적이며 연대는 탐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여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손으로 그려져 있다’와 같은 단순한 반응도 나타났는데, 때문에 제주목관아에 전시된 고지도 2개 정도를 확대하여 보여주며, 지도에서 연대와 봉수를 확인하고 그 밖의 공통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에게 형성된 이미지와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배령연대 체험 후 표현한 그림과 글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남겨진 봉군의 이미지를 확인했다. 멋지고 강한 봉군이라는 이미지는 체험학습이 만들어 낸 이미지로 봉군의 힘들었던 생활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이후 연대 사진을 보고 문제점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비지정된 문화재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걱정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표현물을 통해, 연대의 모습이 점차 사실적으로 구체화되어 갔고 봉군 이미지도 변화되었으며,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책임감, 안타까움, 기대감 등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탐구 과정에서 친구 간에 연대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형성했고, 제주를 역사적 장소로 인식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지식·정서의 형성에 대한 확인은 다음 탐구 활동을 계획하는 목적과 동기를 마련해주었다. 배령연대의 체험이 이후 세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형성한 지식과 정서를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릇된 봉군 이미지를 만들어 낸 체험학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학습 후 학생들에게 연대와 봉군에 대한 사실적인 이미지가 생겨났지만, 연대의 모습에 대한 정보는 더 필요했다. 그래서 그 다음 제주목관아와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의 학습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듯 교사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표현 활동 결과물을 해석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에게 형성된 지식, 정서의 확인을 바탕으로 다음 학습을 계획할 수 있었다.

4. 다원적·총체적 관점의 중요성

가. 지역 출신 요소와 무관한 지역사 이해

지역의 문화재인 연대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은 놀라운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고, 아쉽고 한탄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물도 보여주었다. 교사가 제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정주민 가정의 학생들이 지역사에 대해서 더 알고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결과는 늘 반대였다. 지역사에 대해 모르는 건 정주민 가정 학생이든 이주 가정 학생이든 똑같았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로 학습 결과는 달랐다. 연대(煙臺) 탐구는 우월한 학습 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었고 지역 출신이라는 측면은 어떠한 효과도 발휘할 수 없었다.

연대 탐구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즐겁게 탐구하여 눈에 띄는 결과를 작성한 학생 4명(남2, 여2, 이상 A그룹), 탐구 과정을 어려워했고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 4명(남2, 여2, 이상 B그룹)을 선정해 보았다. 선정된 결과 A그룹은 소득 수준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이주 가정 학생이었고, B그룹은 정주민 가정 학생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이고 학업성취도가 하위권에 속했다. 정주민 가정 또는 이주 중도 출생 가정 학생 중에 학업성취도가 중간 수준이고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들의 경우, 탐구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나 괄목할만한 탐구의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여 두 그룹 선정에 속하지 않는다. 이 두 그룹의 제주목관아의 활동지 결과물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 A그룹과 B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인구학적·학업적 배경

학생 배경	A1	A2	A3	A4	B1	B2	B3	B4
성별	여	남	여	남	여	여	남	남
출신 지역	부산	경기	서울	경기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소득 수준	상	상	상	상	하	하	중	하
학업성취도	상	상	상	상	하	하	하	하

<표 IV-2> 두 그룹의 ‘비교하기’ 정리 결과

오늘날의 관덕정과 『탐라순력도』 <공마봉진> 속의 관덕정 비교하기	
A그룹	B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점은 기와의 모양이 똑같고, 다른 점은 기둥의 수가 다릅니다.(A1) · 이름 관(관덕정)이 1702년에는 없고 2015년에는 있다.(A2) · 같은 점은 기둥의 폭이 다르고 관덕정이 있는 곳이 넓다. 다른 점은 기둥의 개수가 다르다. 관덕정이 한자로 안 써 있다. 계단도 없다.(A3) · 깃발이 비슷한 것 같고 옛날 관덕정은 넓는데 현재의 관덕정을 작다.(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점: 모습이 비슷하다, 예전같이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 차이점: 옛날처럼 낡지 않다. · 알게 된 점: 관덕정을 알았다.(B1) · 같은 점: 관덕정이 있다. · 다른 점: 무늬가 다르다. · 알게 된 점: 예전은 깃발이 있었지만 오늘에 없었다.(B2) · 같은 점은 거의 나무와 돌도 만들어져 있다. 다른 점은 말이 없다.(B3) · 같은 점은 거의 나무와 돌로 됐다.(B4)

*A1~A4, B1~B4에서 숫자는 그룹의 학생을 임의로 표시한 것임

두 그룹간의 결과물 비교를 위하여 A그룹, B그룹이라 나누었으며 각 그룹 학생 4명의 배경은 <표 IV-1>와 같다. 관덕정의 모습 비교하기 결과를 살펴보겠다. 비교를 위해서는 자세한 관찰이 요구되는데, A그룹의 결과에는 상당히 자세한 기술이 눈에 띈다. ‘기와의 모양’, ‘기둥의 개수’, ‘기둥의 폭’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쓰이고 관덕정 현관 및 앞 광장의 넓이까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비해 B그룹의 경우 정확한 표현 없이 ‘모습이 비슷하다’, ‘관덕정이 있다’, ‘무늬가 다르

다'라고만 정리하고 있다. 세세한 관찰 없이 대강의 모습만을 보고 정리하였다. 또한 '帥(수)'라고 적힌 노란 깃발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력임에도 오늘날에는 없다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찰 결과 정리의 기술적인 면도 눈에 띈다. 같은 점, 다른 점, 알게 된 점에 대하여 A그룹은 매끄럽게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B그룹은 '공통점: , 차이점: '처럼 개조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A그룹은 ' ~한데 ~하다', '~하고 ~하다'라는 생각의 흐름을 나타내는 기술이지만, B그룹의 경우 자신이 보는 것들이 연결되어 생각되지 못하는 기술로 나타난다.

<표 IV-3> 두 그룹의 '공통점 찾기' 정리 결과

제주의 고지도를 살펴보며 공통점 찾기	
A그룹	B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모든 지도에 연대가 표시되어 있는 게 공통점이다. 지도가 지금과 방향이 다른 이유는 관찰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A1) · 거꾸로 되어 있다.(A2) · 지도들의 공통점은 다 제주목이 표시되어 있고, 거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육지에서 볼 때에 거꾸로 보여서 그런 것 같고, 보는 위치가 달라서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다.(A3) · 육지에서 그려서 다 거꾸로 되어 있다.(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으로 하지 않고 진짜로 그려서(B1) · 지도가 반대로 왜 있다.(B2) · 다 돌로 만들어야 한다.(B3) · 지도가 반대로 되어 있다.(B4)

*A1~A4, B1~B4에서 숫자는 그룹의 학생을 임의로 표시한 것임

제주 고지도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활동에서 A그룹은 알아낸 결과에 대한 이유가 서술되어 있다. '육지에서 그려서', '관찰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위치가 달라서'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B그룹은 '지도가 반대로 되어 있다'처럼 단순 문장으로 제시하였으며, 전혀 관련 없는 '다 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리도 볼 수 있다. A그룹은 공통점을 추출해낼 때 그 이유까지 생각한 것이다.

A그룹이 정리한 내용은 목관아 활동지에 ‘고지도의 위아래가 거꾸로 그려진 것에 대한 이유 찾기’로 따로 제시된 것이기도 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탐구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했다고도 볼 수 있다. A그룹이 정리한 내용 중에 고지도 속의 연대를 발견한 것이 있다. 제주목은 큰 네모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아도 제주도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게 보이지만, 연대는 그렇지 않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해안가에 불이 피어오르는 모습이나 네모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아야 이 기호가 연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통점을 추출하기 위해서 A그룹이 좀 더 자세히 관찰했고 활동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V-4> 두 그룹의 ‘느낌 작성하기’ 정리 결과

망경루에 올라 사라봉(정자)을 확인한 느낀 작성하기	
A그룹	B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경루에 가서 보니까 제주목관아의 주변이 보이고 사라봉이 보였다. 관아까지 봉수가 전달되었을 것 같다.(A1) · 사라봉이 가까이 있고 잘 보였으니까 밤에 신호가 아주 잘 보였을 것 같다.(A2) · 우리가 정말로 봉수를 보는 듯해서 옛날 당시에 온 느낌이었다.(A3) · 사라봉수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밤 때 불을 피우면 잘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경루에 올라가보니 진짜로 잘 보인다.(B1) · 2층에 올라가서 봉수에 연기나 불을 피워있는지 알 수 있다.(B2) · 봉수나 연기나 불을 피우는지 알 수가 있다.(B3) · 2층에 올라갔다.(B4)

*A1~A4, B1~B4에서 숫자는 그룹의 학생을 임의로 표시한 것임

망경루에 올라 연대의 이어짐을 확인한 느낌 작성하기에서 A그룹은 제시된 문제에 맞게 생각과 느낌을 작성하였다. ‘~하였을 것 같다’, ‘알 수 있었다’, ‘~한 느낌이었다’라는 문장 어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B그룹은 2명만이 ‘~을 알 수 있다’라고 작성했고 1명은 올라갔다는 사실만을 적었다. 일차적으로 문장 작성 기술이 위와 같았고 이번엔 내용을 들여다보자. A그룹의 경우 ‘정말로 봉수

를 보는 듯해서'라는 표현은 정자를 통해 저절로 봉수를 상상하게 되는 부분이 인상적인데, 이는 탐구 과정에 빠져든 결과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사라봉이 보이는 사실 자체만 확인하려 간 것이 아니다. 사라봉의 정자는 사라봉수를 대신하는 것으로 제주의 연대와 봉수가 연결되어 실제로 제주목에 도달하고 있는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려 간 것이다.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은 이 체험학습을 할 때 '연대의 이어짐'이라는 궁금증에 대하여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탐구 활동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A그룹은 봉수가 잘 전달되었을 것 같고, 봉수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B그룹은 사라봉수를 확인한 전율이 없다. 연대를 알아가는 탐구 활동 자체가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젖어드는 마음까지 여력이 없어 보인다.

이렇듯 A그룹은 탐구의 과정 및 결과 정리에서 B그룹보다 월등히 앞섰다. 이런 경향은 제주목관아의 학습 활동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체험학습 과정과 교실 안의 여타의 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났다.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보내는 면에서도 현저히 차이가 드러났다. 학생들의 외출 빈도를 물어봤던 물음에서 A그룹 4명은 모두 매주 부모님과 함께, B그룹에서 2명은 한 달에 1~2번, 나머지 2명은 거의 외출이 없다고 답했다. A그룹은 오름, 숲길, 박물관, 오일장에 간다고 답하였고, B그룹의 경우 2명의 학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는 곳 외에는 없다고 답하였고, 1명은 오일장에 간다고 답하였다.

지역사를 탐구하는 데 있어 어느 지역 출신인가보다 학생이 그 지역을 즐기고 관심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의 관심, 소득 수준,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가 제주 출신인 정주민 가정이라도 부모가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해 말해 주지 않고,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역 출신 요소는 지역 이해 학습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B그룹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사 변화에 대해 '연대, 봉수, 목관아를 가보고 싶다', '고내봉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가서다', '탐라순력도에서 사라봉을 보았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봉수가 있다고 해서 가보고 싶다', '연대만 갔다 오니까 고내봉수가 가고 싶다'라고 적었지만 실제 부모님과 시간을 내어 갔다 올 여력이 거의 없는 것이다.

교사는 연대가 제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 문화제이기 때문에 제주 정주민 가정의 학생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빠져 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주민 가정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은 답답했고 계속 마음이 쓰이게 했다. 탐구 과정이 쌓여가도 탐구 결과의 감동적인 부분은 찾지 못했다. 교과서를 벗어나 지역의 탐구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는 데도 왜 제주의 지역적 요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인가? 학생들의 배경 요소 중 부모의 관심과 소득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미치는 영향이 자신들의 생각을 기술해야 하는 탐구 활동에서 더욱 드러났다.

나. 이야기를 통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 읽기

학생들과 연대 탐구 체험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얻은 발현적 교육 경험은 비교하기식 평가 관행을 내려놓고 한 개인의 성장을 봐야 한다는 점을 안겨준다. 우리 반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는 탐구의 의미를 알아내는 데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 반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자기 출신지를 말하고 어떤 이유로 제주도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출신지, 교육비 지원 대상자, 학교 학업성취도 결과를 학생 옆에 표시하며 학교의 공식적 지식이 갖는 폭력성이 우리의 탐구 과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교사 자체가 이미 공식적 지식의 습득, 전달에 익숙하여 학교 교육에 유리한 학생이 탐구 과정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제를 만들고 있었다.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결과물을 정리해야 하는지 잘 단련되어야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가 마련되었고 그 기제에 익숙한 학생들은 별 무리 없이 해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 지식 습득의 우월성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연대 탐구가 의미 있는 탐구 과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 학생과 비교하면 늘 이 학생들의 경우 제대로 보는 것도 없고 알아내는 것도 없어 보이는 데 말이다. 바로 분절적이며 획일적인 단위 목표로의 재단을 넘어 개인의 성장 관점으로 바라보면 된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정들은 한 학습 목표, 한 단원, 한 번의 탐구, 한 번의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 간의 비교주의밖

에는 평가의 방법이 없다. 그러나 발현적 교육 경험은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탐구의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별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럴 때 학생 모두에게 연대 탐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소득 수준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타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이면을 바라보게 하였다. 소득 수준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능숙하게 탐구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잘 정리하고 제주도에 대한 애착심도 더 생겼으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제주도로 이주하고 적응하면서 느꼈던 감정, 연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의 내면의 변화, 자신의 지식을 만들어가는 탐구자로서의 성장 과정은 간과된다. 앞의 분석의 A그룹에 속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아래 내용은 학생의 모든 탐구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과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이어 붙여 구성한 이야기이다.

아랑이는 배령연대를 다녀올 때부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잘 인지하고 체험의 순서를 잘 따랐다. 체험 직후 아랑이는 노란 연기, 무기 다루기, 주변의 오래된 건물을 생생히 기억했다. 아랑이에게 봉군은 힘센 남자, 순발력 좋고 멋진 사람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그런데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학습에서 안내판에 적힌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어 불이나 연기를 피울 수 없으면 연군이 달려가서 상응하는 연대, 봉수에 연락을 취했다’는 문구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연군과 봉군이라는 용어, 계단이 없는 연대, 연대를 구성하는 돌이 현무암, 연대 돌이 층층이 쌓이지 않고 빼뿔빼뿔한 점들을 관찰했다.

교실에 돌아와 연대에 계단이 없는 점에 대하여 모둠원들과 옥신각신 열띤 의견을 나누며 ‘계단은 원래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졌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만들어보았다. 그리고 다른 모둠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연대의 모습이 다 사각형인가’라는 궁금증에 대하여 사각형이어야 봉군들이 관찰할 방향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직후, 자신의 기억에 남은 대상이 되어 일기를 써보라고 하니 오늘날의 연대가 되어 보았다. 오늘날 아무도 찾지 않는 연대에 학생들이 와서 자신을 섬세하게 그려주니 기분이 좋았고 궁금한 점은 학교로 돌아가서 풀어주기를 기대한다 했다. 자신이 연대를 찾아갔을 때 연대가 느꼈을 감정을 생각해보았고, 앞으로 연대가 바라는 것처럼 자신이 연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낼 것이라는 것을 담아냈다.

연대가 이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주목관아에 가기로 했다. 사실 아랑이는 이전에 제주목관아를 다녀온 적이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

가면서부터 자주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아랑이네 가족은 이주할 계획을 가졌다. 서울이 복잡하기도 했고 비염이 너무나도 심했던 것이다. 여덟 살 때쯤 제주목관아에 갔는데, 그 때에는 연날리기, 투호 등 놀기 위해 방문했던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탐구를 하게 된 것이다.

망경루에 올라 사라봉을 바라보니 정말로 봉수를 보는 듯해서 옛날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이제까지 계속 궁금하였던 제주목의 위치가 왜 아래쪽인지도 알아냈다. 임금을 위한 지도이니 관찰 장소가 달랐던 것이다. 제주 고지도의 공통점을 찾아내라는 데 계속 보고 보고 또 본 결과 거의 모든 지도에 연대가 표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찾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지도들도 모두 거꾸로 되어있었다. 모두 친구들과 하나 하나 자세하게 알아내다가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고 지도가 거꾸로 된 이유를 찾는 등 하나씩 알아내다 보니 제주의 보물을 탐구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느낌이었다.

‘오늘날 연대들은 과연 어떻게 남아 있을까’라는 주제로 다음 체험학습에 나섰다. 여러 연대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마두연대 등은 비지정되어 있어서 복원하기 어려워서 나중에는 더 알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연대가 동그랗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전에는 사각형 모양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이번 사진전을 보면서 연대와 봉수가 같이 연락을 취했다는 것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살짝 둥근 모양의 좌가연대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다 보니, 바닷가에 갔다가도 바닷가 끝에서 적인지 우리 배인지 모르는 배가 한 척이 들어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성산일출봉이 연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지도에 성산일출봉이 연대 대신 놓여있다는 생각도 했다. 부모님과 놀러갔다가도 네비게이션에서 제주목관아가 근처에 있다고 하면 ‘아~’하고 소리를 냈다.

이런 체험학습은 아랑이에게 백과사전에 비유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체험학습을 하면 모르는 게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체험학습으로 제주도를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 궁금해지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게 되었다. 선생님이 모든 체험을 하고 나서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시를 써 보라고 했다. ‘나한테, 연대 의사선생님 왕진 오셨어’라는 시를 썼다. 의사 선생님이 내 몸통이 흔들리니 복원하면 좋겠다고 하고, 내 표지판을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내용으로 썼다. 제주도에 이사 오기 전에 관광만 할 때는 좋기만 했는데 3학년이 되어 이사하고 나서 뱀, 지네, 개미 떼로 인해 놀라서 제주도에 대한 아랑이의 마음의 점수가 100점에서 60점으로 떨어졌었다. 그런데 체험학습을 통해 배우면서 마음의 점수는 다시 높아졌다. 이제 가족과 함께 오름이나 자연환경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갔던 곳과 관련된 곳에 더 많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리고 제주의 역사는 제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랑이에게 제주는 잠시 머무르며 즐기던 환상의 제주일 때는 최고였지만 삶의 제주가 되는 순간 마음의 점수가 떨어져버린다. 이제껏 자연의 정돈된 아름다움만 봤기에 지내와 개미가 있는 실제 제주의 터전은 반갑지 않은 놀라움이 었다. 이주와 함께 전학을 왔고, 이전에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던 연대를 탐구해 나갔다. 연대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생활 속에서 연대가 어른거리는 경험을 했다. 연대에 마음이 쓰이면서 제주라는 곳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곳이 되어갔다. 제주도를 이제는 놀러오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보인다.

지식의 형성에 있어 탐구의 과정이 어렵지만 서서히 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랑이가 관찰, 감정 이입, 의논 과정, 성급한 일반화의 제일반화 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은 찾아보게 되는 배움의 습관을 지녀가게 되는 것이 보인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를 다녀온 후, 연대의 모양에 대하여 동그란 모양을 그리면서 생각해봐도 사각형이어야만 방향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사각형 모양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 연대 사진을 보면서 다른 모양이 있음을 스스로 받아들였다. 아랑이는 교실에서 뛰든 잘하는 친구로 보인다. 그러나 아랑이도 고지도의 공통점을 찾아낼 때 보고 보고 또 봐야 알아낼 수 있었으며, 시간 내에 다 알아내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 잘하는 학생이라 일컬어지는 학생들의 탐구 과정도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체험학습 초반의 일기 쓰기와 체험학습 후반의 시 쓰기에서 아랑이는 둘 다 연대가 되어 본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현저히 틀렸다. 처음 연대가 될 때에는 학생들이 연대에 관심을 가져주고 더 잘 관찰하고 알아주기를 바란다. 나중에 쓴 시에서 연대는 복원과 안내관 점검이라는 전문가다운 연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는 입장이 되고 있다. 연대가 학생들에게 자신을 더 잘 알아가기를 바라던 입장에서 학생의 진단을 받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아랑이가 연대를 탐구하기 전과 후에 연대에 대해 갖는 지식과 감정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탐구 능력과 그 결과는 타고나서 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체득되고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면 B그룹에 속한 학생의 이야기도 살펴보자.

아현이는 배령연대 체험이 무척 재미있었다. 옛날 옷을 입어보고 창을 들어보고, 연대에서 의식을 치를 때마다 펼쳐지는 종자들이 재미있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 체험 후 아현이는 봉군들은 순발력, 힘센 사람,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학습을 갔을 때 계단이 없고 돌이 반듯하게 세워져있지 않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안내판을 읽으며 부지런히 내용 정리도 했다. ‘높이와 너비는 각각 10척 내외’, ‘봉수대 25개소와 연대 38개’, ‘연대마다 별장:6, 연군:12 배치’, ‘연기, 불을 피울 수 없으면 연군이 달려가 상응하는 연대에 전하는 동시에 가까이 있는 봉수에도 연락’이라고 적었다.

교실로 돌아와 선생님이 모둠별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다. 아현이는 연대 주변에 나무가 왜 있는지 궁금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돌이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세웠을 거라 추측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연대는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아현이는 보는 사람마다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제주목관아로 체험학습을 갔을 때 선생님이 내어준 탐구 문제를 풀어야 했다. <공마봉진>이라는 그림 속의 관덕정과 오늘날의 관덕정을 비교해 보았다. 관덕정이 여전히 있는 것이 같았고 무늬는 달랐다. 옛날 그림 속에 깃발이 있는 것은 찾았는데, 지금의 관덕정 앞에도 똑같이 그 노란 깃발이 있는 걸 보지 못했다. 제주의 고지도들을 쭉 살펴보니 지도가 반대로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망경루에 올라 사라봉수를 봤다. 2층에 올라가면 봉수에 연기나 불이 피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제주목이 왜 지도의 아래에 있는지 정리해야 했는데, 아현이는 ‘아래에서 위를 보려고’라고 썼다. 그 날 이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교실에서 듣고 3일이 지나 제주목관아에 다녀오면서 알게 된 점을 정리할 때 ‘서울에 있는 임금님이 보려고 제주목이 아래에 있다’고 썼다.

마지막 체험학습인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에 가서 전시된 사진들을 보았다. 큰 지도에 봉수와 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였다(‘9진’과 제주 삼읍성 표시). 특히 빨간 표시(9진) 주변에 연대와 봉수가 있었다. 그리고 연대 사진들을 아무리 보아도 불을 피운 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다보니 봉수와 연대가 고려시대부터 쓰였다는 것과 봉수보다 연대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대 중에서 아현이는 죽도연대에 가고 싶었다. 아현이가 알고 있는 연대의 모습은 전혀 없고 그냥 평범한 길을 죽도연대라고 하고 있어, 연대 같지 않은 연대를 보면서 이런 연대도 있다는 걸 알고 싶어하였다.

체험학습은 아현이에게 공부에 비유되었다. 왜냐하면 체험학습 탐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 공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다 보니, 원래 제주도는 그냥 내가 태어난 내 고향으로만 알았는데 제주목관아, 연대, 봉수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도에 대한 아현이의 마음은 늘 30점,

50점, 70점이었지만 연대, 목관아 등을 다녀올 때는 100점이었다. 옛날에 있던 것들을 가서 보고 활동지 같은 걸 하면서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부모님과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는 곳만 가지만, 아현이가 만약 어딘가를 갈 수 있다면 사라봉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탐라순력도에서 사라봉을 보았는데, 선생님이 그 곳에 봉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 부모님과 함께 놀러 나간다면 남두연대 표지판도 보러 가고 싶다.

아현이는 서툴지만 자기 나름대로 탐구의 과정을 실천해갔다. 안내판을 읽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때 이해되는 않는 ‘10척’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적기도 하였지만 읽은 내용을 짧게 축약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며 확인하는 시간에 잘 듣고 들은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Ⅲ-18]에서 교사가 제시한 ‘연대를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로지 아현이가 속한 모둠만이 이에 대하여 고민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주목이 아래에 위치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아래에서 위를 보려고’라고 정리하지만, 3일 뒤에는 ‘서울에 있는 임금님이 보려고 제주목이 아래에 있다’고 적는다. 서울에서 제주도를 내려다보며 그 이유를 진짜 배웠던 것이다.

아현이는 비록 학교 관행에서 규정된 성취도면에서는 하위권일지 모르지만,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을 즐겼다. 제주도의 역사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면서 내 고장 제주도에 대한 마음이 100점이 되고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모두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혼자서는 보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학습 후의 궁금증에서 연대 주변에 있는 나무는 연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세웠을 것이라고 쓴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처음에는 주변적인 내용으로 고민하지만 교사가 제시한 연대의 관리 측면을 듣고는 방향을 바꿔 생각했다.

아현이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이 배령연대 체험 후 연대의 모습을 그럴 때 네모 반듯한 모습의 전체 모양에 신경 쓸 때, 아현이는 서로 다른 돌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연대를 구성하는 돌 하나 하나를 자세히 그렸다. 또한 거의 모든 친구들이 가고 싶은 연대로 둥근 모양 또는 2단으로 되어 있는 좌가연대, 왜포연대, 별도연대 등을 선택할 때 아현이는 연대의 아무런 흔적도 없는 비지정문화재인 죽도연대를 가고 싶어 했다.

이런 점이 학교 문화에서는 약점이 되었다. 모두가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잡고 있을 때 아현이는 그 주변부를 중시했다. 나름 진지하게 살피는 것이지만 학교에서는 정해진 지식 습득의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하위권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학생의 관점과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학생들의 배움의 과정이 가치 있게 읽혀질 수 있다. 발현적 교육 경험은 학생들이 겪는 경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모든 학생의 연대 탐구 과정은 분절적이 아닌 내러티브로서 읽혀져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학교 현장에서는 탐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제와 자료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한 방편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험학습은 일회적이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여 실질적 탐구를 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는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실질적 탐구를 통해 답을 찾아가며 자신의 탐구 과정을 성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의 ‘연대(煙臺)’와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로부터 발생된 질문을 바탕으로 실행된 체험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발현적 교육 경험에 대해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제주의 통신·방어 유적인 ‘연대(煙臺)’와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연대’에 대한 이해는 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학생들과 교사가 궁금하였던 질문에 대한 해결의 밑바탕이 되어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발현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여러 번의 체험학습이 ‘질문-탐구-반성-지식·정서의 형성’ 과정을 거치며 주제와 장소를 달리한 발현적 교육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질문을 중심으로 총 4회의 체험학습과 이와 관련한 교실활동이 이루어졌다. 체험학습의 장소는 배령연대, 애월연대, 남두연대, 제주목관아,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이며, 교실 활동으로 제주의 고지도 <한라장축> 읽기, 제주시청 누리집에 감사와 건의의 글 올리기, 연대-올레 디자인 하기가 이루어졌다. 실행연구 과정에서 얻은 활동 결과물, 사진 자료, 교사의 노트 및 연구물을 바탕으로 발현적 교육 경험을 기술, 분석, 해석하였다.

먼저, 각 체험학습의 실행과 반성의 과정에서 주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령연대 체험학습을 통해 기관 주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관찰하고 질문하는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이 의도한 관점을 교사와 학생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는 실질적인 탐구에 비추어 프로그램과 체험학습을 성찰해야 한다. 둘째, 애월연대와 남두연대 체험학습을 통해 ‘관찰’은 발생적 질문을 이끌어내는 가장 기

본적인 탐구 요소이며, 관찰을 통한 객관적 사실의 이해는 옛날의 인물과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생적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질문 해결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주목관아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과 교사로부터 생성된 주제와 질문은 기존의 체험 장소 시나리오와 다른 장소의 이야기를 만들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제주의 방어유적> 특별전 체험학습을 통해 ‘연대(煙臺)’를 지속적으로 공부한 결과 학생들이 연대에 대한 지식, 지역에 대한 애착심, 역사적 상상력, 자긍심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대(煙臺)’를 탐구하며 얻은 발현적 교육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교사에게서 발현된 주제의 가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경험이 곧 탐구 주제로 발현되어 해결에 대한 동기가 된다. 또한 발현된 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탐구의 속성을 띤 활동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제는 탐구자가 특정 장소와 특별한 의미로 관계 맺게 해주며 자신의 장소 이야기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발현적 교육 경험은 학생들의 장소정체성과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학생들은 제주도에 장소감이 없거나 생태의 장소로만 바라보았는데, 역사가 있는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결과, 학생들은 연대(煙臺)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애착을 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연대(煙臺) 탐구 경험으로 형성된 연대(煙臺), 친구, 선생님과의 연대(連帶) 경험은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셋째, 지속적인 표현 활동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다. 학생에게는 탐구 문제를 직접 정리하면서 다양하고 심화된 성찰을 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표현 결과물을 탐구하여 학생들의 지식과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의 교육 활동 과정과 결과를 바라볼 때에는 다원적,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 연대(煙臺) 학습에서 학생의 지역 출신 요소보다 가정의 소득 수준과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때, 학생들의 탐구 경험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읽어 획일적 목표로 재단하는 관행을 벗어나 학생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물을 기술하고 분석함에 있어 미처 세세히 기록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의 실행 과정에서 ‘연대(煙臺)’는 주로 방어유적으로 언급된다. 연대를 방어 유적이라 지칭한 데에는 활동의 흐름 탓도 있었지만 교사가 연대가 갖은 여러 의미를 넓게 보지 못한 데서도 기인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대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자는 대학원을 통하여 동료 교사와의 교육 연구 모임에 참여했다. 이 안에서 체험학습의 내용을 수없이 되돌아보며 의미를 분석하였다.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발현적 교육 경험을 이루어내고 그 분석의 내용은 교사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의 실행 연구 과정과 분석 결과가 앞으로의 연대(煙臺)학습과 발현적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봉룡. (2003). 초등학교 향토사교육의 실제와 지향점. **역사교육**, 87, 131-151.
- 강정호. (2005). 방어시설로 이용된 돌담-성, 연대, 봉수. **제주교육**, 127, 58-63.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3-1**. 서울: 천재교육.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사회 3-1**. 서울: 천재교육.
- 김다희. (201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또래관계의 질, 팬덤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철. (2000).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읍성, 인성과 봉수, 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숙. (2000). 발현적 교육과정에서의 학습개념과 또래문화의 발현 및 구성: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22, 85-111.
- 김은옥. (2003). **감정이입을 통한 역사학습이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 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철. (2014). **제주 4·3사건 트라우마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영상적 재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 (2004). 장소정체성의 형성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서울 테헤란벨리를 사례로. **지리학논총**, 44, 1-28.
- 김한중. (2001).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원리와 학습 방안. **典農史論**, 7, 735-754.
- 박영숙. (2010). 발현적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교사의 역할 탐구: 레지오 접근법을 중심으로. **변형영유아교육연구**, 4(2), 45-64.
- 성용구. (2000). 한국 초등학교에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적용가능성. **대구대학교 논문집**, 35, 399-425.
- 역사지리 연구모임 안팎너머. (2011). **역사지리학 강의(처음 만나는 역사지리**

- 열다섯 마당). 사회평론, 123-141
- 오상학. (2004).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耽羅文化, 24, 131-152.
- 오종숙. (2003). 레지오에밀리아 교육 사상과 그 실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오창명. (2014). 제주의 봉수와 연대. 제주발전포럼, 48, 112-126.
- 유승희. (2004). 프로젝트 수업에서 주제의 발현.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20(2), 165-181.
- 윤지현. (2006). 프로젝트 접근법의 지적 기원 및 초등 실과교육에서의 적용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1), 75-95.
- 유승희. (2009). 프로젝트 수업에서 상징화의 주기. 대구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25(2), 201-217.
- 이보미, 오문향, 김자현. (2013). 제주올레에서의 자연과의 교감과 편익인지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7(1), 215-235.
- 이영권. (2004).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103-123.
- 이영권. (2005). 새로 쓰는 제주사.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132-155.
- 이은숙. (2004). 장소에 대한 애착의 개념구조. 사회과학연구, 20(별쇄본).
- 이정환. (2012). 초등 사회과 교육과 연계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철영, 김성철. (2008). 조선시대 동해안지역 연변봉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7(2), 47-66.
- 임은진. (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 107-121.
- 장재훈. (2004).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 초등학교의 향토사 교육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인봉. (1995). 이야기 제주사. 제주: 신성출판사, 117-122.
- 정광중. (2001). 탐라순력도의 분석을 통한 제주도 마을의 구성실태와 형성배경. 초등교육연구, 6, 105-138.
- 제주도. (1998). 濟州의 文化財(增補版). 제주: 태화출판사, 312-326.
- 제주도. (2002). 제주의 역사·민속·자연. 제주도관광진흥과, 135-156.

- 제주시. (2012). **제주시 방어유적-연대·봉수 조사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시교육지원청. (2014). **살기 좋은 우리 고장**. 디자인케이.
- 제주시교육지원청. (2015). **살기 좋은 우리 고장(2쇄)**. 고려인쇄.
- 제주특별자치도. (2008). **耽羅巡歷圖(6판)**. 서울: 로얄프로세스. (원저 1702).
- 조길자. (2004).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나타난 발현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조선대 생활지연구소**, 23, 209-239.
- 최원석. (2010). 장소 정체성의 사회적 재구성: 지리산 청학동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문화역사지리** 22(1), 130-145.
- 최원형. (2003). Kilpatrick의 교육과정 이론. **교육연구**, 11, 45-60.
- 태지호. (2011). **영상 재현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의미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은미. (2012).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역사와 교육**, 15집, 219-249.
- Donna, K. P. & Kevin, C. (2010).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과정과 맥락, 그리고 교 자기 연구(황미향 외 역)**. 서울: 교육과학사.
- Jones, E. B. & John Nimmo. (2015). **발현적 교육과정(김경철, 최연철 공역)**. 교육과학사.
- Levstik, L. S. & Barton, K. C. (2009). **초·중학교에서 학생들과 조사 연구하는 역사하기(배한극 외 역) 3판**. 아카데미프레스.
- Palmer, P. J. (2016). **가르칠 수 있는 용기(이종인 외 역) 12쇄**. 서울: 한문화멀티미디어.
- Parker, W. (2012). **초등 사회과교육론(주웅영 외 역)**. 교육과학사
- Susan Stacey. (2015). **발현적 교육과정-이론에서 실제로의 적용(정선아 외 역)**. 서울: 창지사.
- 고영철의 역사교실. (n.d.). ‘배령연대’. [<http://jejuhistory.co.kr>](2015.11. 5)
- 고영철의 역사교실. (n.d.). ‘우지연대’. [<http://jejuhistory.co.kr>](2015.11. 5)
- 김순옥. (2015. 6.10). **생생 체험 봉수씨연대기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kPgcFOTx90>](2016. 10. 5)

네이버백과사전.(n.d.). ‘칠반천역’. [<http://terms.naver.com>](2016. 11. 10)
네이버위성지도.(n.d.). ‘애월초’. [<http://map.naver.com/>](2016.11.10.)
문화재청. (n.d.). ‘수근연대’. [<http://cha.go.kr>](2015. 11. 28)
제주시청 인터넷 신문고. (2015. 12. 3). 애월연대와 남두연대를 다녀와서 건의합니
다. [<http://jejusi.go.kr>]
제주시탐라순력도.(nd.) [<http://tamnamap.jejusi.go.kr/>](2016. 11. 10)
제주올레길 코스, 제주 올레지도. (n.d.).(2013. 4. 30). [<http://cafe.naver.com/jhtrekking/133>]
(2016.12. 5)

ABSTRACT*

An Emergent Educational Experience through Jeju Smoke-Signal Station Study

Kang, Jinyeoung

Major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Ryu, Hyunjong

Although inquiry ability has been said to be important in social studies, there is rarely authentic inquiry at school site due to the limitation of its topics and data. Experiential learning is implemented as a way to overcome it, but students and teachers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enerate their own questions. They must create their own questions, find the answers to them, and reflect their inquiry proc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emergent educational experiences regarding Jeju smoke-signal station(Yeondae).

The experiential learning was implemented in three smoke-signa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17.

stations(Baeryeong Yeondae, Aewol Yeondae and Namdoo Yeondae) Jeju Mokwanga, and special exhibition <Jeju's Defense Ruins>. And classroom activities such as reading Jeju's old map <Hallajangchok>, posting gratitude and suggestions to the Jejusi homepage, and Yeondae-Olle design were done.

Various findings were noticed in the process of execution and reflection of each experiential learning. First, students should have an opportunity to pose questions. Second, 'observation' takes important role in generating 'emerging questions' without accepting institution-led experiential learning. Third, their own questions can lead the students and teachers to make different narrative from the existing own. Forth, by their continuing the study of Jeju smoke-signal station, students formed its knowledge, attachment to the region, historical imagination, and self-esteem.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ent educational experience generated from 'Jeju smoke-signal station' inqui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alue of emergent 'topic' can be appreciated three aspects. Topics of inquiry were emerged in experiential learning, and they motivate problem solving. Also, they allow students to perform activities of inquiry naturally. Finally with them the students are able to make relationship with a place personally and make up own stories.

Second, emergent educational experiences affected students' place identity and self-identity. Students came to see Jeju island as a historical place. This led them to get attachment to Jeju island as well as to Jeju smoke-signal station and participate activities in community. The various Jeju smoke-signal station inquiry experiences formed an experience of solitary with the Jeju smoke-signal station, friends, and teacher, and subsequently it constructed a positive self-identity too.

Third, continuous expressional activities were meaningful to both students and teachers. They gave students opportunities of deep reflection and

examining their own feelings. By them, teacher could check students' knowledge and emotion, and plan the next experiential learning.

Forth, when a teacher accesses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eeds. Students' domestic income level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were more influential in learning Jeju smoke-signal station than their place of origin. By narrative approach to reading students' inquiry experiences, we can go beyond a practice of evaluating it with an uniform standard, and understand individual development and growth.

It is expected that the action-research will give an opportunity of reflecting the Jeju smoke-signal station learning and the emergent curriculum and contribute to implementation of relevant curriculum..

*Key Word: Jeju smoke-signal station(Yeondae), Emergent educational experience, Emerging question, Inquiry, Experiential learning